

제주도 목축문화의 실태와 보전 · 활용방안

김 동 전 · 강 만 익

발 간 사

제주지역의 목축문화는 중산간 초지대 중심의 생업활동의 하나로 등장했으며, 테우리(牧子)들에 의해 형성된 전통문화이면서 고려시대부터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목장사의 산물이라고 할 것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014년 1월 전국 최초로 말 산업특구 지정 이후, 말 산업 활성화에 필요한 기반조성과 함께 제주마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조사 연구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제주에 남아있는 목축문화로는 말충공예를 비롯하여 ‘마조제’와 ‘공마해신제’, ‘백중제’, ‘방앳불농기’ 등이 잘 남아있습니다.

이 연구는 『조선왕조실록』과 『승정원일기』 등 고문헌과 『탐라순력도』(1703) 제주관련 고지도, 마을공동목장과 목축민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그 실태를 파악하고 보존·활용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고려 말인 1276년부터 몽골(원)에 의해 탐라목장이 설치되어 100년 가까이 운영되었고, 조선시대에는 ‘십소장’과 ‘산마장’ 그리고 ‘우도장’ 등이 운영되면서 제주지역의 마필 수가 전국 마필 수의 60% 이상을 차지할 정도였습니다. 일제강점기에는 조선총독부의 축산정책에 따라 제주지역에 마을공동목장이 등장해서 현재에 이르렀습니다.

근래에 들어 마을공동목장 매각, 목축업의 현대화, 목축인들의 고령화로 목축문화가 점차 소멸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목축문화를 보전하는 방안으로 테우리 집단의 목축방법 구술채록, 테우리 학교 운영, 목축문화박물관 설치 등을 제시했으며, 목축문화 활용방안으로 현마공신 김만일(金萬鎰) 테마공원 조성, 목축문화 원형을 활용한 콘텐츠 개발 등을 제안했습니다.

제주도의 목축문화는 몽골, 중국, 한국, 일본 등 동아시아적 관점에서 문화 전통 계승에 대한 연구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이 연구결과는 소멸되고 있는 제주의 목축문화를 보전하고 세계화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 기대됩니다.

2014년 8월

제주발전연구원
원장 공 영 민

연구요약

I. 서론

1. 연구 필요성

- 목축문화는 주민들이 목초지를 이용해 우마를 사육하며 만들어 놓은 다양한 생활양식(도구 · 기술 · 조직 · 제도, 관념 · 상징)을 의미함.
- 근래에 들어 1930년대에 설치된 마을공동목장이 매각되면서 목축활동의 중단과 함께 목축문화가 소멸되고 있으므로 더 늦기 전에 마을공동목장을 배경으로 등장했던 목축문화에 대한 실태조사가 필요함.
- 목축문화를 형성하고 경험했던 목축민(테우리)들이 고령화되고 있는 현실에서 이들이 가지고 있는 전통지식(傳統知識)인 목축문화의 원형발굴과 보전 및 활용방안을 제시할 필요 있음.

2. 연구목적과 연구방법

- 2014년 1월 제주도가 대한민국 제1호 말산업 특구로 지정된 상황에서 제주도의 전통적 목축문화원형에 대한 역사적 조명과 실태파악 그리고 보전 및 활용방안을 제시하려고 함.
- 연구방법으로 고문헌 조사와 고지도 분석, 현장조사(면담)를 실시했음.
 - 고문헌자료 : 『조선왕조실록』과 『승정원일기』, 『비변사등록』, 『제주계록』, 『탐라지』, 『제주읍지』 등
 - 『탐라순력도』(1703), 『탐라지도』(1709), 『제주삼읍도총지도』(1730년대 이후), 『대동여지도』(1861), 『제주지도』(1899) 등
 - 현장조사 : 13개 사례마을(제주시 8개, 서귀포시 5개마을)
 - 마을별 향토지 분석

II. 제주도 목축문화의 역사적 조명

- 제주지역에는 고려 말인 1276년에 몽골(원)이 탐라목장을 설치한 이후, 조선 시대에는 십소장과 산마장 그리고 부속도서에 우도장과 가파도별둔장이 설치되었음. 조정에 제향용(祭享用)으로 바칠 소를 전문적으로 사육하기 위해 우목장(牛牧場)이 별도로 존재했으며, 일제강점기에는 마을공동목장, 해방 후에는 기업형 목장들이 등장해 현재에 이르고 있음.

III. 제주도 목축문화의 실태조사

1. 제주도 목축문화의 원형

- 제주의 목축문화는 자연 초지를 기반으로 했던 생업활동의 산물로, 땅에 의존하여 만들어 놓은 전통문화인 동시에 자연환경의 소산이며, 테우리(牧子)들에 의해 형성된 ‘오래된 미래’요, 고려시대부터 현재까지 형성, 변모하고 있는 문화에 해당함.
- 제주의 목축문화는 기르는 대상에 따라 말 문화와 소 문화로 구별되며, 문화의 성격에 따라 순수목축문화와 혼합목축문화로 분류할 수 있음.
- 말 문화(馬文化)에는 마조제와 공마해신제, 낙인과 거세, 말총공예, 몰방애, 공마, 점마, 잣성, 감목관, 목자, 산마감목관, 목자(몰테우리) 등이 있음.
- 소 문화(牛文化)에는 바령, 공동목장, 윤회방목, 발갈쇄 · 번쇄 · 멍쇄 · 삼쇄, 방앗불 놓기, 백중제, 발볼리기, 낙인코시, 진드기 구제, 상산방목, 출비기, 캐파장, 목감 등이 있음.
- 목축문화 중 바령하기, 발볼리기 등은 농업과 목축이 결합된 혼합목축문화에 해당함.

2. 제주도 목축문화의 실태조사

- 실태조사지역의 공통된 목축문화에는 낙인, 귀표, 목축의례(백중제, 테우리코시, 목감의례), 윤회방목, 방앗불 놓기(화입), 진드기 구제, 목감, 목감막

(테우리막, 우막), 급수장, 발갈쇄 등이 있음을 확인함.

- 목축의례와 진드기 구제 전통은 현재까지도 유지되고 있으나 목축민의 고령화와 축산업 포기로 인해 대부분의 목축문화가 소멸되고 있음.
- 정책적 시사점 : 잔존하고 있거나 이미 사라진 목축문화의 원형을 마을별로 조사하여 목축문화에 대한 아카이브를 구축한 다음, 이들에 대한 보전 및 활용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IV. 제주도 목축문화의 보전방안

1. 테우리 집단의 목축방법 구술채록

- 테우리 집단들이 고령화되어 점점 사라지고 있는 현실에서 이들이 보유하고 있는 목축기술과 전통지식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가 시급함.

2. 목축문화박물관 건립

- 문화관광부, 한국마사회, 제주특별자치도 그리고 민간부분이 합작하여 건립하는 방안, 마을단위에서 공동목장 부지를 활용하는 방안이 있음.

3. 테우리 학교 운영

- 테우리들의 목축문화에 대한 조사·연구결과를 토대로 제주도의 목축문화를 체험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계승시키기 위해 테우리 학교 운영을 제안함.

4. 목축문화 해설사 및 스토리텔러 양성

- 목축문화를 소개할 수 있는 목축문화 해설사 및 목축문화에 등장하는 다양한 역사와 화제들을 알릴 수 있는 스토리텔러(story-teller) 양성 필요.

5. 동아시아 목축문화연구센터 설치

- 말 관련 학과가 운영되고 있는 대학 내에 동아시아 목축문화연구센터를

설치해 몽골과 중국, 일본의 말 박물관과 교류해 목축문화 연구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함.

V. 제주도 목축문화의 활용방안

1. 한마공신 김만일(金萬鎰) 테마공원 조성

- 테마공원을 의귀리에 조성하여 의귀리 마을 활성화에 도움을 주는 방안과 특정장소(제주마 하계방목지, 의귀리 마을공동목장 등)을 선정해 외부 예산 지원을 받아 조성하는 방안이 있음.

2. 한라산 상산방목 재현

- 제주도민들은 1970년대 한라산이 국립공원으로 지정되기 이전에 한라산 백록담, 윗세오름, 방애오름, 선작지왓의 고산초지대를 이용해 우마를 방목했던 목축문화를 가지고 있어 이를 재현하여 한라산의 역사문화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것을 제안함.

3. 목축문화를 활용한 마을활성화

- 목축문화를 이용한 마을발전 전략으로 표선면 가시리 마을은 전국 각지에 마을발전의 모범사례로 소개되고 있음.
- 구좌읍 송당리 마을에 있는 1소장 국마장과 마을공동목장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이 육우생산을 위해 설치한 국립제주목장 터와 근대 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최근에 복원된 이승만 대통령 별장 등을 자원화할 경우 특색 있는 마을발전 전략이 될 수 있음.

4. 목축문화원형을 활용한 콘텐츠 개발

- 목축문화 콘텐츠로 개발이 가능한 항목으로는 문화재 자료, 인물자료, 무형유산, 유형유산, 기록유산 자료 등이 있음.

- 목축문화를 활용한 방송콘텐츠 제작, 음식콘텐츠 개발과 목축의례 콘텐츠, 테우리 콘텐츠 개발이 필요함.

5. 마상무예단 육성

- 말 산업관련 학과를 개설한 대학교에서 지자체의 지원을 받아 마상무예단을 양성해 각종 행사에 마상무예 공연이 가능하도록 했으면 함.

6. 테우리 콘텐츠 개발

- 목축문화를 만든 테우리를 주인공으로 하는 콘텐츠 개발 필요.

7. 제주 목축문화 축제 개최

- 현행 제주마축제를 제주마 문화와 제주마의 역사를 품은 한국 대표 축제로 개발한 다음, 몽골이나 일본의 마축제처럼 세계화할 필요가 있음.
- 경북 청도군의 소싸움 축제나 스페인의 소몰이 축제를 응용한 제주의 소축제도 개발할 필요가 있음.

8. 제주 테우리 축제

- 프로그램으로 테우리 목축기술 실연(진드기 구제법, 낙인, 귀표), 백중의례 재현, 산장구마 재현, 점마실연(원장, 사장), 말몰이, 목축민요 경연(발 불리는 노래, 물방애 돌리는 노래), 테우리 마상무예 공연이 있음.

9. 마을공동목장과 말산업 특구 활성화

- 마을공동목장 활성화를 위해 접근성이 양호한 마을공동목장(남원읍 신례리, 제주시 해안동, 애월읍 납읍리·어음리·봉성리, 표선면 성읍리 등)에서 목축문화를 재현하는 행사와 시설운영(승마장 등, 캠프시설)을 허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 있음.
- 말산업 특구 활성화를 위해 제주마(조랑말) 체험공원 조성, 말 문화 체험마을 선정(송당리, 가시리 등), 목장길, 테우리 길 조성, 제주마와 한라마를 활용한 공영 승마장 운영 등 필요

10. 역사문화 관광상품 개발

- 목축문화를 활용한 역사문화 관광상품으로는 『탐라순력도』(1703)에 등장한 목축경관을 상품화하는 방안을 제시함.
- 실례로 「우도점마」를 이용해 우도장의 본거지였던 소머리오름 분화구에 말목장을 설명하는 안내문을 설치하며, 우도에서 열리는 축제에 우도목장 관련 콘텐츠를 추가했으면 함.

11. 목축역사문화 현장체험학습

- 목축문화와 목축지명을 이용한 역사문화 현장체험 장소로 제주도 동부지역인 구좌읍 송당리~표선면 가시리~남원읍 의귀리를 연결하는 지역을 추천함.

12. 세계자연유산 및 지질공원 마을활성화

- 세계자연유산 마을인 조천읍 선흘 2리에는 조선시대 2소장 국마장 그리고 지질공원 마을인 한경면 고산리에는 고려말 몽골목장인 서아막과 조선시대 모동장 등이 존재했음.

13. 공마선 도착지와 의 역사문화교류

- 조선시대 제주에서 출발한 공마선 도착지인 이진, 강진, 마량, 영암 등지에는 제주마와 관련된 역사유적들이 존재하고 있어 이들 유적에 대한 조사가 요구됨.

Ⅵ. 연구결과

- 제주도의 목축문화는 한라산지의 초지와 테우리, 우마가 융합해 등장했던 제주도적인 전통문화로, 앞으로 적극적인 보전과 활용이 필요하며, 목축문화를 경험했던 목축민에 대한 구술채록 조사가 시급함.

목 차

I. 서론	1
1. 연구필요성	1
2. 연구목적과 연구방법	2
3. 선행연구 및 연구의 기대효과	3
II. 제주도 목축문화의 역사적 조명	5
1. 제주도 목장의 변천과정	5
2. 고지도에 나타난 제주목장	26
III. 제주도 목축문화의 실태조사	39
1. 제주도 목축문화의 원형	39
2. 제주도 목축문화의 정체성	85
3. 마을별 목축문화 실태조사	89
4. 실태조사 결과에 따른 정책적 시사점	113
IV. 제주도 목축문화의 보전방안	119
1. 테우리 집단의 목축기술 구술채록	119
2. 목축문화박물관 설치	120
3. 테우리 학교 운영	123
4. 목축문화 해설사 및 스토리텔러 양성	124
5. 동아시아 목축문화연구센터 설치	126

V. 제주도 목축문화의 활용방안	127
1. ‘헌마공신’ 김만일(金萬鎰) 테마공원 조성	127
2. 한라산 상산방목 재현	131
3. 목축문화를 활용한 마을활성화	133
4. 목축문화원형을 활용한 콘텐츠 개발	135
5. 마상무예단 육성	143
6. 테우리(牧子) 콘텐츠 개발	145
7. 제주 목축문화 축제	147
8. 제주 테우리 축제	150
9. 마을공동목장과 말산업 특구 활성화	151
10. 역사문화 관광상품 개발	152
11. 목축역사문화 현장체험학습	156
12. 세계자연유산 및 지질공원 마을활성화	158
13. 공마선 도착지와 의 역사문화교류	159
 VI. 연구결과	 161
 참 고 문 헌	 167
 ABSTRACT	 173

표 목 차

〈표 II-1〉 조선후기 제주도 십소장의 위치와 규모	15
〈표 II-2〉 조선후기 제주 국마장 마정조직의 기능	17
〈표 III-3〉 제주도의 목축문화 요소	39
〈표 III-4〉 조선후기 제주지역 공마의 종류	41
〈표 V-5〉 제주도 목축문화 콘텐츠 구축현황	136
〈표 V-6〉 목축지명을 활용한 목축문화 답사장소의 실례	155

그림 목 차

〈그림 II-1〉 제주도의 한라산지 목축지대	6
〈그림 II-2〉 가라마	7
〈그림 II-3〉 적다마	7
〈그림 II-4〉 진현마정색도의 살곳이 목장	8
〈그림 II-5〉 현재도 남아있는 살곳이 다리	8
〈그림 II-6〉 팔준마의 하나인 응상백	9
〈그림 II-7〉 사육두수가 자장 많은 한라마	10
〈그림 II-8〉 제주지역 말 사육현황	10
〈그림 II-9〉 조선시대 전국 마필수의 변동	12
〈그림 II-10〉 고려말의 탐라목장인 동아막과 서아막의 위치	13
〈그림 II-11〉 수산진성 모습	14
〈그림 II-12〉 수산평 탐라목장터 모습	14
〈그림 II-13〉 조선후기 제주도 목장의 분포	16
〈그림 II-14〉 조선시대 제주도 목마장의 마필 수 변동	17
〈그림 II-15〉 「제주지도」(1899)에 나타난 화전동	18
〈그림 II-16〉 「제주삼읍도총지도」(1730년대 이후)에 나타난 산마장	19
〈그림 II-17〉 침장터(현재 돌문화공원 일대)	20
〈그림 II-18〉 상장터(산굼구리~성불오름 일대)	20
〈그림 II-19〉 녹산장터	20
〈그림 II-20〉 갑마장터	20
〈그림 II-21〉 초대 산마감목관 김대길의 교지	21

〈그림 II -22〉 산마감목관 김상걸(金商傑)의 묘	21
〈그림 II -23〉 제주도 공동목장 설치 보도자료(「매일신보」)	24
〈그림 II -24〉 이시돌 목장	26
〈그림 II -25〉 제동목장	26
〈그림 II -26〉 『탐라순력도』(1703)의 「한라장축」	27
〈그림 II -27〉 『탐라순력도』(1703)의 「공마봉진」	28
〈그림 II -28〉 『탐라순력도』(1703)의 「산장구마」	30
〈그림 II -29〉 점마시설인 원장과 사장, 목자복장	31
〈그림 II -30〉 『탐라순력도』(1703)의 「우도점마」	32
〈그림 II -31〉 『탐라순력도』(1703) 「별방조점」의 황자장 경계돌담	33
〈그림 II -32〉 『탐라순력도』 「별방조점」의 흑우둔과 테우리 모습	33
〈그림 II -33〉 「탐라지도」(1709)에 나타난 9소장과 산마장	34
〈그림 II -34〉 「제주삼읍도총지도」에 나타난 1소장과 2소장	36
〈그림 II -35〉 「대동여지도」(1861)에 나타난 십소장	37
〈그림 II -36〉 「제주지도」(1899)의 동부지역 목장	38
〈그림 II -37〉 전남 해남군 이진리 가옥 벽에 박혀있는 현무암	43
〈그림 II -38〉 조천진 조방장이 겸방어사에게 올린 첩정	43
〈그림 II -39〉 공마 진상단자	44
〈그림 II -40〉 해남현감 서목	44
〈그림 II -41〉 『탐라순력도』(1703) 「별방시사」의 점마장면	46
〈그림 II -42〉 울산광역시에 있었던 점마청	47
〈그림 II -43〉 남원읍 하례리 점마청(點馬廳)터	47
〈그림 II -44〉 3소장 회천동 하жат성과 조랑말	48
〈그림 II -45〉 갑마장과 10소장의 경계선인 간장	48
〈그림 II -46〉 둔마장, 피우가, 량(梁), 잣성으로 이루어진 국마장	50
〈그림 III -47〉 낙인	55

〈그림 III-48〉 몽골의 목축문화	55
〈그림 III-49〉 말을 이용한 밭 밟기	60
〈그림 III-50〉 한양대학교내 마조단터	62
〈그림 III-51〉 제주시 KAL 인근 마조단터	62
〈그림 III-52〉 마조제 실연장면	62
〈그림 III-53〉 돌방에 돌리는 조랑말	64
〈그림 III-54〉 해안과 고산지대를 연결하는 목축형태	66
〈그림 III-55〉 해안 공동목장 윤회방목 모식도	67
〈그림 III-56〉 밭에서 농우 길들이기	68
〈그림 III-57〉 해변에서 밭갈이 연습 장면	68
〈그림 III-58〉 금덕리에서 이루어진 방화장면	70
〈그림 III-59〉 방앗불 농기를 계승한 들불축제 장면	70
〈그림 III-60〉 송당리 백중제 재현장면	72
〈그림 III-61〉 장전리 백중제 실연장면	72
〈그림 III-62〉 소를 활용한 바령하기	73
〈그림 III-63〉 가시리 공동목장내 복원된 진드기 구제장	74
〈그림 III-64〉 1988년 윗세오름 일대 마지막 말 방목장면	76
〈그림 III-65〉 한라산지 구상나무 숲에서 방목 중인 소	77
〈그림 III-66〉 몽골 다리강가 마을의 젓 짜기	88
〈그림 III-67〉 몽골인의 간식인 유제품	88
〈그림 IV-68〉 가시리 조랑말 박물관	121
〈그림 IV-69〉 한국마사회 마사박물관	121
〈그림 IV-70〉 청도 소싸움 테마파크	122
〈그림 IV-71〉 청도 소싸움 경기장면	122
〈그림 IV-72〉 몽골 징기스칸박물관	126
〈그림 IV-73〉 일본 홋카이도 마사박물관	126

〈그림 V -74〉 의귀리 김만일 묘	129
〈그림 V -75〉 의귀리 김만일 생가터	129
〈그림 V -76〉 김만일 유적과 산마장 내 유적의 위치	129
〈그림 V -77〉 마상무예를 집대성한 정조대왕	130
〈그림 V -78〉 기병으로 거란을 물리친 강감찬 장군	130
〈그림 V -79〉 근대문화유산인 이승만 대통령 별장	134
〈그림 V -80〉 송당리 1소장 동·서 간장(사잇담)	134
〈그림 V -81〉 이시돌 목장의 개척자인 맥그린치 신부	135
〈그림 V -82〉 고득중 한라산목장 설치 건의기사	137
〈그림 V -83〉 심낙수의 「산장절목」 중 녹산장 자료	137
〈그림 V -84〉 제주MBC 마당놀이 톨말톨 이야기 홍보 자료	138
〈그림 V -85〉 말고기 요리안내서	139
〈그림 V -86〉 화장품인 마유	139
〈그림 V -87〉 들불축제 시 마조제 실연장면	140
〈그림 V -88〉 명맥을 이어가는 장전리 백중제	141
〈그림 V -89〉 장전마을 백중제 실연절차	142
〈그림 V -90〉 성읍리 조랑말타운 몽골리안 마상쇼 장면	143
〈그림 V -91〉 더마파크 몽골전문기마공연단 공연장면	143
〈그림 V -92〉 한국민속촌에서 이루어진 마상무예 공연(마상재)	144
〈그림 V -93〉 조선후기 격구(擊毬) 장면	144
〈그림 V -94〉 목자이면서 효자였던 고윤문 비석	146
〈그림 V -95〉 『탐라순력도』(1703)에 나타난 테우리 복장	146
〈그림 V -96〉 나담축제 개막식 장면	147
〈그림 V -97〉 나담축제 씨름경기 장면	147
〈그림 V -98〉 조랑말 경주대회 장면	148
〈그림 V -99〉 외국의 말 싸움 장면	148

〈그림 V -100〉 천연기념물인 제주흑우	149
〈그림 V -101〉 2013년에 이루어졌던 청도 소싸움 경기장면	149
〈그림 V -102〉 스페인 북부 팜플로나 산 페르민 소몰이 축제	149
〈그림 V -103〉 제주대박물관의 목축문화체험 프로그램 장면	154
〈그림 V -104〉 ‘헌마공신’ 김만일 묘역 답사장면	154
〈그림 V -105〉 제주도 목축역사문화 유적지 분포	157
〈그림 V -106〉 고려말 서아막과 조선시대 모동장터	158
〈그림 V -107〉 「제주삼현도」(18세기 중엽)의 모동장	159
〈그림 V -108〉 전남 마량에 세워진 돌하르방	160
〈그림 V -109〉 공마선이 도착했던 이진포구	160

I. 서론

1. 연구필요성

- 제주지역에서 목축문화는 제주도민들이 중산간 초지대를 배경으로 우마를 방목하며 만들어 놓은 다양한 목축생활의 총체로, 기르는 대상에 따라 말 문화(馬文化)와 소 문화(牛文化)를 포함하며, 이를 다시 순수목축문화(예: 낙인)와 혼합목축문화(예: 바령)로 구분됨.
- 제주지역에서는 고려말 몽골이 설치한 ‘탐라목장’과 조선시대 전국 최대 규모의 국마장이 운영되면서 말 생산과 사육이 강조되어 말 문화가 등장했고, 일제시기에는 마을공동목장이 조성되면서 군수품 확보라는 일제의 정책에 따라 말보다는 소 사육이 더욱 확대되었으며, 일반농민들이 발농사를 위해 소를 기르며 만들어 놓은 소 문화가 존재하고 있어 이들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와 연구가 필요함.
- 제주지역은 2013년 현재 전국 초지면적(38,000ha)의 45%(17,000ha)와 국내 말 사육 두수의 68%(2만두 수준)를 차지할 정도이나 제주지역의 축산업은 관광산업과 감귤산업에 비해 소득이 낮으며, 더욱이 축산업 종사자의 감소로 인해 목축문화가 점차 소멸되고 있는 현실에서 전통적 목축문화에 대한 조사는 매우 시급하다고 판단됨.
- 1970년대까지만 해도 목축을 생업으로 했던 목축민(테우리)들이 현재 고령화(高齡化)되어 더 이상 목축에 종사하지 못함에 따라 이들이 가지고 있는 전통적 목축기술에 대한 전통지식(傳統知識) 역시 제대로 조사·연구되지 못한 채 세대 간 목축문화 전승이 중단되고 있는 상황에서 과거 전통방식에 근거해 목축에 참여했던 목축민들의 목축 생활사(牧畜生活史)를 정리할 필요 있음.
- 근래에 들어 1930년대에 설치된 마을공동목장이 매각되면서 일부 마을에서는 목장토지 매각대금 배분을 둘러싼 법적 분쟁이 일어나는

사례가 있으며, 또한 공동목장 토지가 관광숙박시설이나 골프장, 농경지로 전용되면서 초지생태계 변화와 지하수 오염이라는 환경문제도 발생하고 있음. 특히 마을공동목장의 매각은 곧바로 마을 단위 목축활동의 종언과 함께 목축문화의 소멸을 가속화시키고 있어 더 늦기 전에 마을공동목장을 배경으로 등장했던 목축문화에 대한 연구가 요청됨.

2. 연구목적과 연구방법

- 제주도의 목축문화는 한라산지(중산간, 산간지대)의 자연환경과 고려시대부터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목장역사의 산물로, 목축문화가 소멸되고 있는 현실을 인식해 이 연구에서는 제주도 목축문화의 실태와 보전 및 정책적 활용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 제2장 목축문화의 역사적 조명부분은 『조선왕조실록』과 『승정원일기』, 『비변사등록』, 『제주계록』, 『탐라지』, 『제주읍지』와 『탐라순력도』(1703), 「탐라지도」(1709), 「제주삼읍도총지도」(1730년대) 등을 활용해 제주마, 공마와 점마, 목자들의 이야기들을 통해 조선시대 제주사에서 차지하는 제주 목장사의 변천과정을 제시했음.
- 제3장 제주도 목축문화의 원형과 실태조사 부분을 수행하기 위해 현장면담조사와 마을별 『향토지』 조사를 병행했음.
 - 현장조사는 조선시대 십소장, 산마장 그리고 현재의 마을공동목장의 위치와 자연환경, 초지 상태 등을 확인하기 위해 실시한 목장답사와 13개 사례마을 목축민들과의 현장 면담조사로 나누어 실시했음.
 - 『향토지』에 기록된 마을별 목축문화의 실태도 파악했음.
- 제4장 제주도 목축문화의 보존방안과 제5장 제주도 목축문화의 활용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문화의 산업화 방안과 제주도의 축산정책 등에 대한 자료들을 검토했음.
 - 제주발전연구원에서 발간한 『제주 근대 역사문화시설의 문화자원화 방

안』(2013), 『제주문화의 콘텐츠산업화 방안』(2013), 『제주지역의 해양관광 활성화방안』(2012) 등의 연구보고서를 참조했으며, 아울러 제주특별자치도의 마을 발전정책, 축정과의 마을공동목장과 축산업 활성화 정책을 참고해 목축문화의 활용방안을 제시했음.

3. 선행연구 및 연구의 기대효과

1) 선행연구 사례

- 이즈미 세이이치(泉靖一, 1966) : 제주지역의 방목형태를 종년방목, 계절적 방목, 전사(全飼)로 구분해¹⁾ 종년방목이 가장 일반적인 방목형태라고 주장했다.
- 고광민(1996) : 테우리들이 백중날(음력 7월 15일) 마을공동목장이나 ‘바령밭’, 목장 내에 위치한 오름의 정상부에서 지냈던 ‘테우리코시’²⁾ 애월읍 소길마을의 ‘꽃치기’와 ‘번치기’목축법³⁾, 100여회에 걸친 『제주도민일보』 연재에서 ‘방앗불’놓기, ‘바령췌’, ‘꽃췌’, ‘번췌’등의 제주형 목축문화를 소개했음.
- 좌동렬(2010) : 목축의례인 ‘낙인코시’, ‘귀표코시’, ‘땃불리는 코시’, 백중의례의 의미와 절차를 제시했음.⁴⁾
- 남도영(1996, 2003) : 『한국마정사』(1996)와 『제주도목장사』(2003)을 통해 제주도 목장의 역사적 변천과정을 제도사 중심으로 접근하여 제주 지역 목장사 연구에 초석을 제공했음.

1) 천정일(1966), 『제주도』, 동경대학출판회, pp. 94~101. 여기서 종년방목이란 연중 방목을 의미하며, 계절적 방목은 봄부터 가을(4월~10월)까지는 마을 공동목장에서 방목한 다음, 겨울이 되면 집으로 우마를 데려오는 목축형태이며, 전사(全飼)란 집에서 연중 사육하는 형태를 말한다.

2) 고광민(1996), 「목축기술」, 『제주의 전통문화』, 제주도교육청, pp. 318~319.

3) 고광민(1998), 「제주도 우마치기의 기술과 문화」, 『제주도』(102), 제주도 ; 고광민(2004), 『제주도의 생산기술과 민속』, 대원사 : ‘꽃치기’란 산림(꽃자왈) 속에서 우마를 놓아그르는 방목형태이며, ‘번치기’란 주민들이 순번을 정해 우마를 돌보는 형태를 의미한다.

4) 좌동렬(2010), 「전근대 제주지역 목축의례의 역사민속학적 연구」, 제주대 사학과 석사논문.

- 김일우(2005, 2007) : 고려시대 탐라의 우마사육과 말[馬]의 고장 제주와 김만일 관련 역사자료의 활용방안을 제시했음.⁵⁾
- 장덕지(2009) : 『제주마이야기』(2009) 등에서 제주마의 특성과 질병치료 및 마문화를 상세히 기술했음.
- 농촌진흥청(2012, 2014) : 『사진으로 보는 제주 목축문화』(2012)와 『제주말문화』(2014)를 발간해 목축문화 지평 확대에 중요한 연구 자료를 제공했음.
- 강만익(2001, 2013) : 제주도 10소장 목마장의 경계선을 지역사회에 처음으로 제시했으며,⁶⁾ 특히 갯성(塙垣)의 분포실태를 제시해 갯성의 역사문화적 중요성을 부각시켰고,⁷⁾ 나아가 『조선왕조실록』에 등장하는 목축문화의 역사적 기원에 주목했을 뿐만아니라,⁸⁾ 한라산 고산 초원지대의 ‘상산방목’(上山放牧)의 실체,⁹⁾ 한라산지 목축경관의 실태와 활용방안을 제시했음.¹⁰⁾

2) 연구의 기대효과

- 제주도가 2014년 말산업특구로 지정되어 전통적 목축문화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에서 이 연구는 목축문화를 제주도의 역사·문화·관광 상품으로 개발하는 방안과 21세기 문화산업이 요구하는 다양한 목축 문화콘텐츠 개발을 위한 원천자료 제공 및 다양한 목축문화 활용방안을 제안했음.

5) 김일우(2005), 「고려시대 耽羅 지역의 牛馬飼育」, 『史學研究』 No.78, 한국사학회.

김일우(2007), 「“말[馬]의 고장” 제주와 김만일(金萬鎰) 관련 역사자료 활용화의 첫 방안」, 『한국사진지리학회지』 Vol.17, 한국사진지리학회.

6) 강만익(2001), 「조선시대 제주도 관설목장의 경관연구」, 제주대 교육대학원(지리교육전공) 석사논문.

7) 강만익(2009), 「조선시대 제주도 갯성(塙垣) 연구」, 『탐라문화』(35), 제주대 탐라문화연구소.

8) 강만익(2013), 『일제시기 목장조합연구』(경인학술총서 105), 경인문화사, pp.271-291.

9) 강만익(2013), 「근현대 한라산 상산방목의 목축민속과 소멸」, 『탐라문화』(43), 제주대 탐라문화연구소.

10) 강만익, 「한라산지 목축경관의 실태와 활용방안」, 『한국사진지리학회』 제24권 제3호, 한국사진지리학회, 2013.

II. 제주도 목축문화의 역사적 조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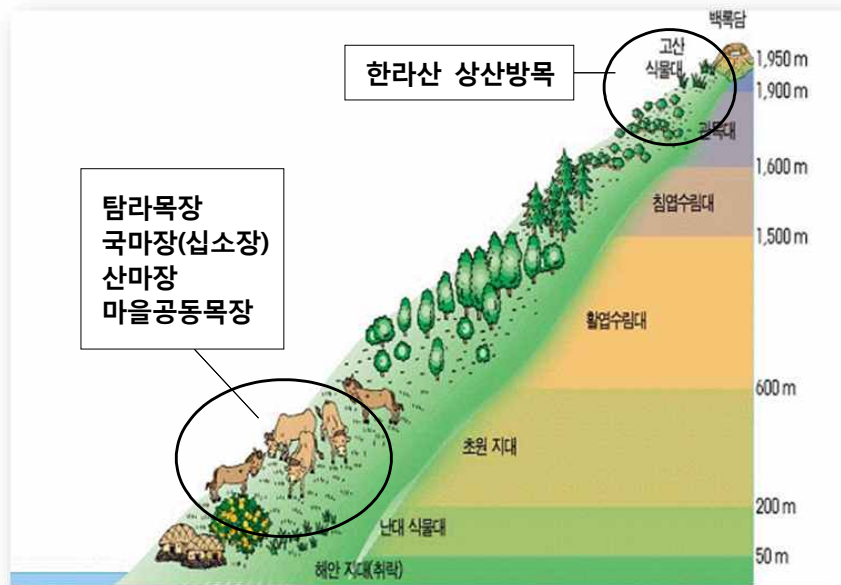
- 목장은 목축문화를 잉태한 장소로, 조선시대 전국의 목장과 제주지역 목장이 어떻게 변모했는지를 고찰하는 즉, 목장에 대한 역사적 조명은 바로 목축문화의 형성과 변화과정을 밝히는 과제와 맥락이 닿아있음.

1. 제주도 목장의 변천과정

1) 목장지대의 자연환경

- 제주지역의 목장지대는 한라산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이곳은 산록부(200m-600m: 중산간 지대)와 산정부(600m 이상 산악지대)로 이루어져 목축문화를 형성하는 자연적 토대에 해당함.
 - 산록지대는 완경사지와 초지대가 발달해 목축지로 이용되었음.
 - 한라산 산정부 백록담 남동사면에도 초지와 완경사면이 존재해 1980년대 까지만해도 우마방목이 행해졌음(상산방목).
 - 산록부에는 2차 초지대·오름(측화산)·하천·삼림지·곶자왈·화산회토·용암평원(대지)이 발달하고 있으며, 무엇보다 연중 방목하는 제주마를 위협하는 호랑이가 없었음.
 - 산록부는 해발고도가 높아 서늘한 기온특성으로 인해 우마에 기생하는 진드기의 번식을 막을 수 있는 방목지였음.
- 한라산 산록부 초지대는 자연초지이거나 목축을 위해 이루어진 지속적인 방화(방앳불 놓기)와 화전경작의 산물이며, 이곳의 연작상경(連作常耕)이 불가능한 척박한 토지는 결국 제주도민들에게 농경대신에 목축을 선택하게 했음.

- <그림 II -1>에서처럼, 한라산지의 방목지대는 산록부에 해당하는 중산간의 국마장과 마을공동목장 지대 그리고 산정부의 상산방목지대로 구분할 수 있으며, 특히 제주의 중산간 초지대는 전국에서 가장 양질의 자연초지가 분포해 목축활동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했음.



〈그림 II -1〉 제주도의 한라산지 목축지대

2) 목장지대의 주인공, 제주마와 제주흑우

(1) 제주마

- 제주마는 역사기록에 탐라마(耽羅馬), 제마(濟馬), 토마(土馬) 등으로 다양하게 등장했으며, 제주마의 상징적인 이름인 ‘조랑말(pony)’은 유전자 검사결과, 몽골마와 유사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판명되어, 고려말 몽골에서 제주도로 목호들과 함께 들어온 말로 알려지고 있으며, 조랑말이라는 용어는 상하 진동없이 매끄럽게 달리는 ‘조로모로’ 주법을 행하는 말에서 유래되었다고 함(박원길, 2005).

○ 조선시대 제주마는 ‘탐류’(耽流)의 선봉장

- 제주마는 경기 강화도 목장(길상산장, 진강목장)과 남양 대부도 목장, 전라도의 진도목장과 해남목장을 비롯해 충청남도의 안면도, 태안, 황해도의 용매도, 평안도 선전의 신미도(身彌島), 경상남도의 거제도 목장, 심지어 함경도까지 공급되어 ‘탐류’(耽流)의 선봉장 역할을 했음.

○ 제주마는 모색(毛色)에 따라¹¹⁾ 유마(갈색), 가라(검은색: 그림 II-2), 적다(밤색: 그림 II-3), 총마(회색), 월라(얼룩이), 고라(암황갈색), 부루(점박이), 공골마(담황백색), 설아마(백색) 등으로 구분되며, 이 가운데 ‘가라, 부루, 적다’는 몽골어에서 유래되었다고 함.¹²⁾



〈그림 II-2〉 가라마
(『제주도목장사』(남도영, 2003))



〈그림 II-3〉 적다마
(『제주도목장사』(남도영, 2003))

○ 제주마는 식용, 어승마, 운반(만마), 국방(군마), 교통(역마), 통신(파발마), 외교(진헌마, 교역마), 농경(농마), 제분(製粉: 白馬), 종마 등에 유용했으며, 말갈기(갓, 관), 말가죽(靴: 가죽신), 말꼬리(줄, 악기줄), 말 털(옷, 모자), 말 힘줄(造弓), 말 기름(한약재), 말똥(연료, 비료) 등은 군수 및 일용품으로 이용되었음(남도영, 2003).

11) 전통사회에서 제주지역 테우리(목자)들은 제주마에 대해 모색을 중심으로 그 출현빈도를 다음과 같이 순위화 하여 구분했다: 1 가라(加羅馬)·2 청총(靑驄)·3 적다(赤多)·4 월라(月羅)·5 유마(驪馬)·6 백물(총물)·7 고라(古羅)·8 부루물·9 거홀(巨割)·10 자홀(者割) (제주도문화예술과(2002), 『제주도제주마』, p.39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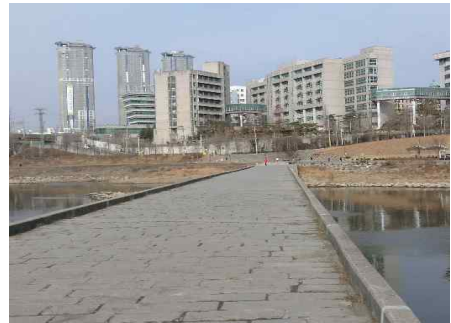
12) 강영봉(1992), 「제주도방언의 몽고어 차용어들(I)」, 『제주도언어민속논총』, 현용준박사 화갑기념논총간행위원회, 제주문화, pp.25-31.

- 조선시대 제주도는 명마의 산지로 부각되어, 영조는 제주도를 ‘국마의 부고(府庫)’로, 오명항(吳命恒)은 “우리나라 말은 전적으로 제주도에 의존하고 있다”, 이인엽(李寅燁)은 “제주는 우리나라의 익북(翼北 : 중국 말 명산지)이다”고 하여 제주지역을 명마생산의 중심지로 인식했으며, 제주에서 생산되는 ‘용종’(龍種)은 품질이 우수해 어승마, 체임마, 군마로 공급되었음(남도영, 2003).
- 제주도의 국마장은 군마(軍馬)의 주요 공급지였으며, 군마들은 국내뿐 아니라 원, 명에도 공급되었음. 조선후기 제주의 군마들은 일차적으로 각 군영에 배정되고, 나머지는 사복시가 운영했던 한양의 전곶목장(前串牧場 : 살곶이 목장, 현재 한양대학교부지, 그림 II-4·5)으로 보내 조련시킨 후, 다시 전국 군영에 배정되었음.



〈그림 II-4〉 진헌마정색도의 살곶이 목장

(조선시대 제주마들이 일시적으로 이곳에서 길러진 목장으로, 하천변에는 버드나무를 심어 바람을 막도록 했음. 현재 한양대학교 부지가 살곶이 목장에 해당함)



〈그림 II-5〉 현재도 남아있는 살곶이 다리

(하천은 중랑천이며, 살곶이 목장으로 들어가는 살곶이 다리가 현재도 남아있음. 현지촬영)

- 조선을 건국한 태조 이성계는 제주에서 태어나 육지부(함경도)에서 길러진 제주마인 ‘응상백’(凝霜白)¹³⁾을 타고 고려말 우왕 14년(1388) 위화도에서 회군을 했다고 하며, 고려 말에도 제주마는 전국에 명마로 널리 인식되고 있었음.

13) 팔준도는 세종의 지시로 안견이 처음 그렸으나, 전란으로 인해 팔준도가 소실되자 윤두서가 민간에 남아있었던 모사본을 토대로 팔준도를 다시 그렸다고 한다.



〈그림 II-6〉 팔준마의 하나인 응상백

○ 〈그림 II-6〉의 우측 상단에는 그림제목인 ‘凝霜白’과 ‘純白色 烏觜烏眼烏腎烏蹄產於濟州回軍時御’라는 기록이 있음.

- 응상백(凝霜白)이란 서리가 어린 것 같은 흰색의 말이라는 의미임. 수컷의 백마로, 외모는 현재의 몽골말과 흡사하나, 비례상 다리는 짧고 배가 나온 편이며, 귀는 작게 그려져 있어 조랑말과는 다소 차이가 있음(남도영, 2003).

○ 성삼문의 응상백 예찬(‘八駿圖銘’)

凝霜白

凝霜白匪稱力	응상백이여, 힘으로만 칭할 것 아니네
大有顛剛且淑	크고 온화하고 강하며 또한 슬기롭네
鴨水湯湯岸千尺	압록강 물 넘실넘실 기슭은 천척인데
白羽晰晰彤弓赫	흰 화살 번쩍번쩍 붉은 활과 함께 빛이 나네
照夜光景輝相燭	밤에 비추는 광경이 휘황찬 밝으니
央央義旆隨踠足	줄지은 깃발이 발굽을 따라가네
一回三韓骨而肉	단번에 삼한을 고통에서 구제하니
凝霜白而無斃	응상백이여 네가 고맙다

(출전 : 『동문선』 제50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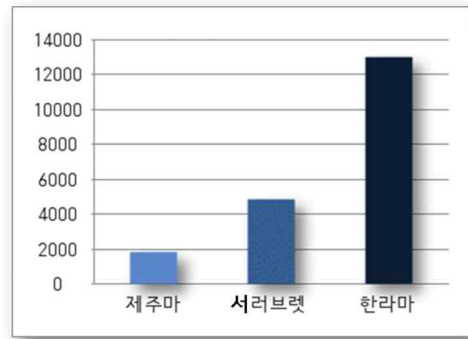
○ 제주마는 제주도 목장사와 목축문화사의 상징인 동시에 제주도민의 농경과 목축생활사를 대변했었던 가축이었으며, 조선시대 제주 지역 유통경제의 한 축을 담당했음. 동시에 조선의 국방과 교통, 농업

생산에 크게 기여했을 뿐만 아니라 목축문화를 탄생시킨 주역이며, 제1호 말산업 특구의 주인공으로 평가됨.

- 현재 제주지역에는 순수혈통인 제주마(조랑말)와 교잡마인 한라마(그림 II-7), 경주마인 서러브렛이 있으며, 2013년 12월 말의 사육현황은 <그림 II-8>과 같음.



〈그림 II-7〉 사육두수가 많은 한라마
(한라마생산자협회 홈페이지)



〈그림 II-8〉 제주지역 말 사육현황

(2) 제주흑우

- ‘검은쇠’로 잘 알려진 제주흑우는 조선시대 조정에 제사용으로 진상되어 이용되면서 가치를 인정받았으며, 조선후기에 제주목사는 흑우를 안정적으로 생산, 관리하기 위해 대정현 내의 모동장(毛洞場)과 가파도별 둔장, 정의현내 천미장(川尾場) 그리고 제주목 1소장 내에 황태장(黃泰場) 등을 운영했음.
- 제주지역에서 생산된 흑우는 전생서(典牲署)¹⁴로 보내져 국가의례나 제사에 희생용으로 이용되었으며, 제주의 흑우에 대해서는 『비변사등록』, 『임하필기』(제14권), 『승정원일기』 등에 기록되고 있음.

14) 전생서란 조선시대 때 궁중의 제사(祭祀)에 쓸 양·돼지·소 따위를 기르는 일을 맡아 보던 관청(官廳)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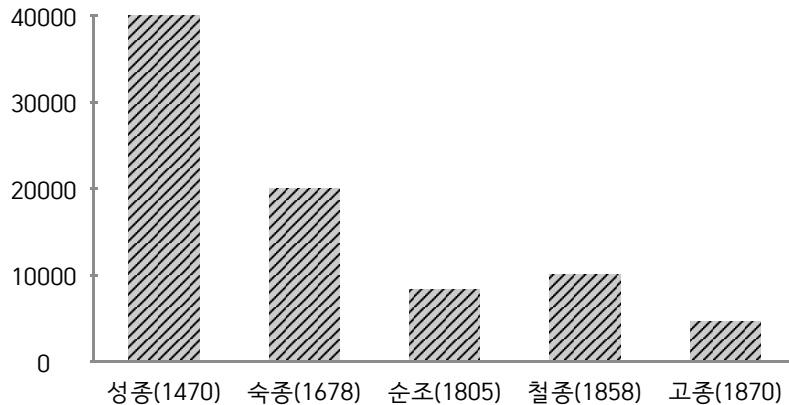
3) 제주도 목장의 변천과정

(1) 조선시대 목장실태

- 조정에서는 고려시대 목장을 재건하는 한편, 서남해안의 수초(水草)가 좋은 곳에 새로이 목장을 설치하는 목축정책을 전개했으며 조선 초에는 「대명률」(大明律)에 근거해 목장을 운영하다가 조선 식 마정조직을 규정한 『經國大典』(1485)에 근거해 목마장을 운영했음.
- 조선시대 목장의 수는 『세종실록지리지』(1454)에 58개, 『동국여지승람』(1481)에 92개, 『반계수록』(1670)에 123개, 『목장지도』(1678)에 138개, 『대동여지도』(1861)에 114개, 『증보문헌비고』(1903-1908)에 114개로, 조선전기의 목장은 100개 이내였으나, 조선후기에는 100개 이상으로 증가하면서 동시에 폐목장(廢牧場)들도 생겨났음.
- 조선시대 제주도의 목장은 전국 목장 마필수의 60% 이상을 보유했음. 성종대(1470)에 기록된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 마필 수는 13,598필이었으나,¹⁵⁾ 당시 제주도의 마필 수는 26,000여필(추정치임)이었고,¹⁶⁾ 숙종 4년(1678) 총 전국 마필 수 20,083필 중 제주도의 마필 수가 12,128필로 전체의 60%를 차지해 조선시대 제주도 목장은 마필공급의 핵심지였음을 알 수 있음(남도영, 2003).
- 조선시대 전국의 목장에서 관리했던 마필수는 성종대(1470) 약 40,000필, 숙종대(1678) 20,083필, 순조대(1805) 8,377필(『증보문헌고』 권125), 철종대(1858)에 10,137필(『日省錄』 권156), 고종대(1870) 4,646필(『고종실록』 권7)이었으며(그림 II-9), 임진왜란 이후 마필수가 크게 감소했음.

15) 『성종실록』 권2, 성종 원년(1470) 정월 계미.

16) 이 수치는 중종 17년(1522)에 특진관(特進官) 고흥산(高荊山)이 성종 때의 총 마필수를 4만여 필로 보고 있는 기록에 근거해 산출한 것이다(40,000-13,598=26,402필, 『중종실록』 권44, 중종 17년(1522) 2월 정해).



〈그림 II -9〉 조선시대 전국 마필수의 변동

(2) 제주목장의 기원, 고려말 탐라목장

- 원은 고려 원종 14년(1273)에 한반도 연안섬 지역에 전마 등을 충당하기 위해 목장을 설치했으며, 충렬왕 2년(1276)에는 탐라를 방성(房星, 말 신의 별자리) 분야로 여겨 탐라목장을 설치한 후, 단사관(자르구치) 또는 만호(萬戶)를 파견하여 탐라목장 운영을 주관하게 했음(『신증동국여지승람』, 권38).
- 원은 세조인 쿠빌라이는 1276년 8월 25일 탐자적을 탐라 다루가치로 임명한 다음, 현재의 성산읍 수산리 수산평(首山坪)에 말 160필, 소, 양, 낙타, 나귀 등 5축과 목축전문가인 목호(牧胡, 하라치)들을 탐라목장에 파견했음.
- 원(元)은 충렬왕 2년 동부지역의 초원인 성산읍 수산평(首山坪)에 동아막을 먼저 설치하고,¹⁷⁾ 이듬해인 충렬왕 3년(1277)에는 서부지역인 한경면 고산리 평원(추정지임)에 서아막을 설치했음(그림 II-10).¹⁸⁾

17) 『高麗史節要』 권19, 충렬왕 2년(1276) 8월조 : “元遣塔刺 赤爲耽羅達魯花赤以馬百六十四來牧.”

18) 李元鎮, 『耽羅誌』(1653), 建置沿革條 : “三年丁丑元立東西阿幕放牛馬.”



〈그림 II -10〉 고려말의 탐라목장인 동아막과 서아막의 위치
(제주특별자치도, 2010, 『탐라사 I』, p.286)

- 원이 멸망한 후 명의 탐라말 2000필을 요구하자 참여했던 원나라 출신 석질리필사, 초고독불화, 관음보 등 목호들은 “원세조가 양축한 마필을 어찌 명에 헌납할 수 있느냐”고 항의하면서 반란을 일으키자 공민왕은 탐라에서 원의 세력과 잔재를 완전히 근절키 위해 1374년 7월 25일 칙서를 내리고 문하찬성사 최영장군을 양광·전라·경상 삼도의 도통사로 삼아 탐라의 목호반란 세력을 정벌하라고 명령함.¹⁹⁾
- 원이 설치했던 탐라목장에 대해 조선중기 제주안무어사로 왔던 청음 김상헌²⁰⁾은 ‘水山廢城’ (1601)이라는 漢詩를 남겼으며,²¹⁾ 여기에 등장하는 수산진성과 탐라목장이 설치되었던 수산평 목장의 현재 모습은 그림과 같음(그림 II-11·12).

19) 목호의 난에 대해서는 김일우의 『고려시대 탐라사 연구』(2000, 신서원)와 『고려시대 제주사회의 변화』(2005, 서귀포문화원)에 제시되어 있다.

20) 김상헌은 제주에서 1601년(선조 34) 9월 역적 길운절(吉雲節)과 소덕유(蘇德裕) 등이 모반을 일으키자 흐트러진 민심을 수습하기 위해 제주어사로 파견된 인물이었다.

21) 김상헌 저, 김희동 역(1992), 『南槎錄』(1601), 영가문화사, p.162.

水山廢城

寒雲衰草掩荒城	찬 구름에 시든 풀이 荒城을 덮었는데
云是胡元放馬垆	이곳이 원오랑캐 放馬하던 들이라네.
舊致牧奴多跋扈	옛적에 목노들이 세차게 날뛰어서
屢勤都統遠興兵	부지런히 도총이 멀리서 원정했네
通精驚血秋螢碧	통정의 거친 피에 반딧불이 푸르고
肖古妖魂鬼火青	초고의 요사한 넋 혼화(도깨비불)가 파랗더니
聖化只今覃內外	지금은 임금님 덕이 내외에 펼쳐져서
海邦耕鑿樂遺氓	해방이 경반하여 즐겁게 살아가네

(도총: 최영장군, 통정 : 김통정, 초고 : 목호의 난 수장이름, 해방 : 섬나라인 제주도), 경반: 밭을 갈고 샘을 파서 근심 없이 사는 모습)



〈그림 II -11〉 수산진성 모습



〈그림 II -12〉 수산평 탐라목장터 모습

(3) 조선시대 십소장

○ 세종 11년(1429) 고득중(高得宗), 목장설치 건의

- 고득중이 세종임금에게 한라산에 돌담을 새롭게 쌓아 목장을 설치하자고 건의함에 따라 임금이 ‘제주한라산목장’을 증개축하라고 윤허한 결과, 1430년경부터 본격적으로 주민들을 동원해 목장경계용 돌담(жат성)을 쌓고, 국마장 예정지 내에 있었던 344호의 주민들을 국마장 예정지 밖으로 옮기면서 국영목장을 설치하기 시작했음.
- 15세기 초부터 제주도 중산간 지대는 사실상 조선정부가 운영하는

국마장 지대로 변모했으며, 조정에서는 이곳에 국가소유의 공마(公馬) 뿐만 아니라 개인소유의 사마(私馬)도 목축공간을 달리하며 방목할 수 있도록 허용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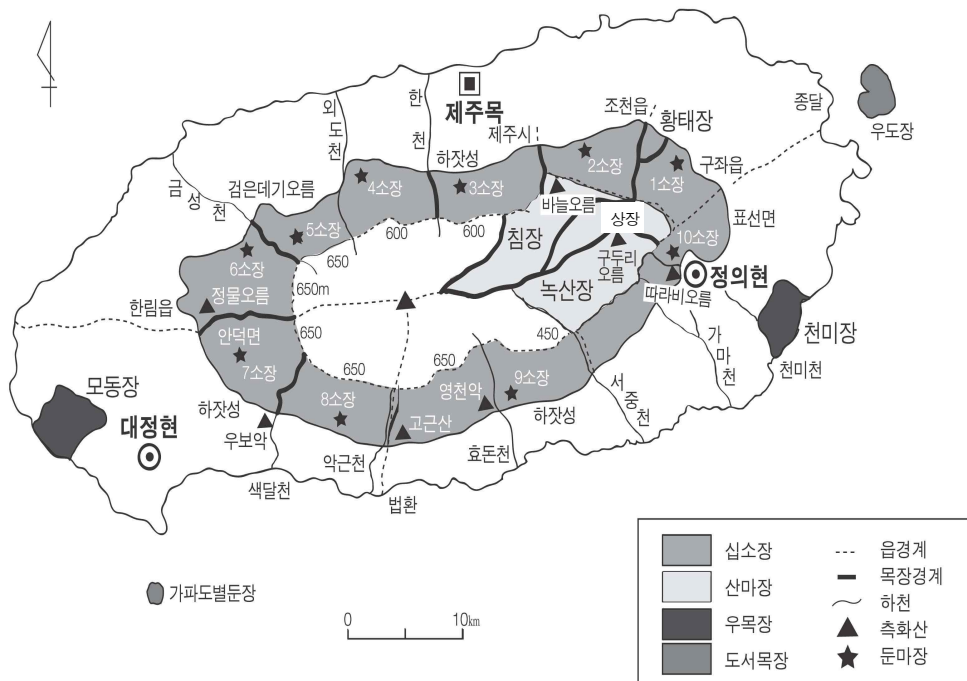
- 조선전기 제주도 중산간에 있었던 10소장은 성종 24년(1493) 고태필(高台弼)에 의해서 그 존재가 확인되며,²²⁾ 해발 200m~400m 범위에 설치되었던 중산간 지대 10개의 큰 목장으로, 하나의 소장(所場) 안에는 몇 개의 자목장(字牧場)들이 있었음.
- 자목장은 둔마(屯馬)를 천자문의 글자로 낙인한 후 편성하여 만든 소규모 목장으로, 1개의 자목장은 암말 100필과 숫말 11필로 구성되었으며, 군두 1명과 군부 2명, 목자 4명이 자목장을 관리하였음.
- <표 II-1>은 조선후기 십소장의 소재지와 목장 둘레, <그림 II-13>은 십소장, 산마장, 우도장 등 목장의 분포상황을 보여주고 있음.

<표 II-1> 조선후기 십소장의 위치와 규모

읍별	목장	위 치*	『제주읍지』 (1780-1789)
제주목	1소장	구좌읍 송당리(체오름 ~ 민오름 일대)	55리
	2소장	조천읍 선흘리 ~ 와흘리 중산간	50리
	3소장	제주시 회천동 ~ 오등동 중산간	50리
	4소장	제주시 오라동 ~ 해안동 중산간	45리
	5소장	애월읍 광령리 ~ 유수암리 중산간	60리
	6소장	애월읍 어음리 ~ 한림읍 금악리 중산간	60리
대정현	7소장	안덕면 동광리 ~ 서귀포시 색달동 중산간	40리
	8소장	서귀포시 대포동 ~ 영남동 중산간	35리
정의현	9소장	서귀포시 호근동 ~ 남원읍 한남리 중산간	70리
	10소장	표선면 성읍리(새끼오름 ~ 백약이오름)	40리

*강만익(2001), 「조선시대 제주도 관설목장의 경관연구」, 제주대 석사논문, pp.35-53에 근거해 정리함.

22) 『성종실록』 권281, 성종 24년(1493) 8월 5일(정묘) : “山腰以下周回設十牧場 一場周回一息半或二息”(산중턱 이하의 주위에 열군데 목장을 설치하였는데, 한 목장의 주위가 1식(息) 반, 혹은 2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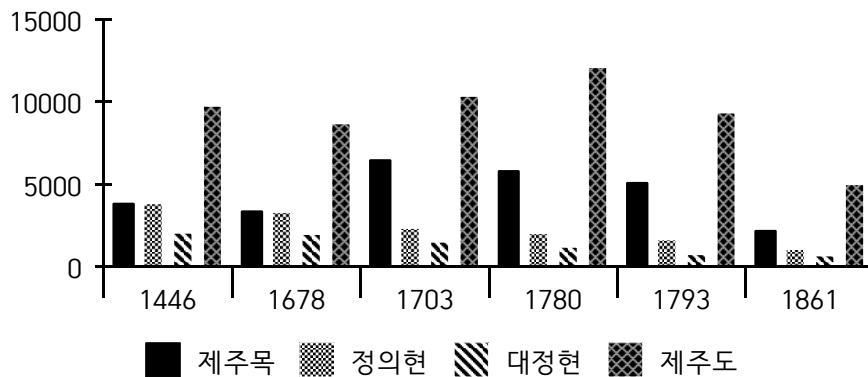
〈그림 II -13〉 조선후기 제주도 목장의 분포

(강만익(2001), 「조선후기 제주도 관설목장의 경관연구」, p.62 지도를 재작성)

- 조선후기에 일부 십소장은 소장의 범위가 최저 35리(8소)에서 최고 70리(9소)에 이르러 관리가 불편해 하나의 소장을 동장(東場)과 서장(西場)으로 구분해 운영되었음.
- 숙종대 정의현감을 지낸 김성구의 『남천록』과 제주목사를 역임한 이익태의 『지영록』, 정조 4년(1780) 경의 『제주읍지』에 1개 소장을 동장과 서장으로 구분한 내용이 등장함.
- 각 소장에는 마감 2명(동·서장 각 1명)과 반직감 2명이 배정되어 목축을 담당했음.
- 조선후기 제주목장은 제주목사가 마정을 총괄하되 그 밑에 감목관-마감-반직감-군두-군부-목자를 배치해 운영되었으며, <표 II -2>는 마정 조직의 기능, <그림 II -14>는 조선시대 제주지역 목장에서 생산된 마필수의 변동을 나타내고 있으며, 대체로 5,000필~12,000필 정도가 생산되었음을 보여줌.

<표 II -2> 조선후기 제주 국마장 마정조직의 기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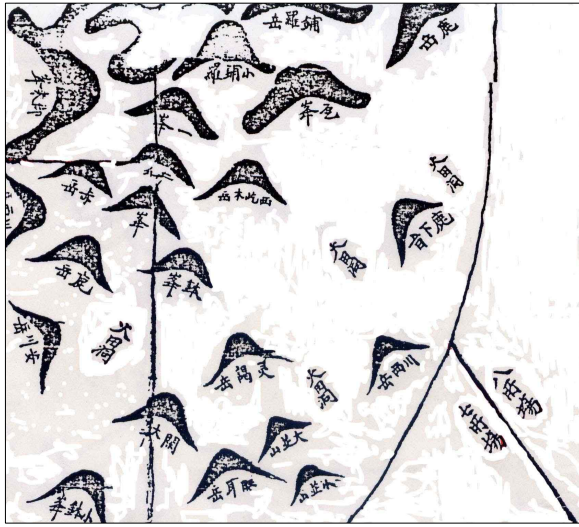
관리	마정조직	주요 기능
중앙	병조/사복시	전국 목장관리, 감독
	전라도관찰사	제주도 삼읍목장 관리, 감독
제주도	제주목사	3읍 목자적, 우마적 관리, 마필출륙허가, 공마관리
	감목관 (산마감목관)	제주관관, 대정현감, 정의현감이 감목관 겸직 경주김씨 가문에서 산마감목관 배출
십소장 산마장	마감	소장의 관리 책임자, 군두·군부·목자 감독 소장의 낙자인 관리, 군두 중 실적 우수자
	군두	군[자목장]의 관리 책임 1인당 군부2명, 목자4명 실적 평가후 보고
	군부	1인당 목자2명으로 50필 책임관리 3회 이상 상등이면 군두로 승격, 목자 실적평가
	목자	목장의 최하층, 제주마 생산, 관리 담당



<그림 II -14> 조선시대 제주도 목마장의 마필 수 변동

(『세종실록지리지』(1446), <목장지도>(1678), 『탐라장계초』(1703), 『제주읍지』(1780-1789), 『제주대정정의읍지』(1793), 『탐라고사』(1861)를 토대로 작성)

- 이상과 같은 제주지역 국마장들은 갑오개혁(1894~1896)으로 국마장을 유지시켰던 감목관제, 공마제도, 점마제도가 폐지되고, 공마를 금전납(金錢納)으로 대체하면서(1897) 제주지역 국마장들은 기능이 약화되어 갔음.



〈그림 II-15〉 『제주지도』(1899)에 나타난 화전동
(서귀포시 중문동 녹하지악 부근)

- 국마장에서 농민들에 의한 경작이 진행되고 또한 국마장 이상 지역에도 농경지 개척이 이루어진 결과 화전동(火田洞)들이 등장했음(그림 II-15).
- 화전세를 걷기 위해 지도에 화전동을 표시한 것으로 보임.

(4) 조선후기 산마장

① ‘현마공신’ 김만일(金萬鎰 : 1550~1632)

○ 김만일, 광해군 12년(1620)에 말 5백여 필 헌마

- 김만일은 본디 제주의 부유한 백성으로, 말을 길러 만 필이나 되었으며, 이때(1620) 말 5백여 필을 바침에 따라 광해군은 김만일에게 부총관(副總管 : 총관은 곧 2품의 시위직), 큰 아들 대명(大鳴)에게는 수령, 둘째 아들 대성(大聲)은 당상에 오르게 하고, 그의 손자 려(礪)는 본도의 변장을 제수했음.²³⁾

○ 인조 6년(1628년) 비변사는 240필을 바친 김만일 논상

- 비변사에서 240필의 말을 바친 제주의 김만일을 논상할 것을 아뢰면서 제주에 거주하는 전 지사 김만일이 갑자년(1624) 이후로 바친 말이 2백 40필이나 되는데 조정에서는 아직까지 시상을 하지 않았다 하니 별도로 논상할 필요가 있음을 인조에게 건의했음.²⁴⁾

23) 『광해군일기』 권155, 광해군 12년(1620) 8월 15일(경신).



〈그림 II -16〉 「제주삼읍도총지도」(1730년대)에 나타난 산마장
(제주민속자연사박물관 소장자료)

② 산마장의 등장과 산마감목관

- 10소장 경계선(상앗성) 위의 산간지역에 있었던 산장(山場) 또는 산마장(山馬場)은 산마(山馬)를 목양하는 목장으로, 1709년에 제작된 「탐라지도병서」와 18세기 전반의 「제주삼읍도총지도」에서 확인됨.
- 「제주삼읍도총지도」에는 산마장이 총 9개가 등장하는 데, 정의현 9소장 위에 1개, 10소장 위 1개, 9소장과 10 소장 위에 5개, 제주목 1소장 위에 1개, 2소장 위에 2개가 나타나며(그림 II -16), 김만일의 사목장이 있었던 장소에 5개의 산마장이 배치되고 있음.

24) 『인조실록』 권19, 인조 6년(1628) 8월 11일(기해).

- 산마장은 1소장과 2소장, 9소장 바로 위 수초(水草)를 얻을 수 있는 장소에 효종 9년(1658) 제주목사 이회(李禧)의 계청에 따라 등장한 목장으로 영조연간에는 침장, 녹산장, 상장으로 통합됨.
- 제주목 지역에 위치했던 침장(그림 II-17)은 조천읍 교래리 바농 오름(針岳) 그리고 산굼부리와 성불오름 일대는 상장(上場)(그림 II-18), 정의현 지역에 위치했던 표선면 가시리 따라비오름과 큰 사스미 오름 그리고 남원읍 물영아리오름 일대는 녹산장(鹿山場)(그림 II-19)이 입지했음.



〈그림 II-17〉 침장터



〈그림 II-18〉 상장터



〈그림 II-19〉 녹산장터



〈그림 II-20〉 갑마장터

- 산마장 중 녹산장 내에 별도로 설치된 갑마장(甲馬場)은 현재 표선면 가시리 따라비오름과 대록산을 연결하는 가시리 공동목장에 해당되며(그림 II-20), 산마장에서 생산된 최고품질의 상등마를 어승마 진상 등 공마에 대비해 집중적으로 관리되었던 목장이었음.
- 산마감목관제 운영
 - 제주의 산마장에서 기르는 산마들은 연중 산지에서 방목되어 튼튼하고 야성을 지녔기 때문에 전마에 적합하다고 판단하여 조정에서는 산마장에서 길러지는 말들을 특별관리하기 위해 종2품인 현감과 동격인 산마감목관제를 특설했.
- 산마감목관은 대체로 6년마다 경주김씨 김만일 가문(“감목관 집안”)에서 선정된 후보자를 제주목사가 사복시로 천거하여 임명했던 산마장 최고 책임자였음.
 - 218년간 제1대 산마감목관 김대길부터 83대 마지막 김경흡까지 83명이 임명되었음.
 - <그림 II-21>은 현종 5년(1664) 5월 11일에 김대길을 가선대부(종2품) 산마감목관으로 임명하는 교지로, 제주목사 李重信이 4년 동안 김대길이 번식시킨 말이 344필이라며 초대 산마감목관으로 추천하는 장계를 올리자 정부가 임명장을 발급한 문서임.



〈그림 II-21〉 초대 산마감목관
김대길의 교지

(제주문화예술훈재단(2007), 『제주마학술조사보고서』, p.60.
敎旨 金大吉爲嘉善大夫 濟州山馬監牧官者 判下
因濟州牧使狀啓 通四年藝息馬三百四十四
差帖成給 康熙三年五月十一日)



〈그림 II-22〉 산마감목관
김상결의 묘

- 표선면 가시리 따라비오름 하단부에는 1800년대 초 산마감목관 김상걸의 묘가 위치하고 있음(그림 II-22).

○ 산마장에서는 봉진마(封進馬)와 식년마(式年馬)를 공급했음.

- 봉진마는 2년에 1회 2필씩을 사복시에 바쳤으며, 품질이 우수해 어승마로 이용되기도 했음.
- 식년마는 3년에 1회 200필을 산마감목관제가 운영되었던 210년 동안 약 14,000필($210년 \div 3년 = 70회 \times 200필$) 정도를 사복시에 바치면 훈련도감 군병이나 병영 및 각 지방의 목장 등에 분정(分定)되었음.

(5) 대한제국기 제주목장

○ 「신호우신일보」(1906.6.14.)

조정에서는 10년 전부터(1896) 공마대신 5천냥, 장세 7천량, 낙마세 150냥을 과할뿐 제주목사는 징세를 맡아보는 일만하고 목축의 성쇠에는 관심이 없다. 제주도의 목축업은 현재 쇠미한 상태이고, 한라산 산록에는 관유목장 11개소에 말이 불과 300-400필에 지나지 않는다. 장감이라는 사람은 말을 감독하도록 되어 있으나 자기 관구 내에 말이 얼마 있는지 모르고 있다. 관업으로서의 목축은 쇠퇴하고, 목장은 현재 도민의 자유개간에 맡겨 관유지의 소작료와 같은 세를 징수하고 있다. 도민은 이를 개간하고 자기의 우마를 방목했다.²⁵⁾

○ 「제주목양장정」

- 「제주목양장정」은 고종 37년(1900년) 11월에 작성된 사료로, 제주 선달(先達) 윤행구(尹行九)²⁶⁾가 바친 소 1,000수에 대한 관리

25) 「신호우신일보」 1906년 6월 14일자(「濟州島の牧業」).

26) 윤행구(尹行九)는 1900년 11월 12일 통신사 전화와 주사(판8)에 임명된 직후 다음 날인 동년 11월 13일 의원면, 동년 11월 13일 9품 제주목양위원에 임명되었다(安龍植 編 (1994), 『大韓帝國官僚史研究(Ⅰ)』, 연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p.468), 議政府總務局官報課, 1900년(고종 37년) 11월 15일(목), 「敍任及辭令」(奎 1789. 0063책 20면).

세칙을 기록하고 있어 주목됨.

- 제주목양위원직(濟州牧養委員職)의 세습여부, 목양위원에게 관사를 제공하는 규정, 13개 목장에 소 1,000수 분배하는 방법, 목양례(牧養例)에 의한 전세곡(田稅穀)의 사용(위원·관인·장감·목관의 급료로 이용), 월해선하(越海船下), 영솔인(領率人) 급료, 목장 및 여전(餘田)의 수세가 기록되어 있음.

○ 대한제국기에는 국마장이 점차 폐장되면서 제주도민들에 의해 목장토 개간과 함께 화전개간이 확산되었음.

- 지방관아에서도 개간지역에 대한 세금 특히 화전세를 징수하는 정책을 실시했으며,²⁷⁾ 가난한 농민들은 중산간 지대에서 화전개간에 참여하면서²⁸⁾ 화전촌이 형성되었음.²⁹⁾
- 화전세 징수 과정에 관리들의 가렴주구가 심해지면서 이들과 화전민 간에 마찰이 빈발하며 1898년에 방성칠 난이 발생하고,³⁰⁾ 1900년 봉세관 강봉헌이 지나친 과세를 자행한 결과, 1901년에는 이재수 난이 발생했음.³¹⁾

○ 조선시대 이래 유지되어 온 제주도 중산간 국영목장지대는 대한제국기에 들어와 공마제가 폐지되면서 대신에 소를 생산하는 목장으로 구조조정을 거치던 중 1910년 한일강제 병합조치 후 진행된 토지조사 사업에 따라 1910~1930년대 본격적으로 마을공동목장지대로 재편된 것임.³²⁾

27) 서귀포시 도순동 마을회관에는 화전세 영수증 문서가 남아있어 국마장터에서 화전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 領收證一金拾陸圓 柒拾貳錢貳里也 右는道順里八所場火稅 領收 明治四十三年十二月十五日 納人梁元海領收員姜弼鎬.

28) 김동전(2006), 「1862년의 제주민란」, 『安德面誌』[총괄편], 태화인쇄사, p.36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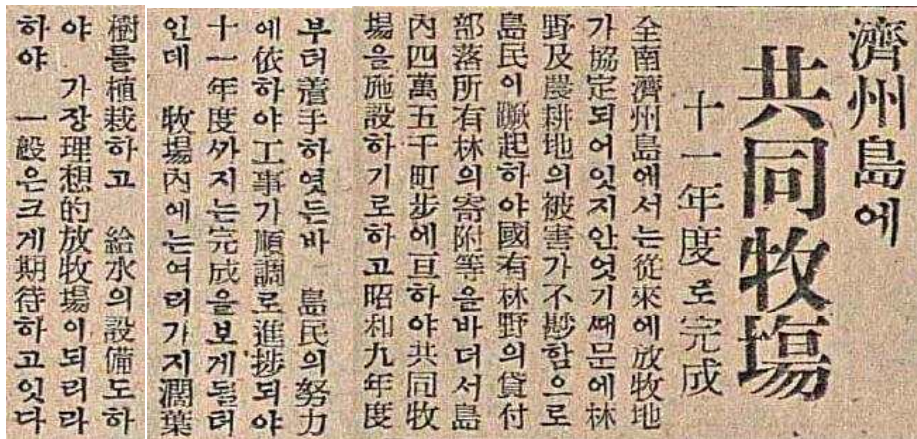
29) 실례로 방성칠란에 참여했던 주도세력의 거주지였던 대정 光淸, 菱花洞, 上文里, 鹿下旨, 瀛南里, 大浦里 火田, 道順 法井洞, 西峙 그리고 9소장 내에 존재했던 東烘火田, 土坪火田, 新孝火田, 中孝火田, 上孝火田, 下禮火田, 禮村火田 등이 있었다.

30) 김동전(2006), 「1898년 방성칠(房星七亂)의 난」, 앞의 책, p.367.

31) 李在守의 난은 1901년(광무5년) 중앙에서 파견된 봉세관 및 이들과 결탁한 천주교도의 행패에 대항하여 도민들이 일으킨 사건으로, 이에 대해서는 박찬식의 『1901년 제주민란연구』(2013, 도서출판 각)에 자세히 언급되어 있다.

(6) 일제강점기 마을공동목장

- 제주도의 마을공동목장은 일제 식민지 당국의 명령에 따라 마을별로 공동목장조합이 결성되면서 등장한 것으로, 일제가 시행한 제주지역 「목야지정리계획」(1933년)에 근거해 110여 개가 마을 단위로 성립되었음.
- 마을공동목장의 형성과정에서 제주도사, 제주읍장, 제주도농회장, 권업서기, 지역유지 등이 조직적으로 개입했으며, 일제는 마을공동목장조합의 설립상황을 『매일신보』를 통해 알렸음(그림 II -23).



〈그림 II -23〉 제주도 공동목장 설치 보도자료(「매일신보」)

- 1930년대 제주도사의 설립인가를 받아 등장한 마을공동목장조합은 조선총독부가 전국에 실시한 축우증식 10개년 계획, 산마증식계획, 농촌진흥운동의 축산정책에 영향을 받았음.
- 마을공동목장조합은 제주도사, 제주도농회장, 농회읍면분구장(農會邑面分區長), 제주도목장조합중앙회, 읍면별 공동목장조합연합회 그리고 마을 목장 단위에서는 조합장·부조합장·평의원회·간사

32) 국마장 지역이 마을공동목장으로 재편성된 실례를 보면, 2소장 지역은 선흥공동목장, 3소장 지역은 봉개공동목장과 월평공동목장, 4소장 지역은 해안공동목장, 5소장 지역은 고성·장전·유수암·소길공동목장, 6소장 지역은 어음·어도(봉성)·금악 공동목장, 7소장 지역은 동광·서광·상천·색달 공동목장, 8소장 지역은 중문·대포·하원·도순·강정·영남 공동목장, 9소장 지역은 동흥·토평·하례·상호·신희·위미·한남 공동목장, 10소장 지역은 성읍 공동목장 그리고 산마장 중 녹산장(특히 갑마장) 지역은 가시리 공동목장이 입지했다.

· 목감 등에 의해 운영되었으며, 특히 조선농회 제주도지부인 제주도농회는 조선총독부로부터 국유림 관리를 위탁받아 공동목장조합에 대부하는 역할을 했을 뿐만 아니라 공동목장조합을 대상으로 한 회비징수를 담당했음.

- 공동목장에는 급수장(給水場)·간시사(看視舍)·가축수용사(家畜收容舍)·급염장(給鹽場)·목장도로(牧道)·경계 돌담이 있었음.

(7) 해방 후 제주국립목장

- 해방 후 이승만 정권이 수립되면서 “대한민국 사람도 소고기를 먹어야 한다”는 대통령 지시에 따라 제주지역에는 전국 최초의 현대적 국립목장이 매입한 구좌읍 송당리 공동목장에 설치되었음.
- 1956년 9월에 이승만 대통령의 지시에 의해 정부가 제주도 국립목장 건설을 계획한 후, 8월에 목장 건설 공사에 착수, 공사비 3,540만환을 투입, 야간공사 끝에 10월 말에 1차 완공한 뒤 11월에 1차로 육우를 도입했으며, 동시에 대통령령에 의해 국립제주목장으로 공포되었음(제주시 향토문화전자대전 자료인용).
- 이승만 대통령 실각 후인 1963년 1월에 박정희 군사 정부에 의해 국립제주목장은 민간에 매각되어 현재 제주축산개발주식회사가 운영하고 있으며, 2014년 목장 내에 남아있는 이승만 대통령 별장인 귀빈사가 복원되었음.

(8) 현대의 기업형 목장

- 해방 이후 마을공동목장은 1948년 제주 4·3사건을 거치며 심각한 타격을 받아 일시적인 쇠퇴현상을 보였으나, 한림읍 금악리에 성 이시돌 목장(그림 II-24)과 표선면 가시리에 제동목장(그림 II-25)이 설립되어 제주도의 축산진흥에 기여했음. 이밖에 젓소를 길러 우유를 생산하기 위한 낙농목장이 등장했음.



〈그림 II -24〉 이시돌 목장(현지촬영)

〈그림 II -25〉 제동목장(제민일보자료사진)

2. 고지도에 나타난 제주목장

1) 『탐라순력도』(1703)

(1) 한라장축(漢拏壯囑)

- 삼읍관아(三邑官衙)의 위치와 9개 진(鎭)인 화북진 · 조천진 · 별방진 · 수산진 · 서귀진 · 모슬진 · 차귀진 · 명월진 · 애월진의 소재지를 적색으로 표시했으며, 이형상 제주목사는 각 진성을 관리했던 조방장이 인근 국마장을 감독하도록 조치했음.
- 「한라장축」에는 목장명으로 제주목 지역에 牧三所場(후일 6소장), 大三所場(5소장), 辰字場(4, 5소장), 大二所場 · 日字場 · 異字場(3소장), 針場(산마장 중 針場), 二所場 · 黑字場(2소장), 別牧場 · 黃字場(1소장), 대정현 지역에는 玄字場 · 黃字場(8소장), 宇字場(7소장), 別 · 玄字場(毛洞場), 정의현 지역에는 산장과 원둔장(元屯場)이 등장함(그림 II -26). 산장은 9소장과 따라비 및 녹산(鹿山)을 연결하는 초지에 있다가 녹산장으로 변모한 것으로 보임(강만익, 2001).
- 따라비오름과 영천(靈泉岳)을 연결하는 하жат성 아래의 표선면 가시리에 위치한 병화악(병곳오름)~소홀악(설오름) 그리고 성읍리에 위치한 지악(모지악) 일대에는 ‘원둔장(元屯場)’이 위치했음.³³⁾

- 목마장의 경계선인 잣성이 등장한 최초의 지도이며, 黃字場의 면적이 동쪽으로 확대됨에 따라 돌담을 늘려 쌓았다고 하는 ‘加築’ 부분이 나타나 있으며, 대정현의 高山(고산리 수월봉)과 龍木岳(신도리 녹남봉), 草岳(청수리 신서악)을 연결하는 평원지대에 위치했던 別·玄字場 둘레에도 돌담이 축조되었음.



〈그림 II - 26〉 『탐라순력도』(1703)의 「한라장축」(<http://tamnamap.jeju.go.kr>)

33) 오창명(2000), 『『탐라순력도』의 땅 이름(지명)』, 『탐라순력도연구논총』, 제주시·탐라순력도연구회, pp.251-290.

(2) 공마봉진(貢馬封進)

- 숙종 28년(1702) 6월 7일에 실시했던 공마 확정 장면으로, 진상에 필요한 말을 각 목장에서 징발한 다음, 관덕정에서 제주목사가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광경임(그림 II-27).



〈그림 II-27〉 『탐라순력도』(1703)의 「공마봉진」(<http://tamnamap.jeju.go.kr>)

- 공마봉진의 책임을 수행하기 위하여 대정현감 최동제를 차사원(差使員)으로 임명한 것으로 볼 때, 이 때 공마들은 대정현 소속 국마장에서 선정된 것으로 보임.

- 7·8소장에서 차출된 목자는 1인당 2필씩 말을 이끌고 관덕정 마당에서 대기했으며, 당시 진상 말은 433필이고, 흑우(黑牛)는 20 수였음.

○ 공마의 내역은 어승마(御乘馬 : 임금의 탈 말) 20필, 연례마(年例馬 : 매년 정기적으로 공납하는 말) 8필, 차비마(差備馬 : 특별한 용도로 쓰기 위하여 마련하는 말) 80필, 탄일마(誕日馬 : 임금의 생일을 축하하여 바치는 말) 20필, 동지마(冬至馬 : 해마다 동짓달에 중국으로 사신을 보내면서 함께 바치는 말) 20필, 정조마(正朝馬 : 정월 초하룻날을 맞이하여 바치는 말) 20필, 세공마(歲貢馬 : 연말에 각 목장에서 바치는 말) 200필, 흉구마(凶咎馬 : 흉년이 있을 때에 사역하는 말) 32필, 노태마(耨 田 馬 : 밭 심는 말) 33필 등이 있었음.

(3) 산장구마(山場驅馬)

○ 숙종 28년(1702) 10월 15일 산장(山場)에서 말을 몰아 일정한 장소에 모으고 마필 수를 확인하는 장면임(그림 II-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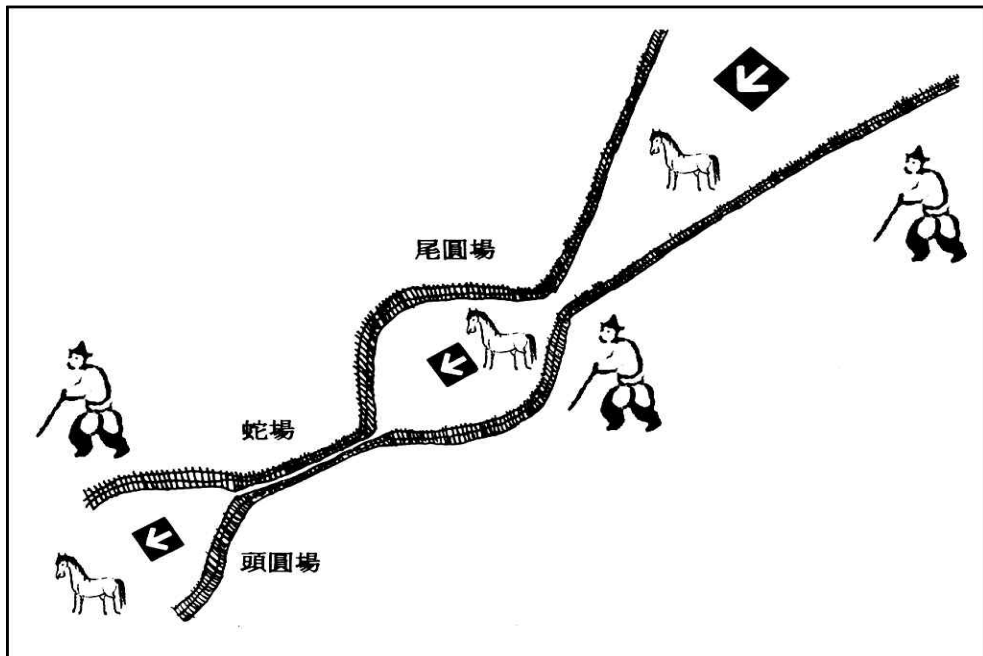
- 제주판관·감목관·정의현감이 참여한 가운데 결책군(結柵軍 : 사장과 원장의 목책을 만드는 군인) 2,602명, 구마군(驅馬軍 : 말을 모는 임무를 맡은 군인) 3,720명, 목자(牧子 : 말의 직접적인 관리자)와 보인(保人 : 목자의 경제적 기반의 일부를 제공하는 사람) 214명 등이 동원된 말몰이 행사였음.
- 성판악 남쪽에서 벌어진 구마(驅馬)는 남북 약 40리, 동서 약 60~70리의 넓이의 초지에 세 부분으로 구분된 목책이 있으며, 각 구역마다 말을 취합하는 데 필요한 원장(圓場)과 사장(蛇場)이 설치되어 있음.
- 원장은 우마를 취합하기 위해 만든 원형목책이고, 사장은 취합한 우마를 1두 또는 1필씩 통과할 수 있게 만든 마치 뱀처럼 굽은 목책 통과로이며, 원장은 다시 미원장(尾圓場)과 두원장(頭圓場)으로 구분되고, 우마를 먼저 미원장에 몰아 놓은 다음, 사장을 통해 점검한 후 두원장에 취합할 수 있게 되어 있음 (그림 II-29).



〈그림 II -28〉 『탐라순력도』(1703)의 「산장구마」(<http://tamnamap.jejusi.go.kr>)

* 구두리오름 아래(현재 제주경주마육성목장과 제동목장)에 원장이 설치되었음.

** 300년 전의 고래리에는 12채의 초가와 객사가 존재했으며, 1702년 10월 15일(음) 이 형상 목사는 먼저 객사에 들러 한양에 계신 임금에게 예를 표한 후, 산장구마행사를 참관했을 것이며, 이날 산장의 점마는 제주판관, 정의현감, 산장감목관이 책임을 담당했으며, 성판악 바로 밑에 있는 산쪽 끝 지점에서부터 구마군이 말을 몰고 내려오면, 결책군들은 다른 목마장의 경계인 목책 바깥에 줄줄이 도열해 지킴으로써 말들이 다른 곳으로 넘어가지 못하도록 했다. 미원장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군인과는 다른 복장을 한 것으로 보아 목자들로 보인다. 이들은 원장에 모인 말들의 낙인으로 자신이 관리하는 목마장의 말인지를 확인했을 것이다. 그리고 사장 바로 앞에는 제주판관, 정의현감, 산마감목관 등이 자리 잡고 있으면서 말의 수와 낙인, 상태를 직접 점검했던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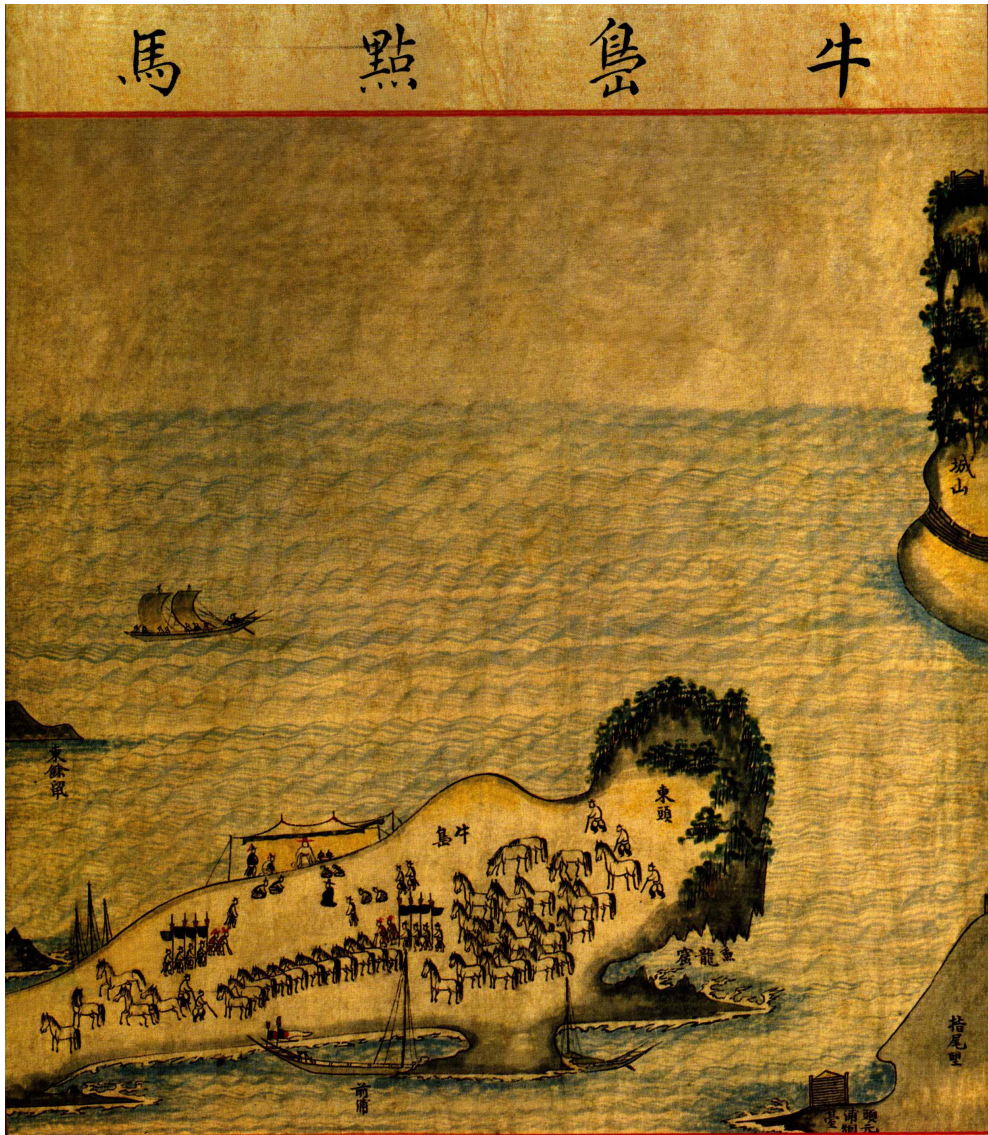
〈그림 II -29〉 점마시설인 원장과 사장, 목자복장(강만익, 2001, p.88)

(4) 우도점마(牛島點馬)

- 우도점마에 나타난 우도목장은 말을 길렀던 국마장으로, 숙종 23년(1697)에 유한명 제주목사의 건의로 설치되었으며, 말 2백 필을 방목했고, 설치당시 목장의 둘레는 50리 정도였음(그림 II -30).³⁴⁾
- 제주목의 별방진과 정의현의 수산진 조방장이 교대로 우도목장을 관리했음.
 - 이것은 당시만 해도 우도가 남북으로 구분되어 우도 북부는 제주목, 우도 남부는 정의현 관할이었기 때문에 별방진과 수산진 조방장이 교대로 우도 목장을 관리했던 것임.
- 실질적으로 우도에 사람이 살기 시작한 것은 이원조 제주목사가 장계를 올려 우도목장의 개간을 허락받은 1843년경부터이나 『순조

34) 우도의 해안선 길이가 약 17km 정도이므로, 대략 1리를 4km로 잡아도 50리는 20km에 해당되어 결국 우도 전체에 목장이 설치되었음을 알 수 있다.

실록』(26권)에 따르면, 제주위유어사(濟州慰諭御史) 조정화(趙庭和)는 1823년에 이미 백성들이 우도목장에서 목장토 개간을 허가해 주도록 건의했음.³⁵⁾



〈그림 II -30〉 『탐라순력도』(1703)의 「우도점마」(<http://tamnamap.jejusi.go.kr>)

35) 『순조실록』 권26, 순조 23년(1823) 2월 24일(갑자).

(5) 별방조점(別防操點)

- 숙종 28(1702) 10월 30일 별방진성에서의 군사 훈련과 성정군·군기·우마를 점검하는 그림이며, 별방진 조방장 김여강(金汝江)과 성정군은 423명은 황자장 목장을 관리했음.



〈그림 II -31〉 『탐라순력도』(1703)
「별방조점」의 황자장 경계돌담
(<http://tamnamap.jejusi.g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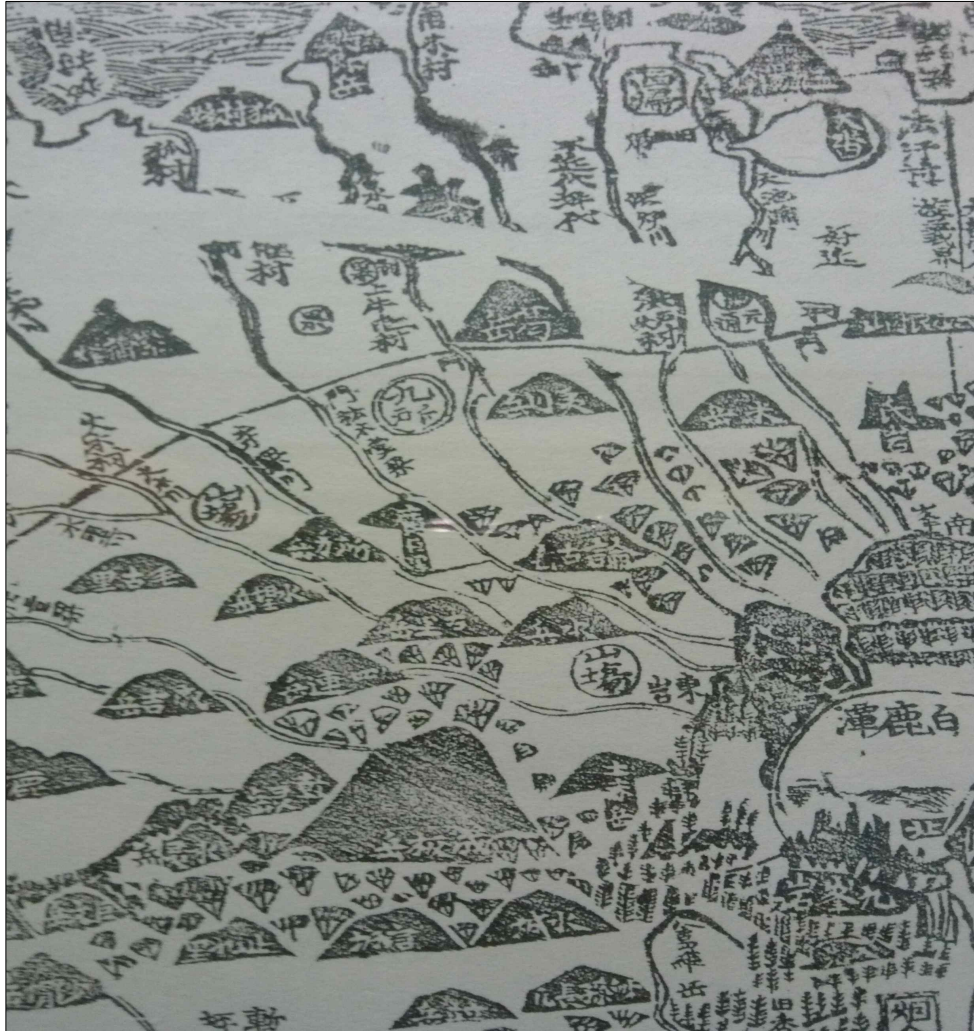


〈그림 II -32〉 『탐라순력도』(1703)
「별방조점」의 흑우둔과 테우리 모습
(<http://tamnamap.jejusi.go.kr>)

- 황자장은 구좌읍 덕천리 둔지악과 송당리 체악(체오름) 사이에 위치하며, 두 오름 사이에는 ‘黃字場癸未新築’한 즉, 계미년에 쌓은 돌담(жат성)이 「별방조점」 지도에 등장함(그림 II -31).
 - 계미년은 숙종 29년인 1703년, 인조 21년인 1643년, 선조 16년인 1583년에 해당되는데 『탐라순력도』가 1703년 5월(13일)에 완성되었고, 그리고 ‘新築’이라는 용어를 썼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 돌담은 1703년 5월 이전에 비로소 황자장이 설치되면서 쌓은 것이라 추정할 수 있음.
 - 황자장의 우마수는 흑우 247수, 말 946필이며, 목자와 보인은 모두 187명이었으며, 특히 대랑수악(大朗秀岳 : 다랑쉬악) 바로 남쪽에는 흑우목장인 ‘黑牛屯’이 등장하고 있음(그림 II -32). 다랑쉬오름 아래의 흑우목장은 구좌읍 세화리 마을공목장터였음.

2) 「탐라지도」(1709)

- 조선후기 십소장의 명칭과 위치가 처음 등장한 지도는 숙종 35년 (1709) 이규성 목사가 간행한 것으로 추정되는 「탐라지도」임.



〈그림 II -33〉 「탐라지도」(1709)에 나타난 9소장과 산마장

(*정의현의 동쪽 끝경계가 법환촌으로 되어 있으며, 목장출입구인 랑(梁) 그리고 산장이 등장함. 제주국립박물관 소장자료)

- 10소장의 이름과 위치가 고지도에 등장할 수 있었던 배경은 제주 목사로 내려 온 송정규가 1704년~1706년에 걸쳐 이형상 목사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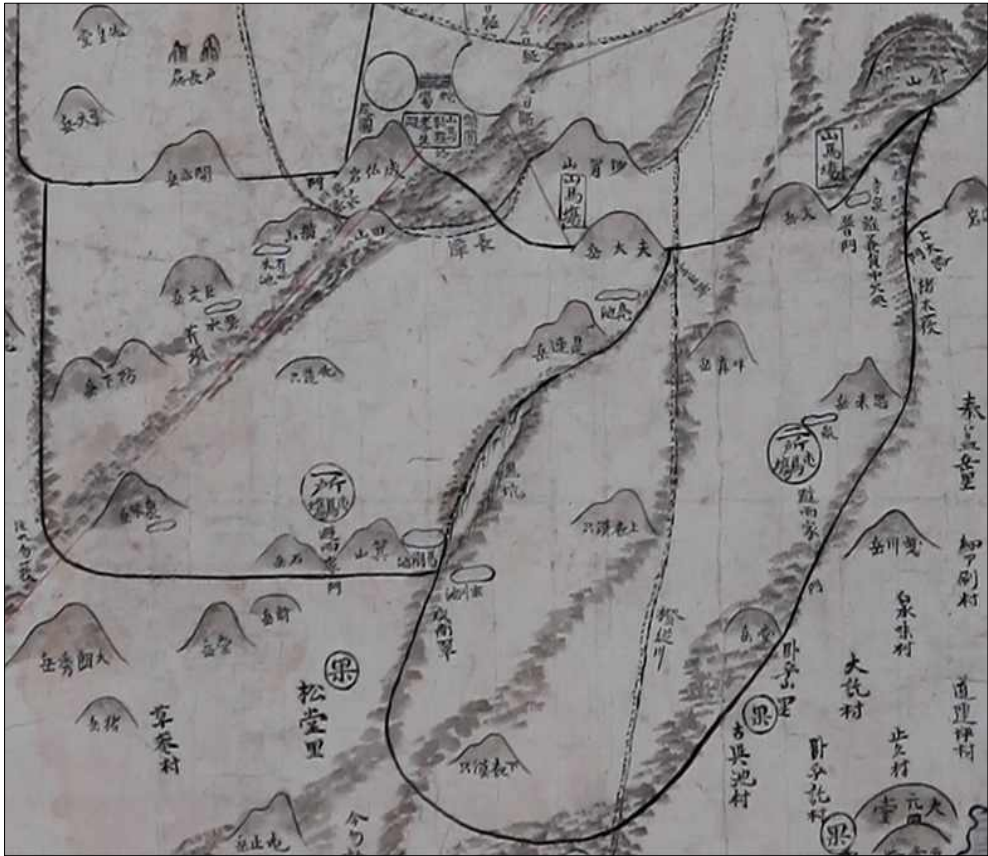
목장정비 정책을 다시 손질해 규모가 작은 목장은 큰 목장으로 그리고 운영이 부실한 목장들을 통폐합하여 10개 소장(十所場)으로 정비한 결과임.

- 「耽羅地圖」(1709)에 산북지역인 제주목에는 1 소장부터 6 소장까지 그리고 산남지역인 대정현에는 7 소장부터 8 소장까지 2개의 소장이 입지하였으며, 정의현에도 9 소장부터 10 소장까지 2개의 소장이 분포했음(그림 II-33).
- 산장은 제주목 지역에 위치한 3소장 위의 대천악 아래 1개, 2소장 위에 위치한 반의악과 황악(荒岳) 사이에 1개, 1소장 위의 부대악 근처(이곳에는 孝生洞이 표기됨) 1개 등 모두 3개 그리고 정의현 지역에 위치한 가시리 녹산과 따라비오름 사이에 1개, 화목천(火木川) 인근에 1개, 수악(水岳)과 백록담 근처 동암(東岩) 사이에 1개 등 3개가 입지하고 있으며, 목장출입구인 량(梁)이 등장함.

3) 「제주삼읍도총지도」(1730년대 이후)

- 1734년(영조 10)에 제주목사 정도원(鄭道元)이 제주읍성 남문 밖으로 이전시킨 사직단이 표시 되어 있어 적어도 1730년대 이후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됨(그림 II-34).³⁶⁾
- 10소장과 천미장·모동장 등의 우목장도 그려져 있으며, 각 소장에는 비바람을 피하던 피우가, 물을 먹이던 수처, 잣성, 목장출입문인 량(梁) 또는 문(門)이 등장하고, 산마장의 모습과 점마(點馬)할 때 사용되었던 원미장(尾圓場)·사장(蛇場)·두원장(頭圓場) 등도 확인됨
- 제주지역의 마정실태를 한 눈에 확인하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보이며, 10소장과 산장, 목장출입구인 량(梁)이 표기된 「탐라지도」(1709)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판단됨.

36) 오상학(2006), 「지도와 지지로 보는 한라산」, 『한라산의 인문지리』, 한라산생태문화연구소, p.78.



〈그림 II -34〉 「제주삼읍도총지도」에 나타난 1소장과 2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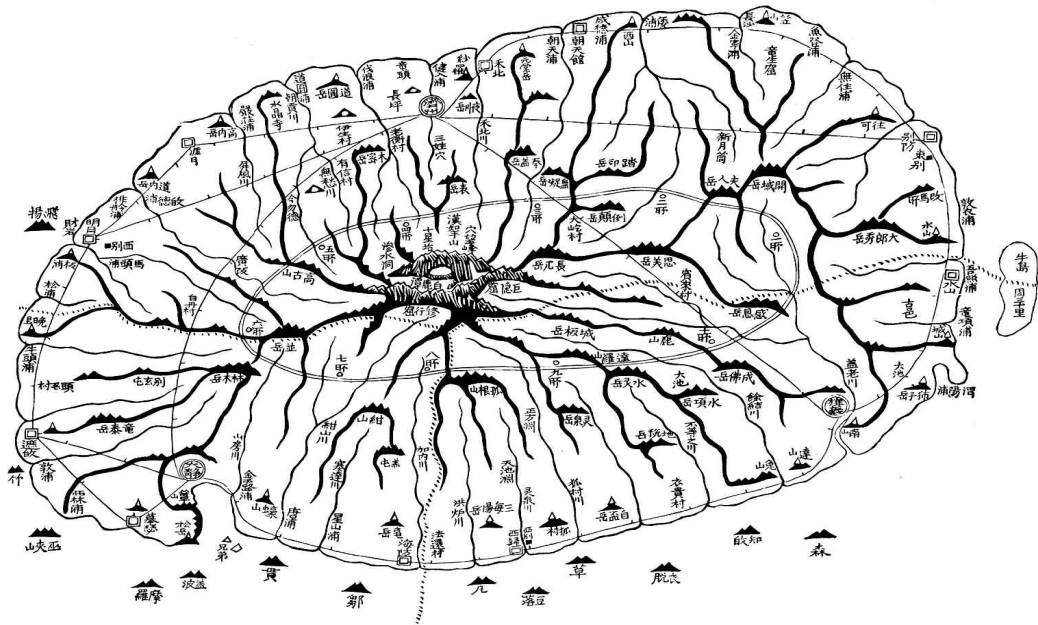
(1소장 북쪽에 위치한 성불오름에 원장이 설치되어 있으며, 산마장과 목장출입구인 문(門), 중산간 마을 이름과 과수원(송당리에도 과수원 존재), 하천, 못(池) 등이 자세히 나타나 있어 한국의 고지도 중에 가장 자세한 목장지도에 해당함, 제주민속자연사박물관 소장)

4) 「대동여지도」(1861)

○ 「대동여지도」는 1861년 고산자 김정호가 완성한 지도로, 국마장의 경계선인 하잣성(한라산지 아래의 두 줄로 표시된 부분)이 등장하고 있음(그림 II-35).

- 국마장으로는 제주목에 1소부터 6소까지, 대정현에는 7·8소와 別玄屯, 정의현에는 9·10소가 나타나나 분화된 산마장의 모습은 나타나 있지 않음.

- 한라산 정상부에는 백록담 외에 ‘혈망봉’(穴望峰)이 등장하고 있으며, 무엇보다 우도장(牛島場)이 설치된 우도가 북부는 제주목(별방진 관할 부분), 남부는 정의현(수산진 관할 부분)으로 구분되어 있는 점이 특징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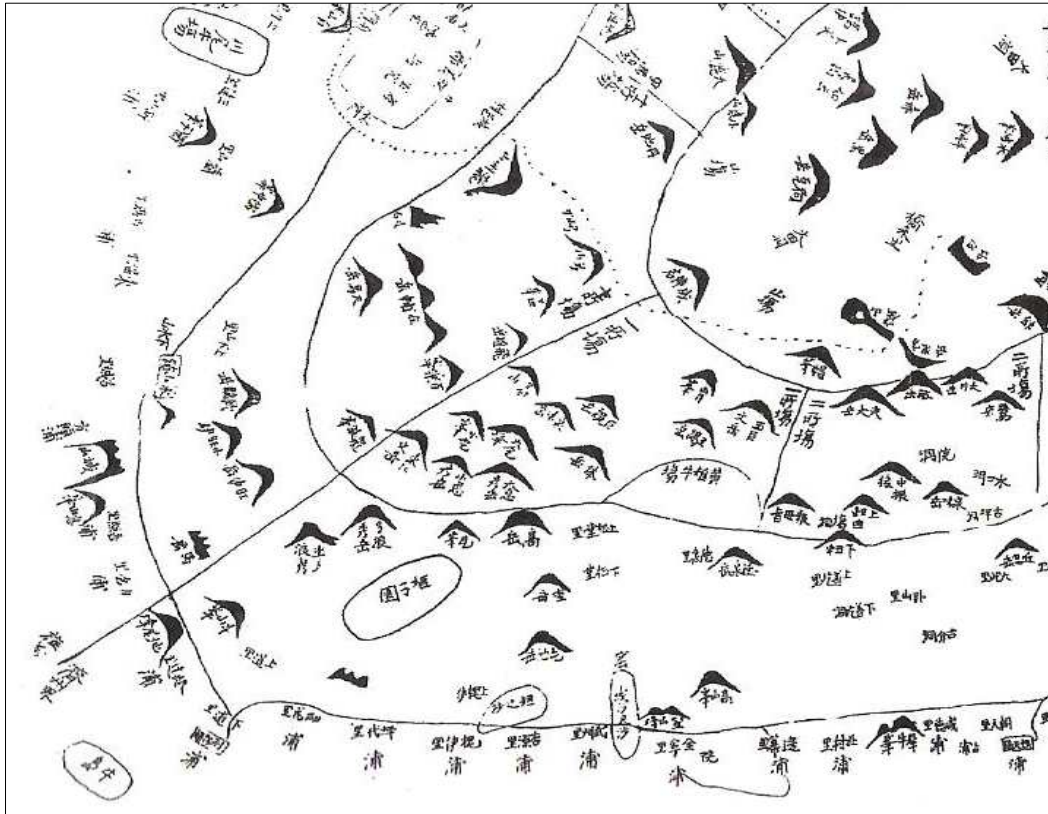
〈그림 II - 35〉 「대동여지도」(1861)에 나타난 십소장

5) 「제주지도」(1899)

○ <그림 II - 36>에는 첫째, 우도가 대동여지도(1861)와는 달리 제주목 경계 선 내에 배치되어 제주목 관할의 섬임을 보여주고, 둘째, 목장으로서는 마장이었던 1·2·3, 10소장과 소를 전문적으로 길렀던 우장(牛場)인 ‘황태우장(黃堆牛場)’이 1소장 내에 위치하며, 셋째, 현재 가시리 따라비오름과 대록산 사이의 넓은 초원에는 갑마장이 존재했음.

- 정의현의 해안가에 등장한 천미우장(川尾牛場)은 소를 길렀던 목장임.

- 성불오름과 구두리오름 사이에는 본래 ‘상장(上場)’이라는 산마장이 존재했었으나 「제주지도」에는 산장(山場 : 상장에 해당)과 화전동(火田洞)이 동시에 표기되고 있어 산마장 지역이 인근 주민들에 의해 농경지로 개간되었을 보여줌.



〈그림 II -36〉 「제주지도」(1899)의 동부지역 목장

III. 제주도 목축문화의 실태조사

1. 제주도 목축문화의 원형

- 제주지역의 목축문화는 자연 초지를 기반으로 했던 생업활동의 산물로, 자연환경의 소산이며, 테우리(牧子)들에 의해 형성된 ‘오래된 전통’에 해당함.
- 목축문화는 키우는 대상에 따라 마 문화(馬文化)와 소 문화(牛文化) 그리고 성격에 따라 순수목축문화(예 : 낙인)와 혼합목축문화(예 : 바령)으로 구분되며, 해안지대보다는 중산간지대에 전형적인 목축문화 요소들이 존재하고 있음(표Ⅲ-3).

<표 Ⅲ-3> 제주도의 목축문화 요소

지대별	해안지대 (0~200m)	중산간지대 (200~600m)	산간지대	
			삼림지대 (600~1400m)	아고산지대 (1400~1950m)
목축 문화	-해안방목 -번쉐, 낙인 -축사사육 -발뽕기 -목축민요 -물방애 -마조제 -공마해신제 -물총공예	-십소장, 잣성, 테우리 -마을공동목장 -방앳불 놓기(火入) -공동목장 출역(出役) -바령쉐, 번쉐, 멤쉐 -낙인, 귀표, 검은쉐 -목장경계용 돌담보수 -테우리 제사(백중제) -잣성, 공마, 점마, 출(꼴) 베기, ‘케’방목	-꽃물, 꽃쉐 연중 방목	-꽃물, 꽃쉐 연중 방목 -상산방목 -우마찾기 고사

(강만익(2013), 근현대 한라산 상산방목의 목축민속과 소멸, 『탐라문화』(43),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 2008년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선정한 100대 제주문화상징에 목축문화 분야로는 제주마 · 검은쉐[黑牛] · 잣성 · 고득중 · 테우리 · 물방애 · 번쉐와 멤쉐가 선정되었음.³⁷⁾

1) 마문화(馬文化) 원형

(1) 공마(貢馬)

○ 공마란 국마장에서 선정된 우수한 말들을 중앙(한양)으로 보내는 것을 의미하며, 제주목장에서 공마로 선정된 말들은 관덕정 광장에서 제주목사의 최종 확인을 거쳐 애월포, 화북포, 조천포에 집결한 후, 공마선을 이용해 전라도 해안으로 운반되었음.

- **공마의 분류** : 공마에는 매년 국가에 바쳤던 연례공마(年例貢馬)인 세공마(歲貢馬), 삼명일(正朝 · 冬至 · 誕生日) 진상마(進上馬), 연례진상마(年例進上馬), 그리고 3년마다(자 · 묘 · 오 · 유가 들어가는 해마다) 보냈던 식년공마인 차비마 · 어승마, 수시로 필요에 따라 보냈던 흉구마(凶咎馬) · 노태마(駑駘馬) 등이 있었음.

○ 『조선왕조실록』에 등장하는 공마기록

- 제주에 명하여 세공마 1백 필과 소 1백두를 바치게 하였다.³⁸⁾

- 전라도관찰사가 제주에 둔전(屯田)을 두도록 하였다. 진상마 · 공마 · 공물을 보내는 데 바다를 건너가는 양식과 바람을 기다리는 양식 등 일 년에 소비되는 것이 약 1천여 석이므로, 전례에 따라 둔전을 설치한다.³⁹⁾

- 제주에서 공마 107필을 들였다.⁴⁰⁾

○ 공마수송은 남풍이 발생하는 하절기에 주로 이루어졌으며, 제주에서 한양까지 운송하는 데는 약 2개월 정도가 소요되었음.

- 해로운송 중에 조난사고가 발생했으며, 공마선은 해마다 평균 10척이 왕래했음.

37) 제주특별자치도(2008), 『제주문화상징』, 제주문화예술재단.

38) 『태조실록』권13, 태조7년(1398) 3월17일(갑자).

39) 『태종실록』권35, 태종18년(1418) 4월2일(임오).

40) 『고종실록』권18, 고종18년(1881) 윤 7월 11일.

- <표 III-4>는 『탐라순력도』(1703)에 나타난 공마상황을 나타낸 자료로, 공마의 종류와 용도, 공마수가 제시되어 있음.

<표 III-4> 조선후기 제주지역 공마의 종류

구분	공마시기	공마용도	공마수 (필)
어승마	3년마다	임금이 탈 말	20
차비마	3년마다	특별한 용도로 쓰기 위하여 준비하는 말	8
년례마	매년	정기적으로 공납하는 말	80
탄일마	매년	임금의 생신을 축하하여 바치는 말	20
동지마	매년	동짓달 중국에 사신을 보내면서 함께 바치는 말	20
정조마	매년	정월 초하룻날을 맞이하여 바치는 말	20
세공마	매년	연말에 각 목장에서 바치는 말	200
홍구마	수시	홍변이 있을 때에 사역하는 말	32
노태마	수시	짐 실는 말	33

(이형상(1703), 『탐라순력도』의 「공마봉진」, 제주시(1999), 『탐라순력도』, p.24를 재구성함)

- **공마 절차** : 병조에서 공마수를 결정해 사복시에 지시하면, 사복시는 전라도관찰사와 제주목사에 공마내용을 전달하고, 이를 제주목사가 삼읍감목관에게 하달하면(삼읍 중 하나일 수 있음), 해당 감목관(판관 또는 현감)은 국마장에서 말 징발에 필요한 결책군(結柵軍)과 구마군(驅馬軍)을 대동해 임무를 수행했으며, 결책군은 원장(圓場)과 사장(蛇場)을 설치하고, 구마군은 원장과 사장이 설치된 지점으로 말을 모아오는 역할을 담당했음.
- 제주·정의·대정 영문에서는 감목관의 책임 아래 습마(習馬) 6명이 각 목장에서 선정된 말의 마적(馬籍)·낙인자(烙印字)를 확인하고, 현감과 판관은 말의 나이, 키, 털빛, 건강 실태 등을 조사해 선정한 공마의 목록과 함께 제주목사에 보고 했음.
- 최종 선정된 공마들은 자세한 세목(細目)과 함께 조천포, 화북

포, 애월포 중 하나의 포구로 이동시켜 공마선에 실어 해남, 이진, 강진, 영암 포구로 운송하면 여기서부터는 육로를 통해 삼남대로(三南大路)를 따라 한양까지 운송했음.

○ 김성구(金聲九)의 『南遷錄』(1679~1682)에 나타난 공마장면

- 숙종 6년(1680) 6월 10일 말을 실은 배를 띄어 보내었다. 매년 5, 6월 감영에서 삼읍의 말을 골라 봉진한다. 조천관에서 바람을 기다리게 하고, 삼읍의 수령들이 윤번으로 차원(差員)을 정하여 그로 하여금 실어 보내는 일을 맡게 한다. 금년은 대정현감이다. 말을 실은 배는 다른 배와는 달라 반드시 강한 바람이 있는 연후에 비로소 배를 출발시키는 데, 실은 것이 무거울 뿐만 아니라 만약 하루 만에 도착하지 못하면, 여러 섬에서 머물러야 하므로 말이 많이 상하기 때문이다. 본현(정의현)이 금년 진상하는 수는 연례마 3필, 세공마 51필, 동지마 6필, 탄신일마 5필, 정조마 7필, 흥구마 15필, 노태마 5필 도합 92필이다.⁴¹⁾

○ 공마선에는 배 밑창에 배의 균형을 잡기 위한 평형수(平衡水) 역할을 하는 돌(현무암)을 적재한 다음, 배가 균형을 잡으면 공마를 실어 큰 바람이 불고 난 직후 출발했음.

- 공마를 책임진 공마감이 조천관(朝天館)에서 바람을 기다리며 공마선 출항이 결정되면 공마선을 출발시켰음.
- 공마선이 전라도 강진, 마량, 이진, 해남 포구에 무사히 도착하면, 말들을 포구 주변의 성곽대로 이동시켜 먹이를 주면서 쉬게 한 다음, 다시 육로로 보냈음.
- 공마선이 제주로 돌아올 때는 배 밑창에 있었던 현무암 돌덩이를 포구에 내린 다음 생필품으로 교체하여 채웠음.
- 과거 공마선이 도착했던 포구에는 지금도 제주현무암이 남아있으며, 집 벽에도 현무암이 박혀 있는 사례가 있음(그림 III-37).

41) 김봉옥 편역(1994), 『續 耽羅錄』, 제주문화방송주식회사, pp.197-255.

- <그림 III-38>은 공마와 관련된 고문서로, 고종 26년(1889) 6월 초 9일 조천진 조방장 박(朴)이 겸방어사에게 올린 첩정이며, 여기에는 3소장의 목자 권인복이 본 목장의 공마 중 유웅마 1필이 지난 밤에 병이 나서 죽었다고 보고한 것에 대해 죽은 말의 가족을 즉시 올려 보내라는 처분 내용이 기록되어 있음.

- 목자의 실명이 등장한 고문서로, 조천진 조방장이 3소장을 관리했고 아울러 1889년 6월의 공마는 제주목(조천진)에서 담당하는 것으로 보임.



<그림 III-37> 전남 해남군 이진리
가옥 벽에 박혀 있는 현무암



첩정, 1889, 38cm X 29cm, 등록번호 50783

<그림 III-38> 조천진 조방장이
겸방어사에게 올린 첩정
(제주교육박물관(2012), 『제주의 고문서』, p.80)

- 공마수송은 남풍이 발생하는 하절기(夏節期)에 봄부터 여름에 걸쳐 이루어지며, 하나의 공마선에는 배마다 영선천호(領船千戶) 1명, 압령천호(押領千戶) 1명, 선장(船長) 1명, 사관(射官) 4명 등 모두 7명이 탔음.

- 격군(格軍)은 대선이면 43인, 중선이면 37인, 소선이면 34인이 분승하여 노젓는 일을 맡았으며, 공마선에 실린 말들과 선원들의 수는 진상단자에 자세히 기록됨(그림 III-39).
- <그림 III-40>은 철종 14년(1863) 5월 28일에 제주목에서 말을 진상하고 그 내역을 기록한 문서로, 진상마는 세 고을의 선박에 나누어 실어 보내며, 성책(장부)에 기록해 전라도 감영에 보고했음.



진상단자, 1863, 59.5cm X 35cm, 등록번호 50784

〈그림 III-39〉 공마진상단자 (제주교육 박물관(2012), 『제주의 고문서』, p.258)



〈그림 III-40〉 해남현감 서목 (제주시 (2013), 『제주목관아소장유물』, p.22)

○ 공마수송 과정에서 도회(都會)의 폐단이 많았으므로 1889년 제주의 공마감 오영(吳永)이 도회를 혁파하였다는 구폐석(求弊石)이 조천포구에 남아있음.

- “도회를 혁파하여 뱃사람들이 은혜를 입었다. 이에 공덕을 돌에 새겨 천년을 전하노라(都會革罷 船人蒙惠 茲庸銘勒 以傳千示異)”⁴²⁾ 라는 구폐석 내용 중 도회의 실체를 구명할 필요있음.
- 도회의 실체를 짐작하게 해주는 자료로는 〈그림 III-40〉과 같이 1874년 6월 초8일 해남현감이 도회관인 영암군수에게 보낸 문서(제주에서 올라온 세공마가 내리는 즉시 수를 확인하여 기록한 다음, 영암군수에게 보고한 내용) 그리고 『비변사등록』(영조 40년, 1764)에 기록된 아래 사료를 주목할 필요가 있음.
- 영의정 홍봉한(洪鳳漢)이 말하기를 “전 제주어사 이수봉이 강진·해남이 제주를 왕래하는 도회관(都會官)이나 근래에는 수로가 여러 번 변경되어 이진(梨津), 고달도(古達島)에서 배가 출발하였는데, 고달도는 영암 땅입니다. 이진에서 순풍을 기다리려고 하면 해남에서는 다른 지역이라 말하고(도회관이 아니라고 하고 : 필자 주) 음식을 제공하지 않고, 영암에서는 도회관이 아니라고 음식을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도로 해남에 머물다가 순풍을 놓치게 됩니다.”⁴³⁾

42) 김봉옥(2000), 『증보 제주통사』, 세림, p.96.

43) 『비변사등록』, 영조40년(1764) 9월 5일.

- 사료에서처럼 도회(都會)는 ‘뱃사람들의 모임’과는 성격을 달리하며, 맥락적으로 볼 때 도회란 공마선이 도착한 포구를 관할하는 수령이 공마선에서 내린 말들을 일정 장소로 이동시켜 쉬게 하고, 공마선을 몰고 온 선원들에게 음식을 제공할 의무를 맡았던 조직이라 할 수 있음.
 - 따라서 도회를 혁파한다 함은 바로 공마선의 운영을 포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의 불가능한 조치이기 때문에 공마감 오영구폐석의 내용은 도회를 혁파했다기보다는 도회의 문제점을 시정하여 공마선 운영에 참여했던 뱃사람들이 혜택을 입을 수 있도록 했다고 이해됨.
 - 더욱이 제주목사가 아니라 공마감(貢馬監)이 도회를 혁파했다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이므로 공마감 오영(吳永)의 구폐석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요구됨.

(2) 점마(點馬)

- 점마는 공마선정과 국마들의 건강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십소장과 산마장에서 결책군과 구마군을 동원해 이루어졌으며, 말들을 목장 내외에 설치된 둥그런 원장과 폭이 좁은 사장으로 몰아넣은 뒤, 말들의 상태를 일일이 점검하는 것을 의미함.
- <그림 III-41>은 『탐라순력도』(1703)의 「별방시사」에 나타난 점마 장면으로, 이형상 목사는 ‘별천자둔(別天字屯)’ 목장 소속의 둔마에 대해 점마했음.
- 점마에는 제주목사 또는 점마별감(點馬別監) 그리고 목자와 농민들도 참여했으며, 제주목사는 십소장과 산마장의 국마를 대상으로 점마를 진행한 반면, 중앙에서 파견되어 온 점마별감은 사둔장(개별방목지)의 말들도 점마하여 많은 부작용을 초래했음.
 - 사둔장(私屯場)의 점마에서는 농민들도 참여해야 했기 때문에 점마시기가 농사철과 중복될 경우, 농민들은 시간낭비가 많아 “점마한 다음 해에는 흉년이 든다”는 말이 생겼음.⁴⁴⁾



〈그림 Ⅲ-41〉 『탐라순력도』(1703) 「별방시사」의 점마장면
(<http://tamnamap.jejusi.go.kr>)

○ 『조선왕조실록』에 기록된 점마장면

- 점마하러 들어가는 때는 날씨가 춥고 바람이 싸늘한 9, 10월 사이인데, 말을 환장(環場)·사장(蛇場)의 좁은 곳에 몰아넣어서 골라잡게 할 때에 암수가 샘하여 스스로 물고 차기를 좋아하므로 낙태하는 것이 반(半)이 넘거니와, 이로 인해 국마가 감손됩니다.⁴⁴⁾
- 제주에 점마사(點馬使)를 올 봄에 보낼 것을 전교하셨다. (중략)봄에는 바야흐로 새끼를 가질 때이니, 만약 이런 때 말을 몬다면 반드시 과반은 상할 것입니다. 제주의 점마는 으레 4~5년에 한 차례씩 하였다. 점마사를 뽑아 출발시켜도 바람 불기를 기다려서 도착하려면 4~5월 사이에나 비로소 말을 몰게 됩니다. 이같이 하면 새끼 밴 말이 다치게 될 뿐만이 아니라, 말의 곡식이 무성해질 때라서

44) 『중종실록』 권55, 중종20년(1525) 9월 28일(갑신).

45) 『성종실록』 권281, 성종24년(1493) 8월 5일.

뽕아 손상시킬 것이니, 민간의 폐단이 클 것입니다.⁴⁶⁾

- <그림 III-42>는 울산광역시에 일제시기까지만 해도 남아있었던 점마청 사진이고, <그림 III-43>은 서귀포시 남원읍 하례2리의 점마청터이며, 서귀포시 하원동에도 점마청 터가 있었음.⁴⁷⁾



<그림 III-42> 울산광역시에 있었던 점마청



<그림 III-43> 남원읍 하례리 점마청(點馬廳)터

(3) 잣성(牆垣)

- 잣성은 조선시대 제주도 목마장의 상하, 좌우 경계를 따라 쌓은 목장 경계용 돌담으로, 제주도 목마장의 존재를 증명해주는 대표적 역사유적으로,⁴⁸⁾ 『제주계록』에는 ‘장원(牆垣)’으로 기록됨.
- 위치에 따라 해발 150~250m 일대의 하잣(성), 해발 450~600m 일대의 상잣(성), 해발 350~400m 일대의 중잣(성), 목장 간의 경계선인 간장으로 구분됨.
 - 1430년대부터 축조되기 시작한 하잣성은 우마들이 농경지에 들어가

46) 『중종실록』 권60, 중종23년(1528) 2월 15일.

47) 하원마을회(1999), 『河源郷土誌』, p.212.

48) 잣성에 대해서는 필자의 「조선시대 제주도 잣성(牆垣) 연구」(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2009), 『탐라문화』 제35호, pp.205~246)가 참조된다.

농작물에 입히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그림Ⅲ-44) 그리고 상잣성은 우마들이 한라산 밀림지역으로 들어가 고실(故失) 또는 동사하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중잣성은 가장 후대에 축조된 것으로, 목장지대를 이등분해 농경과 목축을 번갈아가며 하기 위해, 간장(間牆)은 국마장의 좌우경계선으로 만들어진 돌담에 해당함(그림 Ⅲ-45).



〈그림Ⅲ-44〉 3소장 회천동 하잣성과 조랑말



〈그림 Ⅲ-45〉 갑마장과 10소장의 경계선인 간장(사잇담)

- 『탐라순력도』(1703)의 「교래대렵」에 현재의 대록산과 소록산 사이에 중잣성이 없는 것으로 볼 때, 이곳의 중잣성은 적어도 1703년 이후에야 등장한 것이라 추정할 수 있음.
 - 잣성 축조에 필요한 노동력은 해당 잣성이 축조될 인근 마을주민들로부터 공급받았으며, 마을별로 일정 범위를 할당하여 축성하도록 하였고, 『제주계록』(1846~1884)에 따르면, 허물어진 잣성은 해당 감목처에서 해마다 주민들을 동원해 보수하였음.
- 잣성 축조로 인해 목장범위가 줄어들고 그로 인해 수초가 적어지는 문제가 있어 말들이 자유롭게 뛰어놓지 못해 야성을 잃어버리거나 수초가 부족해 굶어주는 사례가 발생하자 조정의 대신들이 임금에게 돌담(잣성)을 일부라도 훼손할 것을 건의했음이 확인되며, 조선시대 제주의 목장지대 돌담들은 말들이 매우 중요했기 때문에 왕의 허락을 받아 신축하거나 또는 훼손하거나 보수가 가능했음이 확인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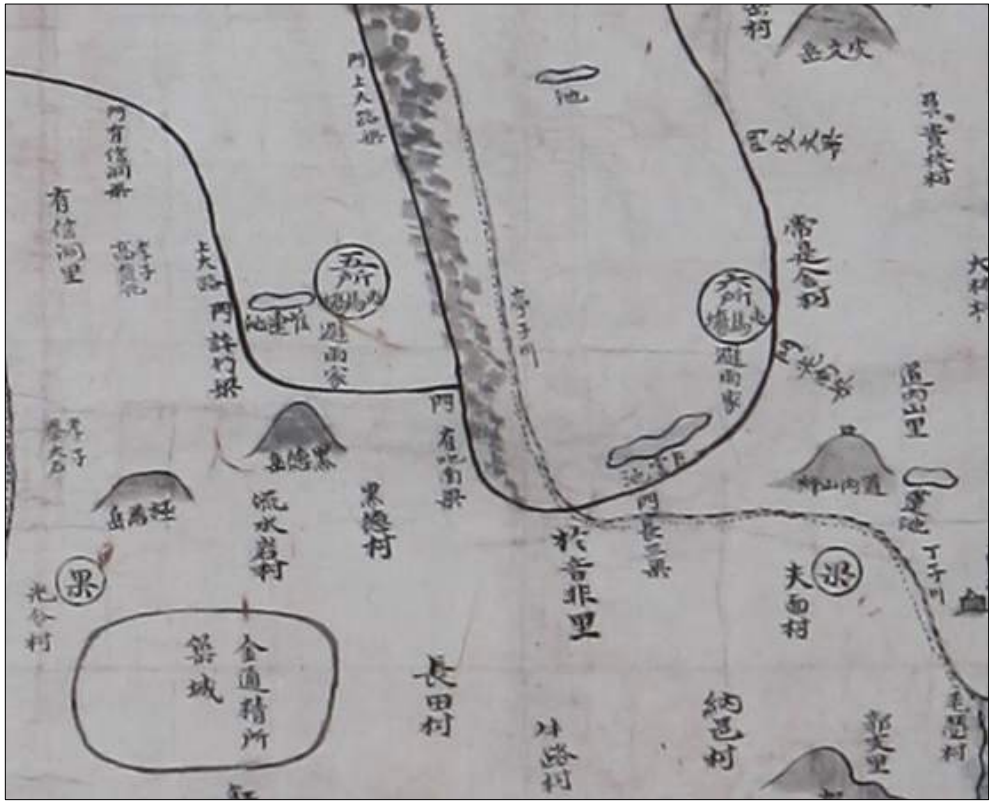
(4) 둔마장 피우가(避雨家)와 못(池)

○ 둔마장(屯馬場)은 각각의 소장에 만들어진 목장의 중심지로, 이 용어는 18세기 전반의 「제주삼읍도총지도」에 등장함.

- 둔마장에는 방목중인 가축들이 비바람을 피하기 위한 피우가(避雨家), 말들을 점마하기 위한 원장과 사장, 목장 관리인들이 임시로 체류하기 위한 직사(直舍) 그리고 테우리(목자)들이 일시적으로 거주했던 집이 있었다고 추정됨.⁴⁹⁾
- 둔마장에는 공마의 선정, 점마, 낙인 등을 위한 기능시설이 집적되었으며, 피우가는 국영목장의 중요시설로, 서우풍설(暑雨風雪)로 인하여 말들이 피폐해지는 문제를 예방함과 동시에 겨울철의 풍설기(風雪飢寒)에 대비해 만든 임시적인 집이었음.⁵⁰⁾
- 지(池)는 목마장에 자연적으로 형성된 습지(淵)와 인공적으로 만든 못을 아우르는 것으로, 테우리들과 우마들에게 물을 공급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목축시설이었음.
- 『제주읍지(濟州邑誌)』에 기록된 '수처(水處)'라는 명칭 역시 물을 공급하는 못에 해당되며, 빗물이 지하로 빨리 침투되어 버려 펴수(乏水) 상태를 보이는 중산간 지역에서 둔마장의 입지를 결정할 때 물을 구할 수 있는 위치인가는 가장 우선적인 고려조건이었을 것으로 판단됨.
- 목마장의 못은 관속(官屬)을 동원하여 옛 못을 다시 파거나 혹은 새로 하천에 보를 쌓아 확보했음.
- 「제주삼읍도총지도」에 의하면, 10소장 중 마필 사육수가 가장 많았던 5소장과 6소장에 못의 수가 가장 많이 나타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위치가 상세히 표시되고 있음(그림 III-46).
- 못들은 대체로 하천변이나 오름(측화산) 주변에 분포하기도 했으며, 하천변과 오름 부근에 있는 못들은 우마들의 쉼터로 활용되었음.

49) 『성종실록』, 성종 24년 8월 정묘 ; 『탐라순력도』의 「산장구마」, 「제주삼읍도총지도」, 남도영의 『한국마정사』(1996, 한국마사회 마사박물관)에 의함.

50) 『태종실록』, 태종7년(1407) 3월 계미.



〈그림 III-46〉 둔마장, 피우가, 랑(梁), 잣성으로 이루어진 국마장
(『제주삼읍도총지도』(1730년대 이후), 제주자연사박물관소장)

(5) 장통(牆桶)

- 장통이란 목장에서 말의 건강상태 확인과 낙인을 하기 위해 선정해온 말들을 일시적으로 가두는 둥글고 오목한 장소로, 비가 오면 물이 고이기도 했음.

- 한림읍 금악리에서는 아래와 같이 장통을 ‘국마통(國馬桶 또는 國馬洞)’으로 불렀음(『한림읍지』, 1999).

목장에 방목 중인 말을 한 마리씩 튼튼한 밧줄로 묶고 공마선까지 실으려면 목장주변에 사는 장정들을 동원하여 인위적으로 말을 걸리는데 힘의 소비가 많았다. 말에 줄을 걸리는 데 작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말들을 한 곳에 가두어 두는 장소가 ‘국마통(國馬桶)’이다. 국마통의 면적은 1800 여 평이고, 주변에는 말의 목

에 줄을 걸리는데 필요한 높은 돌과 흙을 쌓아 높은 동산을 만들기도 하며 밭의 입구에서 막다른 곳까지 통로는 좁아 졌다 넓어졌다 하여 통로에서 끝까지 서서히 걸어가게 하였다. 국마통 입구에는 장정들이 잠시 머무는 숙소 및 주막용으로 지은 집 자리가 남아있었다. 일단 밭 안으로 들어간 말은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쌓은 축장의 밑넓이는 지름이 약 2m 정도이며, 현재 이곳은 주민들에 의해 “말걸리는 촌남 밭”으로 불리고 있음.⁵¹⁾

(6) 몰테우리

○ 테우리는 제주어(濟州語)로, 목축에 종사하는 목자(牧子)를 의미함.

- ‘모으다’는 뜻을 가진 중세 몽골어에서 유래한 용어임.⁵²⁾
- 우마생산에 종사하던 사회 최하층인 노자(奴子)가 몽골 지배기간에 몽골에서 파견된 목호의 영향을 받아 공민왕 16년부터 ‘노자(奴子)’를 ‘목자(牧子)’로 바꾸었다고 함(남도영, 1996).
- 테우리들은 전문적인 목축기술을 가지고 목축목화를 만들어낸 주체들로, 방목지에 위치한 오름과 하천, 동산의 이름 그리고 우마 이동로와 관련된 주요 지명을 손끝 보듯이 알고 있었으며, 또한 바람을 막아줄 수 있는 오름의 위치, 물을 먹일 수 있는 용천수나 하천의 위치 그리고 기름진 풀이 자라고 있는 위치를 경험적으로 인지하고 있었음.

○ 조선시대 목자들은 관노(官奴)·촌민·사사노(寺社奴), 양인(농민)에서 충원되었으며, 거주이전과 전직이 금지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들의 역은 육고역(六苦役)⁵³⁾에 해당될 정도로 기피대상이었음.

- 16세부터 60세까지 국영목장의 국마생산과 관리에 종사했으며, 그

51) 한림읍지편찬위원회(1999), 『翰林邑誌』, pp.1185-1186.

52) 박원길(2005), 「제주 습속 중의 몽골적 요소」, 『제주특별자치도 추진과 탐라국 독립성 상실 900년 회고』, 사단법인 제주학회, p.72.

53) 6고역에는 대체로 잡녀(미역채취), 포작(전복채취), 목자(우마관리), 과원직(꿀채배), 선격(진상품 운반), 답한(관청땅 경작) 역이 해당된다.

직은 아들에게 세습되었음.

- 실적에 따라 쌀 또는 포목으로 포상하는 제도가 있었으나 동색마(同色馬) 부담⁵⁴⁾ 등 수많은 고역이 가해졌으며, 목장 내 또는 목장 인근 마을에 거주했음.⁵⁵⁾
- 목자들은 조선후기 호적중초(戶籍中草)에도 등장하며, 하모리 호적중초에 기록된 강성발(姜成潑)은 영조 26년(1750) 설치되었던 가과도별둔장⁵⁶⁾ 그리고 순조 14년(1813) 도순리 호적중초에 등장한 천영관(天永寬)은 8소장의 목자였음.

○ 한경면 두모리 출신의 6소장 목자 고윤문은⁵⁷⁾ 부모에 대한 효행이 알려져 복호(復戶)⁵⁸⁾된 인물로, 『순조실록』에 등장함.

○ 사료로 본 조선시대 목자들의 생활상

◎ 『조선왕조실록』

- 『태종실록』(1407) : 섬에서 목축을 하는 목자들에게 섬 안에 초옥(草屋) 서너 채를 짓게 하여 말들에게 추위와 더위를 피하게 했다. 매년 야초를 베어 쌓아 놓아 풍설과 기한(飢寒)에 대비하도록 했다.⁵⁹⁾
- 『세종실록』(1434) : 목자들은 관마를 5일마다 교체하여 번을 들었으며, 이때 인계받은 말들의 숫자를 세어 다음에 번을 서는 목자에게 넘겨주었다.⁶⁰⁾

54) 동색마란 목자가 관리하던 말이 죽게 될 경우, 마피를 벗겨 관청으로 가져가 마적에 기록된 말의 모색과 동일해야 변상을 면해주던 제도로, 관에서는 여러 이유를 붙여 해당 목자에게 변상을 시켜 목장들에게 부담을 주었다.

55) 대정현 지역의 호적중초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東城里[안성리], 自丹里[덕수리], 今勿路里[사계리], 中文里(중문리)에 마감, 군두, 목자가 거주했던 것으로 나타났다(자료: 김동전(1991), 「19세기 제주 지역의 신분구조와 직역의 사회적 의미」, 『19세기 제주사회연구』, 일지사, pp.14~16).

56) 「嘉慶12年(1807)下慕里戶籍中草」, 『濟州下慕里戶籍中草(Ⅰ)』, 탐라문화연구원, 2000, p.79 : “第四戶加波島牧子 姜成潑 年二十八己亥本晉州.”

57) 효자 고윤문의 비석은 현재 한경면 두모리 도로변에 세워져 있다. 고윤문에 대해서는 『한경면역사문화지』(2008, pp.161~162)가 참조된다.

58) 복호(復戶)는 조선 시대에 충신과 효자, 군인 등 특정한 대상자에게 보상으로 부역이나 조세를 면제하여 주는 것을 의미한다.

59) 『태종실록』권13, 태종7년(1407) 3월 29일(계미).

◎ 「濟州牧場救弊完文」(1860년)⁶¹⁾

- 천하고 괴로운 잡역으로는 목자들이 심한 것은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 깊은 산 막다른 골짜기 가운데 멋대로 놓아둔 말들을 밤낮으로 돌보아 기르며 생업을 전부 놔두는 측은함은 이루 말할 수 없다. 말을 잘못 잃어버리기라도 하면, 모두 목자들에게 대신 징수시켜 항상 징수하는 명목이 간혹 3, 4필에 이르게 되니 그 재산을 탕진하게 되고 징수가 그 친족에게까지 미치게 됩니다. 비록 풍족한 백성이라 할지라도 한번 그 역에 들어갔다가 거지가 되고 난 다음에야 끝나기 때문에 백성들은 모두 싫어 피함이 죽으러 가는 곳처럼 보고 있습니다.
- 點烙(우마를 점검하여 목장의 낙인을 찍는 일)을 할 때에는 여러 가지 빌미를 대어 의례 빚을 지게 되며, 封進을 할 때에는 情費(납세 때 백성이 관리들에게 인정으로 주는 잡비)가 여간하여 元料 아래 응하게 하는 것이 營屬(營의 관속)들의 호주머니로 들어가서 목자들은 살아갈 밑천에 대책이 없어 기아에 허덕이게 되어 심지어 馬畜을 도살하는 폐해까지 있게 되어 사정이 역시 서글픕니다. 馬政이 비록 말을 중히 여기겠지만 저절로 길러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말을 기르는 자가 목자라 한다면, 목자를 생각하여 보호하는 것이 바로 마정을 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영속들의 여러 가지 토색질을 한꺼번에 금지해야 할 것이다. 본 목장의 채소밭을 구역으로 그어주고, 여름과 가을에 주는 料米(급료로 주는 쌀)의 上下는 관례를 뽑아 구휼함을 고려해서 목축을 돌보는데 뜻을 두도록 해야겠습니다.

◎ 金仁澤(1817.6~1820.4)의 『丁丑六月日 大靜縣衙中日記』

- 6월 18일 맑음 : 현의 백성 金次童을 곤장 열여섯 대를 치고 강팍(降笞)하였다. 목자가 말을 도적질하여 팔았다가 마침내 발각된 죄인 것이다.

60) 『세종실록』권64, 세종16년(1434) 5월 1일(정축).

61) 제주문화유적지관리사무소가 2007년에 발간한 「濟州牧場救弊完文」(『도영절차·영해장수록』, 제주목사료집 제2책) 중 목자들의 생활상과 생활개선 대책 부분을 발췌하여 요약했음을 밝힌다.

- 6월 21일 : 마감 두 사람과 군목 두 사람에게 곤장 일곱 대를 쳤다. 공마를 잃어 버렸기 때문이다.
- 7월 22일 : 팔소장의 군목 두 놈을 각각 곤장 다섯 대를 쳤다. 목장의 말을 잘 돌보지 아니하여 죽었기 때문이다.
- 7월 24일 : 무릇 제주의 풍속은 사월 초가 되면 각 목장에 우마를 몰아 들였다가 십일월 초가 되면 반드시 목장에서 내보내는 데 산야에 흩어진 우마들이 혹시 몰래 인가로 내려와 곡식을 해친다. 그래서 들로 몰아 내에도 어떤 때는 담을 뛰어 넘어 타인의 밭에 들어감으로써 밭마다 돌로 담을 쌓기도 하고 나무로 울타리를 만들기도 하나 만약 견실하지 아니하면 반드시 우마에게 곡식을 먹히고 만다.
- 8월 18일 : 목자 한명에게 곤장 석대를 쳤다. 군역을 피하려 하였기 때문이다.
- 9월 19일 : 모동장의 우감을 곤장 열대를 쳤다. 沓場 안에서 목자의 채전을 탈취하였고, 국마로 하여금 私田을 답전하였기 때문이다. 踏田(발블림)이라는 것은 이 섬의 농사짓는 법이 모든 곡식 씨를 뿌린 뒤에 말이나 소똥으로 밝은 뒤에 싹이 나게 하는 고로 우마를 기르는 자는 많으면 이백 마리, 적으면 오십 마리까지 기르므로 부자는 반드시 우마가 많다. 군두 한 사람을 곤장 다섯 대를 쳤다. 간계를 알면서 고하지 아니한 죄를 물었다.
- 9월 28일 : 모동장의 군두 한 놈을 곤장 여덟 대를 쳐서 목자로 강편시켰다. 목장 소들이 곡식을 먹어 버렸기 때문이다.
- 10월 19일 : 모동장의 목자 한 놈에게 곤장 아홉 대를 쳤다. 場監을 후욕한 죄⁶²⁾

(7) 낙인(烙印)과 귀표

○ 방목중인 우마를 식별하기 위해 행해진 낙인(烙印)은 자형이나 도형

62) 김인택, 「丁丑六月日 大靜縣衙中日記 金仁澤」(『귀양객들이 낀이 스민 大靜고을』, 반석).

이 새겨진 쇠붙이를 달구어 가축의 대퇴부에 찍는 일종의 쇠도장으로, 조선시대 국마장에서는 천자문 글자인 천(天), 지(地), 현(玄), 황(黃) 등을 낙인자(烙印字)로 이용했으나, 개인이 사육하는 말들의 낙인에는 천자문 글자를 사용할 수 없었음.

- 낙인은 말을 잃어버리거나 농작물에 피해를 입혀 분쟁이 일어났을 때 목장별, 마을별, 개인별 소유관계를 밝혀주기 위해 행해진 것으로, 다음의 사료들은 『조선왕조실록』에 등장하는 낙인 관련 기사로, 낙인의 전통은 고려 말까지로 올라갈 수 있음을 보여 줌.

- 공사간 목장들에 품질 좋은 숫말은 부(父)라는 낙인을 찍어 육지로 나가는 것을 허락 치 아니한다.⁶³⁾
- 구례에는 제주의 흥리인(興利人 : 무역상인)이 마필을 교역할 경우에는 목관에서 반드시 문안을 상고하여 ‘시(市)’자의 도장을 낙인하여 육지로 내보내게 하였다. 근래에는 도장(낙인) 이 없는 말은 잡아서 고발하라는 법령이 없어 인표(印標)가 없이도 쉽게 육지에 나갈 수 있어 도적이 날로 불어 뒷날의 폐단을 막기 어렵다.⁶⁴⁾



〈그림 III-47〉 낙인
(이영배, 1992, p.154)



〈그림 III-48〉 몽골의 목축문화

63) 『세종실록』 권61, 세종15년(1433) 9월 9일.

64) 『성종실록』 권14, 성종3년(1472) 1월 30일(정묘).

○ 낙인을 찍는 장소는 대부분 대퇴부였으며, 낙인은 무쇠를 이용하여 자기의 성씨나 마을별 또는 문중별로 정해진 약자를 사용했음.

- 낙인을 불에 달구고 마소의 네발을 묶고 넘어뜨린 다음 이것을 대퇴부에 지켰으며, 한 번에 성공해야 우마의 고통을 최소화할 수 있었음.
- 어린 새끼와 숲 속에서 방목하는 ‘곶말’(野馬)·‘곶쇠’(野牛) 그리고 상산(上山)이나 공동목장에 풀어놓는 다 자란 소들에게도 낙인을 했음.
- 낙인의 실례를 보면, 쇠꼬챙이 끝에 두 글자를 새긴 것과 한 글자를 새긴 것으로 나타나며, 두 글자는 마을이나 단체별로 사용하는 자형으로, 리명(里名)을 새기고 있으며(그림Ⅲ-47), 한 글자를 새긴 것은 가문별, 개인별로 고유의 글자를 정하여 사용하는 경우이고, 마을 단위의 낙인은 마을의 한자명을 줄여 만들었음.

○ 마을별 낙인 사례

- 애월읍 고성마을에서는 개인별, 성씨별 또는 마을전체가 공동으로 낙인을 찍었으며, 리명의 첫 글자인 ‘고(古)’자 낙인을 만들어 공동으로 이용했음.
- 서귀포시 색달 마을에서는 이른 봄에 다간(두살짜리 소)과 이수메(두살짜리 말)에 낙인을 찍었음.
- 남원읍 하례마을에서는 낙인 글자로 己·士·卜을 이용함.⁶⁵⁾
- 구좌읍 한동마을에서는 巾, 仁, 凡 자를 사용했음.⁶⁶⁾
- 애월읍 상가리에서는 양력 3월 범날을 골라 上加 낙인을 했음.

○ 우마의 귀 일부를 잘라 자기 우마임을 나타내는 귀표를 했음.

- 남원읍 하례마을에서는 귀에 V, W를 했으며, 상가마을에서는 ‘귀표 왓’에서 음력 10월경에 귀표를 했음. 귀표는 송아지 잃어 버리지 않

65) 남원읍 하례리 마을회(1999), 「下禮마을」, 서울문화사, p.78.

66) 북제주군 구좌읍 한동리(1997), 앞의 책, p.220.

기 위한 조치로, 주인만 아는 표시를 했음.⁶⁷⁾

- 애월읍 상가마을에서는 농번기와 방목이 끝나는 음력 10월 첫번째 상사일(上巳日:뱀날)에 귀표고사를 지냈음.
- 소 임자들은 형편에 따라 고사장소에 제물을 차리고 제사를 행했으며, 제물은 돌레 떡, 오메기 떡 그리고 술 정도였음.⁶⁸⁾
- 도려낸 귀 한 부분을 구워서 제물로 삼는 경우도 있었고, 귀표고사는 전적으로 남성들에 의해 이루어졌음.
- 상가마을에서는 낙인을 할 때도 고사를 지냈음. 낙인 하는 날 하루 전에 메(산디쌀밥), 구운 생선 한 마리, 술 한 되 등 음식을 준비하며, 제사는 낙인을 찍을 말에 걸릴 밧줄을 원형으로 ‘사려’(도려내다) 그 위에 음식을 차려 놓고 메(밥) 한 ‘낭푸니’에 수저를 꽂아 지낸 후, 주위에 ‘크시’를 한 다음 낙인고사를 지냈으며, 의례가 끝난 다음 4인이 1조가 되어 낙인을 했음.⁶⁹⁾
- 상가마을은 제주도 목축문화의 원형을 많이 간직한 대표적 마을로, 앞으로 이 마을을 대상으로 한 심도 있는 조사가 요구됨.

(8) 거세(去勢)

- 거세하기를 제주어로는 ‘불알까기’라고 하며, 말을 거세할 경우, 성질이 온순해져 사양관리가 쉽고, 교미능력이 상실되어 암수의 혼용사역(混用使役)이 가능하나, 말 본래의 성질을 잃어버렸음.
- 낙인과 거세는 몽골에서 전해진 목축문화에 해당하며, <그림 III-48>은 2010년 몽골지역 답사 시 구입한 그림으로, 몽골의 낙인과 거세 문화를 표현함.
- 거세에 대한 기록은 아래와 같이 태종 7년(1407)에 등장하며, 이를 통해 거세술은 이미 고려시대에 원이 관할했던 목장들에서 행해지

67) 애월읍 상가리 노인회장 김재문씨와의 전화인터뷰 자료이다(2009년 5월 25일 18:30).

68) 돌레 떡은 새로운 발버로 만들고, 오메기 떡은 새 줍쌀로 빚는다.

69) 애월읍 상가리, 앞의 책, pp.298-300.

다가 조선 시대에도 전해졌다고 볼 수 있어 결국 거세술은 몽골에서 조선과 제주로 전파된 목축문화라고 할 수 있음.

- 무릇 양마를 가지고 있는 자들이 대개 말을 거세하여 종자를 없애는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임의로 거세하지 못하게 했다. 부득이하게 병이 있어 거세해야 할 경우, 서울에서는 병조에 그리고 각 지방에서는 수령에게 알려 그 허위와 사실을 상고하여 낙인한 후에 거세하도록 한다.⁷⁰⁾

(9) 연중방목

- 말은 연중 방목되었으며, 방목(放牧)이란 초지와 산지에 우마를 놓아 기르는 목축형태로, 중산간의 목장지대에서 전형적으로 이루어진 목축 방법임.
 - 강수량이 적은 반건조 초원지대에서 풀과 물을 찾아 가축을 이동시키는 유목(遊牧)과는 성격이 다름. 즉, 온난 다습한 기후지역인 제주도의 경우 연강수량이 많을 뿐만 아니라 특히 중산간 목장지대는 서늘하고 목초가 잘 자라는 생태환경이기 때문에 수초를 찾아 떠나는 장거리 이동보다는 정해진 공간범위 내에서도 충분히 가축을 놓아기르는 방목이 가능했음. 물이 부족했을 경우 용천수가 있는 해안지대로 우마들이 이동하는 경우는 있었음.
- 해안지대에서도 취락지와 농경지 인근에 있는 풀밭 또는 휴한지(休閑地)에 농경용 또는 운송용으로 이용하는 말을 방목했음. 말은 겨울철에도 놓아기르기 때문에 제주의 전통 가옥구조에는 소를 키웠던 ‘쉐막’은 존재하나 ‘말막’은 거의 나타나지 않았음.
- 말을 연중 방목하는 데 있어 눈 덮인 겨울에 말들은 눈을 치우고 마른 풀을 먹으며, 눈이 심하게 내리는 경우에는 ‘말통조림’이 발생하여 말들이 죽는 경우가 있었음.

70) 『태종실록』 권13, 태종7년(1407) 3월 29일(계미).

○ 제주마의 습성 : 말통(馬筒) 조림

- 테우리들은 연중 방목하는 말들의 ‘말통 조림’을 예방하기 위해 겨울철에 산야의 굴실(窟室 ; 궤에 해당)에서 살기도 했음.
- 함박눈이 내려 산야에 눈이 쌓이기 시작하면 말들은 지레 겁부터 집어 먹고 끼리끼리 몸을 붙여 서서 밤새도록 발을 구르며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다보니 그곳만 눈이 녹아 커다란 원형을 이루게 되고, 말들은 그 원형 안에 간혀 꼼짝 못하고 추워 죽고 마는 데 이것을 속칭 ‘통절임’이라고 했음.
- 이때 테우리들은 준비해간 명석을 펼쳐 바깥쪽과 통절임 현장을 연결해 말들이 명석을 밟고 통절임 현장 밖으로 빠져나올 수 있도록 해야 했음.⁷¹⁾

(10) 밭밟기(踏田)

“요놈의 똥생이들아 간세마랑 신난디 만 즈근즈근 흔저 블라 똥 밭 바깳디 나장 출 먹으라”⁷²⁾

- 밭 밟기는 중산간 지대에도 행해졌던 농경문화이면서 우마를 이용했다는 점에서 혼합목축문화의 범주에 포함시킬 수 있음.
- 제주지역은 건조한 토양환경으로 인해 씨앗을 파종해도 바람에 날려 버리기 때문에 우마들을 농경지로 들여보내 토양을 밟아 주어야 했음.
- 이를 진압농법(鎮壓農法)이라 하며, 밭을 밟아주면 토양입자 간격이 좁아져 수분증발을 막는 효과가 있어 밭아에 도움을 줌.
- 몽골에서는 전혀 찾아볼 수 없었던 목축문화요, 농경과 목축을 병행했던 전통 제주사회에서 찾아볼 수 있었음(그림 49).

71) 김인호(1997), 『한국제주역사문화뿌리학』(상), 우용출판사, p.183.

72) 구좌읍 한동리(1997), 『둔지오름(漢東里誌)』, p.221.

○ 밭 밟기 전통은 1411년 『태종실록』에도 등장할 정도로 역사가 오래며, 제주도민의 전통지식(傳統知識)이었음.

- 화산회토(火山灰土)인 제주의 토양은 쉽게 푸석하고 들뜨기 때문에 바람이 불면 흙이 날려버려 여름철 밭에 뿌린 잡씨들도 흙과 함께 날려버려 여름 농사를 망쳐 버리는 경우가 많아 제주도민들은 경험적으로 우마를 이용해 땅을 밟아주면, 토양 속에 있는 수분증발을 막을 수 있다고 믿어 우마를 이용해 밭 밟기를 한 것임.



〈그림 Ⅲ-49〉 말을 이용한 밭 밟기
(제주특별자치도(2009), 『1900~2006 사진으로 보는 제주역사1』, p.106)

- 조선시대에도 우마를 이용한 밭 밟기를 행했음을 다음 사료에서 확인되며, 해마다 농사철이 되면, 공사(公私)의 말들이 피곤하게 되고, 목자들이 농사철에 사사로이 국마를 개인 농경지로 몰고 들어가 약간의 보상을 받고 밭 밟기에 이용해 결국 국마장의 말들에 피해를 주고 있다는 내용임.

제주도 토성은 푸석하고 들떠서 곡식을 파종하려는 자는 말과 소를 모아 그 땅을 밟아 땅이 반드시 단단해진 뒤에 종자를 뿌리니 공사의 말들이 이 때문에 피곤해 진다. 공가(公家)에서 비록 금령이 있으나, 몰래 목자와 짜고 말을 병들게 합니다.⁷³⁾

- 애월읍 남읍마을에서 행해졌던 밧블리기는 6월절을 전후해 3일 안에 여름작물인 조를 파종한 후 이루어졌음.

- 제주의 밧은 ‘뜯땅’이므로 우마를 이용해 잘 밟아주어야 하는데 우마를 빌려 밧을 밟을 때는 밧 밟는 장남(테우리)들을 잘 대접해야 하는 풍습이 있었으며, 만일 우마가 없으면, 잎이 무성한 나뭇가지를 베어 넓적하게 한 후 단단히 동여 멘 ‘섬피’를 끌고 다니며 밧을 밟아주었음.⁷⁴⁾

(11) 마조제

- 조선시대 목축의례는 지방관아와 민간에서 행해졌음. 제주지역에서는 지방관아가 주체가 되어 행해졌던 목축의례에는 마조제(馬祖祭)와 공마해신제(貢馬海神祭)가 있었음.⁷⁵⁾

- 마조제는 말의 조상인 방성(房星)에게 지내는 제사로, 한양의 살곳이 목장에 마조단(馬祖壇)을 두어 봄·여름·가을·겨울, 네 차례 걸쳐 말의 건강을 기원하며 지내던 제사였음.

- 마조제는 중춘(仲春)에는 말의 조상인 천사신(天嗣神), 중하(仲夏)에는 처음으로 말을 길들여 가축화한 선목신(先牧神), 중추(仲秋)에는 마구간의 토지신인 마사신(馬社神), 중동(仲冬)에는 말의 건강을 지켜주는 마보신(馬步神)에 대해 제사를 행했음.⁷⁶⁾

73) 『태종실록』 권22, 태종11년(1411) 7월 27일.

74) 남읍향토지편찬위원회(2006), 『남읍향토지』, p.399.

75) 좌동렬(2010), 「전근대 제주지역 목축의례의 역사민속학적 연구」, 제주대 사학과 석사논문, pp.6-19.

76) 마조제에 대해서는 고문석·장덕지·양성룡(2013)이 발간한 『제주말문화』(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난지축산시험장, pp.191-195)에 자세히 소개되어 있다. 여기에서는 지면관계상 좌동렬(2010)과 장덕지(2013)의 연구결과를 일부 요약했음을 밝힌다. 장덕지(사)제주마문화연구소장은 최근 제주마 문화에 대한 연구영역을 확대하며 연구결과를 발표해 후학들의 연구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

- 마조제는 살곶이 목장 내에 있었던 마조단(현재 한양대학교 터에 위치함, 그림 III-50)에서 행해졌음.
- 『세종실록』(권6, 세종1년 12월 3일)에는 “사복시의 아전들이 마조제를 빙자해 살곶이 목장에서 소를 잡고, 기생을 데려다 방자하게 잔치를 벌였습니다.”는 기사에서처럼 무당들과 기생들이 같이 참여해 마조신을 즐겁게 하는 제사로 행해졌음.

○ 제주의 마조단은 KAL호텔 입구에 있었다고 전해짐(그림 III-51).

- 마조단이 제주도에 설치된 시기는 1852년으로, 국마장이 설치되었던 1430년대보다 400년 늦게 등장했음.
- 2013년과 2014년 (사)제주마연구소(대표 : 장덕지)에서 마조제를 복원해 들불축제 행사장에서 실연했음(그림 III-52).



〈그림 III-50〉 한양대학교
내 마조단터(현지촬영)



〈그림 III-51〉 제주시
KAL 인근 마조단터



〈그림 III-52〉 마조제
실연장면(현지촬영)

(12) 공마해신제

- 진상하는 공마를 실은 배가 출항하기에 앞서 수령(제주관관, 현감)이 순항을 기원하며 해신에게 지내던 제사였으며, 항해에 적당한 바람을 기원하고, 공마선이 제주해협을 무사히 건너 빠른 시간 안에 육지(전라도 남해안)에 도달하길 기원하며 지내던 의례였음.⁷⁷⁾

77) 좌동렬, 앞의 글, p.13 ; 고문석 · 장덕지 · 양성룡(2013), 『제주말문화』, 농촌진흥청 국립 축산과학원 난지축산시험장, pp.196-199.

(13) 말총공예

- 말에서 생산되는 꼬리털인 말총은 탕건과 갓 등을 생산하는 재료로 이용되었음.
- 『현종실록』에는 제주목사를 역임했던 충청 감사 이익한(李翊漢)이 제주의 실상에 대한 건의문 중 “비록 여자라도 반드시 종립(驢笠 : 기병이 쓰는 모자임)을 만들어 육지에 내다 팔아먹고 살고 있다”는 기록이 등장함.⁷⁸⁾
- 조선시대 제주도에는 국마장과 개인목장에서 말(馬)이 다수 생산되었기 때문에 갓모자(총모자)와 탕건, 망건을 만드는 말총을 쉽게 구할 수 있었음.
- 말총을 이용한 갓 모자 만들기는 제주시 도두·이호·외도동, 망건은 조천·신흥·함덕, 탕건은 화북·삼양·신흥·도련 등지에서 행해졌음. 쉼(소)의 꼬리털인 쉼총으로 만들었던 사례도 있었음.⁷⁹⁾

(14) 말똥줍기

- 애월읍 남읍리 주민들은 가을철 출 비는 일이 끝나면 공동목장에 있던 우마를 데리고 온 다음 마을인근의 출 밭에 방목시킨 다음, 주민들은 ‘말똥탱이’를 둘러메고 산과 들에 나가 말똥을 줍는 풍습이 있었음.
- 말 똥을 잘 말려서 겨울 동안의 땀감 또는 온돌방의 연료로 쓰기 위한 것이었음.
- 말은 초식동물이기 때문에 다른 짐승과 달리 똥이 깨끗하며, 일단 불이 붙으면 한꺼번에 타버리지 않고 서서히 탈 뿐만 아니라 화력이 세기 때문에 ‘굴묵’을 때는 연료로 이용되었음.⁸⁰⁾

78) 『현종실록』 권8, 현종5년(1664) 3월 26일(무자) : “雖女子必作驢笠賣於陸地而食矣.”

79) 김순자(2006), 『와치와 바치』, 도서출판 각, pp.15-23.

80) 남읍향토지편찬위원회(2006), 『남읍향토지』, p.400.

(14) 물방애

- 제주 여러 지역에 있었던 ‘물방애’는 탈곡한 보리나 조 등을 도정할 때 쓰는 ‘연자매’에 해당하고, 마을마다 20~30호 당 대체로 1개씩의 ‘물방애’가 존재했었으며(그림 III-53), 현재 애월읍 하가리에 복원되어 남아 있음.
- 제주에 ‘물방애’가 많았던 것은 밭농사와 관련 있음.
 - 제주지역은 토질조건으로 인해 벼가 아닌 밭작물 즉, 껍질을 벗기는 힘든 보리·피·조 등 잡곡을 주로 재배했기 때문이며, 이들의 껍질을 벗기기 위해서는 ‘물방애’가 필요했음.
 - 육지에서는 소를 이용해 주로 방애를 돌렸으나 제주도에는 말을 이용해 방애를 돌렸음.⁸¹⁾



〈그림 III-53〉 물방애 돌리는 조랑말
(제주특별자치도(2009), 『1900~2006 사진으로 보는 제주역사1』)

81) 천진기(2006), 『한국말민속론』, 한국마사회 마사박물관, pp.316-317.

2) 소 문화[牛文化] 원형

(1) 계절적 방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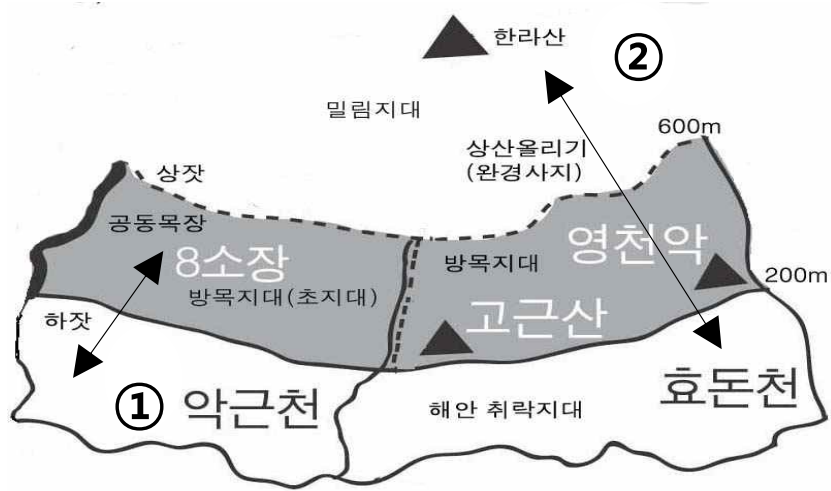
- 제주지역에서 소는 마을공동목장이나 오름(측화산)에 봄(또는 초여름)부터 가을까지 방목하다가 풀이 시들어가는 상강(霜降)을 전후해 집으로 몰고 오는 계절적 방목형태로 길렀으며, 겨울철에는 쉼막에서 출(糶)을 주며 길렀음.
- 구좌읍 한동마을에서의 경우, 하절기[靑草期]에 소를 방목하고 동절기[枯草期]에는 하산시켜 농가에서 사육했음. 봄부터 가을까지 중산간 초지대에서 번치기방목을 했으며, 이것은 목축농가들이 순번을 정해 윤번제로 방목을 하는 것으로, 이때 나무패⁸²⁾를 돌려 미리 당번임을 알렸음. 번치기 당번은 환축(患畜) 발생 유무와 마릿수 확인, 식생 생육상태에 따른 우군(牛群) 이동 그리고 급수장까지 우군을 이동시키는 일 등을 담당했음.⁸³⁾
- 서귀포시 하효마을에서는 상жат과 하жат 사이의 정해진 구역에서 관리인을 두어 착호비(着護費)를 받아 우마를 방목했으며,⁸⁴⁾ 제주시 월랑마을에서 소의 번은 주민들의 일상사로, 목장에 소들이 올라가기 전 봄철에 행했음.⁸⁵⁾
- 계절적 방목은 겨울철이 온난한 해안 취락지역에서 건초(藁)를 이용해 우마를 기르다가 새로운 풀이 돌아나기 시작하면, 중산간 목초지(마을공동목장)으로 이동시켜 방목하는 형태로(그림Ⅲ-54), 다른 지역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제주도적 목축형태였음.

82) 나무패는 축주 명단을 기록하고 방목, 관리의 순번을 정해 놓은 나무 조각이다.

83) 북제주군 구좌읍 한동리, 앞의 책, pp.218-220.

84) 하효동 마을회(1987), 「下孝誌」, 대신인쇄사, p.30.

85) 암소 번(母牛番)은 대체로 번 당 50두(송아지 포함)씩 5개 번이 편성되었고, 부렁이(種牛) 번은 번당 20두 정도해서 5개 번으로 구성하였다.



〈그림 III -54〉 해안과 고산지대를 연결하는 목축형태

(①은 해안마을과 공동목장간의 이동, ②는 해안마을과 한라산 정상부간의 이동(‘상산에 쉼 올리기 방목’에 해당함(강만익(2006), 『제주도의 목축문화와 그 유적』, 『탐라문화권 정비 기본계획 수립보고서』, 제주문화예술재단, p.116))

(2) 윤환방목

- 윤환방목(輪換放牧)은 마을공동목장에서는 목초지를 일정한 순서에 따라 이동하며 목축하는 형태로, 제주시 해안공동목장에서 행해 졌던 윤환방목을 모식도(그림 III -55)⁸⁶⁾를 보면 다음과 같음.
- 암소통(방목구역)과 수소통을 구분한 다음, 각 목구(牧區)마다 구분하기 쉽게 ‘진행이통’, ‘막뒤술통’이라는 명칭을 붙였음.
- 목감이 그림 A, B 지역에서 소를 방목할 때는 <테우리막 1>에서 입시 기거 하며 초지와 우마를 관리하고, C, D에서 방목 시에는 <테우리막 2>에서 관리했음.
- 윤환방목은 곧 A↔B, C↔D 형태로 진행되었으며, A와 B 그리고 C와 D사이에는 돌담을 쌓아 경계선으로 활용했음.

86) 강석진씨(80세, 제주시 해안동) 면담 자료(2010년 2월 17일 11:00).

<월산이 물>■(용천수) 암소 통(송아지 포함) (A) □ 급수장 □ 테우리막1	<진행이 통> 암소 통(송아지 포함) (B)
<막뒤술 통> 수소 통 (C) □ 급수장	<굴밭 통> 수소 통 (D) □ 급수장 □ 테우리막2
▲ 어승생악	

〈그림 III-55〉 해안 공동목장 윤환방목 모식도

- 서귀포시 하원동 공동목장에서 윤환방목은 목장을 가로지르는 중산간 도로와 도순천 지류 등 지형지물을 이용해 목장을 6개 구역으로 나누고, 소들을 한 구역에서 5일씩 풀을 뜯게하면서 다른 구역으로 이동시키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음.⁸⁷⁾

- 윤환방목은 공동목장내 초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어 대부분의 마을공동목장에서 행해진 대표적인 방목방법에 해당함.

(3) 목감과 케파장

- 목감(牧監)은 공동목장조합에 보수를 받고 한시적으로 고용되어 공동목장 내 방목우마를 관리했던 목축전문가였음.
- 과거 애월읍 고성리 마을공동목장조합에서는 목감에게는 방목우마의 두수에 따라 보리쌀로 값을 지급하였는데 이를 ‘번곡’이라 했음.
- ‘번곡’은 탈곡한 보리로 하였는데 목장에 방목한 우마 소유주가 조합원인 경우에는 녀 되(소두 한말), 비조합원인 경우는 여덟 되, 그리고 어린 송아지를 방목한 경우에는 그 절반을 목감급료로 주었음.⁸⁸⁾
- ‘케파장’은 『제주어사전』(2009)에 의하면, 방목지에 풀어놓아 먹이는 소를 관리하는 사람이라고 정의하고 있음.⁸⁹⁾

87) 『제민일보』 2014년 4월 14일, 「함심으로 일궈 지켜온 마을의 공동유산」.

88) 고성리 향토지편찬위원회(1993), 『고성리지』, pp.120-160.

- ‘케’는 마을조직이 공동으로 관리하는 땅으로, 대체로 목축지 또는 채초지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음.
- 한경면 고산리의 사례와 같이 해안지대에 있는 마을소유의 공유지(‘케’)에 방목했던 소들이 농경지로 들어가는 것을 감시하기 위한 사람을 케파장이라고 부르기도 했음.⁹⁰⁾

(4) 밭갈새 · 번새 · 밭새 · 샛새

- 전작지대에서 수소인 ‘밭갈새’(耕牛)는 중요한 농경수단이었으며, 수소는 인내심이 강하고 힘이 세기 때문에 돌과 억새의 뿌리가 많은 토양 환경에서 밭갈이에 유용한 가축이었음.
- 밭갈새는 힘든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약 30kg 안팎의 암석에 구멍을 뚫어 만든 ‘곰돌’(‘코돌’)을 ‘멍에’에 매달아 끌게 하면서 훈련시키거나(그림 III-56), 해수욕장에서 소에 쟁기를 씌어 밭갈이 연습을 시켰음(그림 III-57).



〈그림 III-56〉 밭에서 농우 길들이기
(한림읍 동명리, 1994년 가을/강만보 촬영)



〈그림 III-57〉 해변에서 밭갈이 연습 장면

89) 제주특별자치도(2009), 『개정증보 제주어사전』, p.830.

90) 2013년 6월 한경면 고산리 출신의 제주외국어고등학교 김창욱 교장선생님과의 인터뷰 자료임.

- 밭갈새의 경우, 자갈이 많은 애월지역은 힘이 센 수소를 밭갈이에 이용한 반면에 토양에 자갈함양이 적은 구좌, 성산, 남원지역에서는 암소를 이용하는 비율이 높았음.⁹¹⁾
- ‘번쉐’는 농한기에 이웃끼리 순번을 정해 각 호의 소를 몰아다가 목장에서 먹이는 목축방식을 의미함.
 - 제주에서 ‘조블리기’가 끝나면, 소를 직접 농사에 이용할 일이 없어지므로, 이웃끼리 의논해서 ‘번쉐’를 하였음.
 - 대개 10~20호가 합의해서 소를 돌보는 당번을 정하면 번쉐가 시작됨.
- ‘멤쉐’는 다소 경제적 여유가 있는 집에서 가난한 농가에게 암소를 대신 기르게 한 다음, 새끼를 낳으면 서로 가르는 방식이었음.
 - 멤쉐의 대상은 대체로 새끼를 낳을 수 있었던 암소였음.
 - 소가 없는 사람이 소를 마련하기 위해 행해졌음.⁹²⁾
 - 소가 없는 집에서는 남의 집 암소를 이용해 밭을 갈고, 짐을 실어 나르며, 암소가 새끼를 낳으면 첫 번째 새끼는 암소를 대신 기른 사람이 가지고, 다음 새끼는 암소를 빌려준 주인 몫이 되고, 멤쉐는 가난한 사람이 농사에 소를 이용하게 해주고, 그 새끼들을 나누어 가지는 이른바 소의 반작제도에 해당하며,⁹³⁾ 번쉐와 멤쉐는 2008년 제주도 문화상징으로 선정되었음.
- 샷쉐는 해안마을의 소들을 목장(목축지)이 있는 중산간 마을에 위탁하는 소를 의미함.
 - 과거 제주읍 도두리(해안마을) 주민들은 여름작물 파종이 끝난 후, 소를 중산간마을인 제주읍 해안리 주민들에게 위탁하여 추분(9월 23일)까지 해안리 공동목장에서 길렀으며, 대신 농우 한 마리당 보리 3말을 지불했음.⁹⁴⁾

91) 고광민, 「같은 밭, 다른 소 선택의 이유」, 『제주도민일보』 2011년 7월12일(화).

92) 고성리 향토지편찬위원회(1993), 『고성리지』, p.149.

93) 현용준(2003), 「번쉐와 멤쉐」, 『제주문화상징』, 제주특별자치도, pp.390-393.

94) 고광민, 「목초 산 사람은 목초 주인의 밭 갈아주는 것으로 값 지불」, 『제주도민일보』 2010년 10월 26일(화).

- 대정읍 일과리의 사례처럼 해안마을에서 일소를 가지고 있는 주민들이 특정인에게 소를 맡겨 대신 기르게 하여 한 마리당 삼으로 보리쌀 3말을 주는 형태도 있었음.⁹⁵⁾

(5) 방앗불 놓기(放火)

○ 공동목장이나 개인 목축지에서 공동으로 혹은 개별적으로 불을 놓아 잡초나 초지를 태우는 것을 ‘방애(放火)’라고 하며, 방목지를 정비하는 방법이며, 일제시기에는 ‘화입(火入)’이라고 불렀음.

- 방앗불 놓기는 이른 봄철에 목축지를 태우는 행사이므로 이것은 말보다는 소를 위한 행사였음. 즉, 말들은 겨울철을 지나 봄철에도 목장에 남아있는 마른 풀이라도 뜯어 먹어야 하는 상황에서 방앗불 놓기는 말에게는 그나마 남아있었던 먹이[馬草]를 태워 제거해버렸음.
- 음력 2월이나 3월 초순 새 풀이 돋아나기 전에 불 놓기를 했으며, 각종 해충을 없애는 기회였음(그림 III-58).
- 구좌읍 한동리 : 해마다 1~2월에 둔지봉을 중심으로 한 방목지대(조선후기 황태장 목장터에 해당)에서 실시했음.⁹⁶⁾



〈그림 III-58〉 금덕리에서 이루어진
방화장면(촬영 강만보, 제주도민일보, 2010.11.09.
고광민 글에 포함된 사진임.)



〈그림 III-59〉 방앗불 놓기를 계승한
들불축제 장면(<http://www.buriburi.go.kr>)

95) 고광민, 「제주 생활사를 가르쳐준 나의 스승」, 『제주도민일보』 2010년 6월 22일(화).

96) 북제주군 구좌읍 한동리(1997), 『둔지오름(漢東里誌)』, 경신인쇄사, p.218.

- 서귀포시 서홍동 : 모든 마을 주민들이 우마의 유무에 관계없이 이른 봄에 목장에서 불 놓기를 했음.⁹⁷⁾
 - 애월읍 상가리 : 방앗불 놓기에 적당한 날을 고르고 필요한 인원을 동원하고, 배치할 계획을 세운 다음, 일기를 보면서 바람방향과 그 변화 가능성을 잘 가늠해 불을 놓았음.⁹⁸⁾
 - 서귀포시 하원동 : 봄철 한가한 때를 골라 서귀포시청의 허락을 받은 다음, 소방차를 공동목장에 대기시켜 불 놓기를 했음.
- 방앗불 놓기를 현대적으로 계승한 것이 제주시가 매년 정월 대보름을 전후해 새별오름에서 개최하는 들불축제임(그림 III-59).

(6) 백중제(百中祭)

- 백중제는 음력 7월 15일(백중날)에 목축지(공동목장 등)에서 지냈던 고사로, ‘테우리 코시’, ‘모쉬멧질’, ‘테우리 멧질’ 등으로도 부르며, 우마의 번식과 질병에 걸리지 않기를 기원하는 목축의례임.⁹⁹⁾
- 백중날(음력 7월 15일) 떡과 밥, 술 등 제물을 가지고 자기 우마를 기르는 목장 또는 목장 내에 위치한 오름 정상에 올라 “천왕 테우리도 먹영갑써, 인왕 테우리도 먹영갑써” 하면서 그리고 방목 장소들과 마을공동목장의 이름을 하나하나 거명하며 제를 지냈음(그림 III-60).
- 애월읍 장전리에서는 마을공동목장조합이 주체가 되어 음력 7월 15일 오전 10시에 3명의 헌관(초헌관, 아헌관, 종헌관)과 2명의 집사에 의해 켓물 옆에 마련된 제단에서 유교식으로 백중제가 이루어졌음(그림 III-61).
- 새(띠)를 제단에 깔고 난 후 제단에는 돼지머리, 삶지 않은 돼지고기, 말리지 않은 옥돔(3마리), 말린 명태(1마리), 메(쌀밥 2개, 좁쌀 2개), 과일(사과, 배, 귤, 대추), 고사리 등이 올라갔고, 제주가 준비되었으며,

97) 서귀포시 서홍동(1996), 『西烘爐』, 보광인쇄사, p.202.

98) 애월읍 상가리(2007), 『上加里誌』, pp.193-195.

99) 제주도문화예술과(2002), 『제주도 제주마』(제주마문화연구보고서 1), p.326.



〈그림 III -60〉 송당리 백중제
재현장면
(<http://tamnamap.jeju.go.kr>)



〈그림 III -61〉 장전리 백중제
실연장면
(2014.8.10.오전 10시 촬영)

꺾물을 떠온 그릇으로 헌관들이 가서 손을 씻고 백중제를 시작했음.

- 초헌관은 장전공동목장조합장이 맡고, 아헌관과 종헌관은 각각 목장조합 이사가 맡아 유교식 제사순서에 따라 제를 지냈으며, 백중신에게 고하는 축문을 초헌관이 읽은 다음 태우면서 백중제가 마무리되었음.

(7) 바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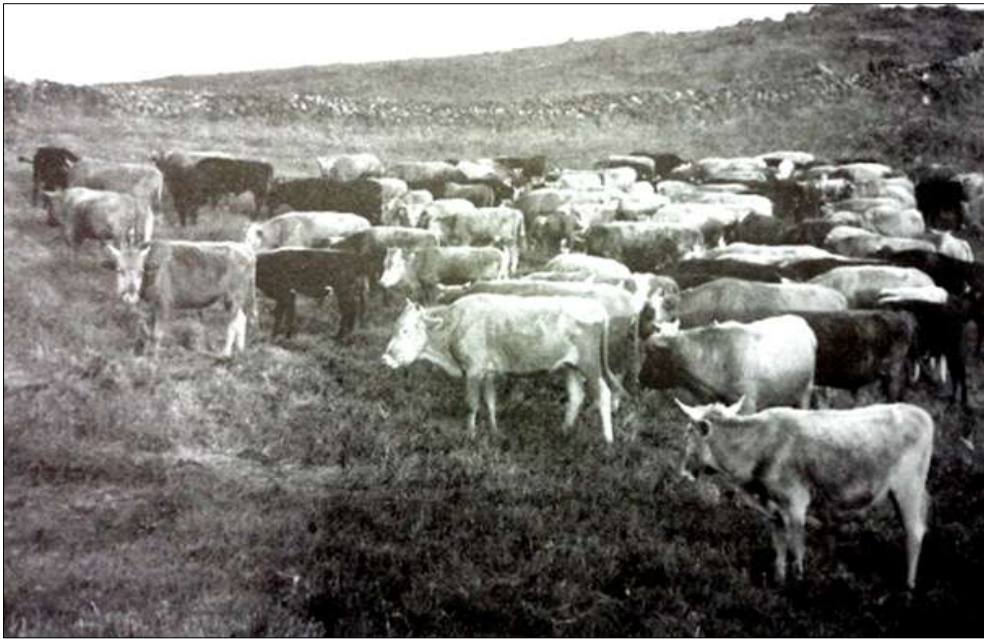
- 바령은 농사에 필요한 거름을 확보하기 위한 방법으로, 제주도 토양이 비교적 비옥도가 낮아 거름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해 뚫통시, 췌막, 정지 그리고 밭에서도 거름을 확보했음.

- 우마들을 일정한 밭으로 몰아넣은 다음 배설물을 모으는 밭을 바령 밭이라 하며, 이건(李健)은 『제주풍토기』(1628~1634)에서 바령밭을 분전(糞田)이라고 했음.¹⁰⁰⁾
- 바령은 밭을 놀리는 동안에 우마들을 밭 안으로 몰아넣은 다음, 이들의 배설물을 받아 거름으로 만들어 농경에 이용하는 것으로, 계절에 따라 봄바령 · 여름바령 · 가을바령으로 구분됨.¹⁰¹⁾

100) 이건, 『제주풍토기』, 김태능(역), 『탐라문헌집』, 제주도교육위원회(1976), p.197.

101) 고광민(1996), 「농경기술」, 『제주의 전통문화』, 제주도교육청, pp.201-233.

- 바령밭 만들기는 척박한 제주도의 토양환경을 인식하여 만들어 낸 전통지식으로, 소를 이용해 바령을 하기도 했음(그림 III-62).
- 『세종실록』(45권, 1429)에는 아래 사료와 같이 바령이 ‘팔장(八場)’으로 기록되어 있어 조선초기부터 바령이 행해진 것으로 판단되며, 농경과 목축을 동시에 행했던 목축문화에 해당함.
- 병조에서 아뢰기를, 상호군 고득중 등이 상언하여 청하기를, …제주는 토성(土性)이 메마르므로 농부들은 밭 가운데 반드시 팔장(八場)¹⁰²⁾이란 것을 만들어 소를 기르고, 쇠똥을 채취하여 종자를 뿌린 뒤에는 반드시 소들을 모아다가 밭을 밟게 하여야 싹이 살 수 있습니다(중략). 낮에는 사람의 집 근처에 방목하고 밤에는 팔양에 들어가 있게 하기 때문에 목장의 말과는 전연 서로 섞이지 않는다.¹⁰³⁾



〈그림 III-62〉 소를 활용한 바령하기

102) 세종실록 원문에 기록된 八場은 八陽의 오키일 가능성이 있음.

103) 『세종실록』 45권, 11년(1429) 8월 26일(경자) : “兵曹啓上護軍高得宗等上言…本州土性瘠薄,農夫於 田內必造八陽, 養牛取糞, 播種後必聚牛踏田, 乃能立苗.”

- 이형상 제주목사는 『남환박물』(1703)에서 바령을 “囚牛馬於築場之內晝夜糞田謂之八陽”(우마들을 담을 쌓아 두른 장소에 가두어 밤낮으로 밭에 똥을 싸게 하며, 이를 팔양이라 한다)고 하여 ‘팔양(八陽)’이라고 기록했음.¹⁰⁴⁾

(8) 진드기 구제

- 마을공동목장에 소를 방목했을 때 소의 생명을 가장 위협하는 동물인 진드기는 몸길이 0.2~10mm, 사람이나 가축의 피를 빨아먹는 흡혈성 동물로(『두산백과』), 쇠똥, 말똥, 참억새 등에 산란하고 생을 마감하는 것으로 알려지며, 진드기가 많이 기생하면 소는 영양실조와 빈혈을 일으켜 죽는 경우가 있어 반드시 진드기 제거가 필요했음.¹⁰⁵⁾



〈그림 III-63〉 가시리 공동목장내 복원된 진드기 구제장

104) 원문의 팔양(八陽)은 제주어 바령의 유사어 바량의 차자표기이다(이형상 지음, 이상규·오창명 역주(2009), 『남환박물』, 푸른역사, p.291)

105) 고광민, 「진드기가 겨울잠 든 음력 2월, 방목지대에 불 놓았다」, 『제주도민일보』 2010년 11월 2일.

- 진드기 유충이 겨울잠을 자는 음력 2월에 방목지대에 불을 놓아 진드기 알을 제거하는 방법, 여름철에는 소에 기생하는 진드기를 긁어내는 ‘부구리체’를 이용해 구제했음.
- 근래에는 약품을 뿌려 진드기를 없애고 있으며, 서귀포시 하원동 마을공동목장조합원들은 현재도 공동목장 내 진드기 구제장 3곳에서 10일에 한 번씩 진드기 구제를 해주고 있음.
- 표선면 가시리 공동목장에서 부구리(진드기) 구제장은 80년 초까지 이용된 시설이며, 낙인(烙印) 공간으로도 이용되었고, 녹산로 동쪽 동장(東場)의 부구리 구제장은 도로변에 그리고 서장(西場)의 것은 조랑말박물관 옆의 원래의 위치에 복원되어 있음(그림Ⅲ-63).

(9) 상산방목¹⁰⁶⁾

- 제주지역에서는 해발 1400m 이상의 한라산 고산지대에서도 방목이 이루어졌으며, 이를 “상산에 올린다”고 했음.¹⁰⁷⁾
 - 1980년대 초까지만 해도 음력 6월경 초, 고구마 등 여름농사와 밭갈이가 끝난 후 더위에 지친 소들을 서늘한 고지대(상산)에 올려 쉬게 했던 목축방식이었음.
 - 소를 상산에 올리는 날은 무더위에 대비해서 새벽에 같은 동네에서 서넛, 혹은 대 여섯 명씩 동아리를 짜는데 대개는 한 사람이 소 한 두 마리를 몰고가는 경우가 많았음.¹⁰⁸⁾
- 상산(1400~1950m)은 해발고도가 높아 여름철기온이 낮고 바람이 많아 진드기 피해가 적은 곳이었으며,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자연초지와 물 그리고 비바람을 피할 궤(바위굴)가 삼위일체 되는 장소여서 조선

106) 상산방목에 대해서는 필자의 연구논문(「근현대 한라산 상산방목의 목축민속과 소멸」, 『탐라문화』 (43),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2013)을 요약하여 제시한 것이다.

107) 이에 대해서는 오성찬의 소설 『한라산』(고려원, 1990)에 자세히 묘사되어 있다.

108) 고광민(1996), 「목축기술」, 『제주의 전통문화』, 제주도교육청, p.310.

시대에도 방목지로 활용되었고, 한라산 산정부의 지형조건과 기후 및 식생환경을 인식한 주민들에 의해 이루어졌음.

- 상산방목지 중 선작지왓은 영실기암 상부에서 윗세오름에 이르는 고원 초원지대로, 넓은 초지와 노루삼, 탐괘가 있어 서귀포시 하원동, 도순동, 호근동 주민들의 공동방목지였음.
- 특히 윗세오름 방목지는 1960~70년대까지만 해도 남북제주군 지역 우마들과 테우리들의 만남 장소였음(그림 III-64).¹⁰⁹⁾
- 청명 이후 6월 여름철 농작물(조) 파종이 끝나고 더워지기 시작하면 상산으로 농우들을 올려 방목했다가 풀이 시들기 시작하는 상강을 전후해 물고 내려 왔음(그림 III-65).



〈그림 III-64〉 1988년 윗세오름 일대 마지막 말 방목장면

(한라산 국립공원관리사무소 신용만 사진제공, 가운데 부분은 백록담 화구벽, 앞쪽 왼쪽은 윗세상봉(붉은오름), 뒤쪽은 장구목으로 가는 왕석밭, 오른쪽 오름 둘은 윗방애와 방애오름에 해당)

109) 강만익(2013), 「근현대 한라산 상산방목의 목축민속과 소멸」, 『탐라문화』(43),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pp.186~189.



〈그림 Ⅲ-65〉 한라산지 구상나무 숲에서 방목 중인 소
(오덕철, 1985, 한라산천연보호구역학술조사보고서 화보사진에서 인용)

- 상산방목은 우리나라에서는 해발고도가 가장 높은 장소에서 이루어진 목축민속이었으며, 백록담 남쪽의 선작지왓, 움텅밭, 백록담 북서쪽의 사제비~만세동산, 큰두레왓, 가메왓, 개미등에서 행해짐.
- 상산방목에 대한 기록들
 - 상산방목은 영조 7년(1731) 9월 한라산을 오른 정운경(鄭運經, 1699~1753)이 백록담 내에서 물을 먹고 있는 산마(山馬)를 목격했다는 기록을 토대로 조선시대에도 상산방목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은 충분하며, 상산방목 모습은 다수의 문학작품에 등장함.
 - 고종 5년(1901) 한라산 높이가 1,950m임을 서양세계에 최초로 알린지 그프리트 겐테(Siegfried Genthe)의 『겐테의 한국기행』(1905), 이치카와 산키(市河三喜)의 『漢拏山行』(1905), 이은상의 『耽羅紀行 漢拏山』(1937), H. 라우텐자흐(1945)의 『코레아 I』, 정지용의 『백록담(白鹿潭)』(1941), 신석정의 『白鹿潭에서』(1968), 이병태의 『60년대 한라산 등반기』(2003), 김광협의 『상산에 올린 쉼』(1994) 등은 주목할 만함.

상산에 올린 쉼

한라산도 불구릉 하여 가곡
조팔디 조 코구리도 노리릉 하여 감쥌
상산에 올린 쉼도 느려올 때가 되엿구나
저놈의 쉼 느려오멍 송애기랑 하나 낭 오지 못홀전정
놈의 집 조팍이나 판내우지 말아시민
여름 흥철 진독광 부구린 무사사 경 한디
진독도 털어지곡 부구리도 털어지곡
문짝 슬쳐아정 오커던 오라
놈의 집 조팍이나 콩발디랑 얼러 텅기질 말라
헛다 헛다 얼러텅기질 말아 도라

(김광협, 1994, 「상산에 올린 쉼」)

○ 상호마을 상산방목 사례

- 이 마을에서 상산방목은 1985년에 사실상 종료되었음. 소 40~50두를 집단적으로 상산에 올렸던 사람도 있었으며, 이것은 상산의 초지가 좋기도 했지만 무료로 이용할 수 있었기 때문임.
- 소를 팔기 위해 상산에서 기르기도 했으며, 흑우(검은썸) 또는 종모우(種牡牛 : 씨숫소)로 이용하는 외국산 브라만을 올렸던 사례도 있었음.
- 소를 찾으러 갈 때 빨리 찾게 해 달라고 기원하는 의례를 행했으며, 준비물로는 굵지 않은 마른 생선(솔라니 : 옥돔이며 현장에서 굵는다), 양초, 향 등을 향고(반합)에 담고 갔으며, 향고는 밥을 할 때도 이용되었음.
- 상산에 썸을 올릴 때마다 평지궤에서 한라산 남벽을 보며 고사를 지내며 방목우마의 무사함을 기원했음.

- 우마를 찾으러 갈 때 평지궤, 동광암궤, 움텃밭 내창궤에서 숙식했으며, 이 가운데 평지궤가 가장 안전했음.
- 방목 중에는 부랭이(어린 수소)를 잘 잃어버렸음. 특히 다간(두 살된 소), 사릅(세살된 소)은 한 자리에 오래 있지 않고 자주 이동을 해버리거나 다른 암소를 따라 이동해 잃어버리는 사례도 있었음.
- 양력으로 5월말부터 마을에 쉬포리(소에 달라붙는 파리)가 생기기 시작하면 소들이 저절로 엉덩이를 들썩 거리며, 이때가 되면 마을 사람들은 일정한 날을 정해 상산에 소를 올렸음.
- 상산에는 꽃채와 꽃물들도 섞여있었으며, 이들은 오래 전에 상산에 풀어놓은 우마들로, 야생화된 상태로 살아가는 우마들임.
- 움텃밭 일대에는 ‘물걸리는 내’가 있어 일단 이곳으로 말을 들여 보내면 빠져나올 수 없었음
- 방목기간은 대체로 청명을 전후한 5월 중순부터 10월 상강일 까지였음.
- 목축민들은 열흘에 한 번씩 상산으로 올라가 소가 새끼를 낳았는지 또는 바위에 다리가 끼어 죽지 않았는지 확인했음.
- 낙인은 平, 8, 八자를 이용했음.
- 상산에는 진드기가 거의 없었으나 대신 쉬포리가 있었음.
- 흡혈하는 진드기 피해가 없어 이곳의 우마들은 살이 잘 올랐으며, 상산에 올린 채는 육질이 탄탄해 질이 좋았음.
- 맑은 물과 공기 그리고 진드기가 없고 약초와 같은 풀들이 품질 좋은 소를 길렀음.
- 방애오름에서 ‘등터진 궤’를 연결하는 방목지에서는 테우리들이 길을 잃어 버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암석 위에 돌을 쌓아 만든 이정표가 있음.
- 상산에 방목시킨 우마들은 김의털, 조릿대 잎을 먹기도 했음.

- 등터진궐 방목지에서 소들이 다리가 부러지는 사고가 있었음. 이곳은 땅이 푸석푸석하고 작은 돌이 많았기 때문임.
- 발정기에 있는 수소들은 암소 위로 올라타기 위해 달려가다가 발이 돌 틈에 빠져 골절되는 경우도 있었음.
- 태풍 불 때 어린 소들이 사고를 당했음. 이때 ‘톨’ 속으로 들어가 바람을 피했으며, 톨은 나무와 나무 사이의 빈 공간(트멍)을 의미했음. 구상나무와 주목으로 이루어진 나무숲의 빈 공간으로 들어가 바람을 피했음.

(10) 출비기

- 출은 우마의 먹이로, 축사에서 겨울을 보내는 소에게 있어서는 반드시 준비해야 하는 건초였음.
 - 추석 무렵 하늬가 터지면(서풍이 불기 시작하면) 출을 베기 시작했으며, 하늬바람은 건조한 바람이므로 출을 베어 말리는 데에는 안성맞춤이었음.
 - 우마가 많은 집에서는 많은 양의 건초가 필요하므로 집안 식구가 총동원되어 출을 베었으며, 심지어 출이 자라는 곳에 ‘머지멍’(자면서) 베기도 했고, 하늬바람이 불 때는 오늘 호미로 베어 낸 출이라도 내일 정도면 말랐음.¹¹⁰⁾
- 성산읍 신평리에서는 팔월절(추분) 이후 10여 일간 풀이 굳어지기 전에 출을 베어 말렸고, 일기가 불순하여 비에 젖으면 빛깔이 변하고, 맛이 떨어져 ‘지들커’로 썩음.
 - 출의 종류 : 야산의 풀을 베는 것을 ‘새꿀’, 밭에 가꾼 뒤 베어낸 것을 ‘자굴출’, 농사짓지 않는 밭에 저절로 자란 바랭이를 베어 말린 것을 ‘재완지출’이라 했음.
 - 우마가 먹고 난 찌꺼기 출을 ‘쇠대치’, 또는 ‘쇠머리’라 부르고 ‘지들커’로 이용함.

110) 서귀포시 하효마을회(2010), 『下孝誌』, pp.276-285.

- 배어 말린 출은 일단 그 밭에 묶어 놓었다가 우마로 실어다 집 마당 울안에 쌓는데, 들에서 놀 때는 둥글게 놀지만, 집에 실어 와서는 양이 많기 때문에 길쭉하게 놓였음.
- 출의 양은 대개 바리수로 가늠하며, 새꿀, 자굴출, 재완지출은 30단이 1바리이며, 우마를 많이 기르는 집에서는 300바리의 출이 필요했음.¹¹¹⁾

(11) 우마병(牛馬病) 민간요법¹¹²⁾

- 소가 밭을 가다가 멍에 벗어졌을 경우 : 푼채순이 잎과 대를 쇠멍에 감고 밭을 갈면 됨.
- 소의 질메로 쇠등에 꿰이졌을 경우 : 오징어 껍질을 붙임.
- 소가 설사할 때 : 술의 그을음을 보리 죽에 타 먹임.
- 소의 뿔이 벗어질 경우 : 미역으로 감아 줌.
- 소의 눈이 아플 때 : 묵은 장물을 입에 물었다가 뱉어 줌.
- 소의 각이 퇴질 경우 : 침을 주고 썩은 오줌을 초신 짝에 적셔 밀어 줌.
- 쥐똥이나 거미를 먹어 배부를 때 : 참기름이나 녹말기름을 먹임.
- 말의 눈이 아플 경우 : 돌갑진을 놔줌.
- 소나 말의 풍병 : 황백비나무 셋거풀로 술 담아 먹임.
- 한 쪽 발이 절름 걸일 때 : 아프지 않은 발을 왼 새끼로 묶음.

(12) 소와 말에 관한 속담

- 새끼 하영 난 쇠, 질매 버슬 날 어서 : 자식을 많이 둔 부모는 항상 바쁘다.
- 늙은 쇠들 콩 말땡 흐랴 : 나이 든 늙은이라 하더라도 좋은 것을 주어서 싫다는 사람이 없다.

111) 성산읍 신흥리(2006), 『넷가의 풍년마을』, pp.461-466.

112) (11) 우마병에 대한 민간요법, (12) 소와 말에 대한 속담 중 ***부분, (13) 목축민요는 윤경로의 『鄕土江汀』, 태화인쇄사, 2001, pp.112-321)에서 인용했음을 밝힌다.

- 도 튼 밭에 쇠아니 들라 : 집안이 허술하면 도둑이 들게 마련이다.
- 서포리왓디 들어난 쇠, 놈의 각시방에 들어난 놈 주으릇혼다 : 제 버릇을 버리지 못하고 항상 마음속에 두고 생각한다.
- 쇠눈이 크댕 해도 의논이 더 크다 : 모든 것을 의논해서 처리하는 것이 좋다.
- 쇠뿔도 더운 때 빠라 : 일을 뒤로 미루지 말고 즉시 처리하라.
- 쇠털이 하댕해도 날 수정이 하다 : 일을 성급하게 처리하지 말고, 다른 날도 있으니 쉬면서 하라.
- 쇠발이 검댕 테여 붙어지랴 : 혈육이 나쁘다고 남이 될 수 없다.
- 쇠먹은 디 몰배불라 : 어떤 결과는 원인에 기인하여 생긴다.
- 쇠 뒤에 출 밥 위에 떡 : 너무 과다하게 소비할 때를 말한다.
- 초 정월 브름쌀 가는 암쇠 뿔 오그라진다 : 일년 중에 음력 정월 초순의 날씨가 가장 춥다.
- 큰 쇠 큰 쇠 흐명 출 아니 준다 : 말로는 어른으로 모시면서 대접하는 데는 소홀히 하다.
- 기운 썰댕 쇠가 왕 노릇 해지랴 : 힘 또는 주먹깨나 쓴다고 안하무인 격으로 행동하는 사람을 보고 하는 말
- 외상이엔 흐민 쇠도 잡아먹는다 : 외상을 공짜로 생각하는 사람을 비꼬는 말
- 쇠 탄 귀양다리, 물 탄 양반 : 귀양갈 때는 소를 타고, 여행을 갈 때는 말을 타고 간다.
- 바늘구멍으로 황소브름 든다 : 아주 작은 실수가 큰 결과를 가져온다.
- 금승 물갈기가 외우질지 늑다질지 모른다 : 앞으로 일어날 일을 아무도 모른다.
- 물도 팔춘을 곶인다 : 혈연을 알고 지내라.
- 물 주근 밭디 들었단 해지는 줄 모른다 : 헛된 장소에 들어갔다가 시간만 낭비 한다.
- 육칠월 소나기, 텃는 물 한 쪽 귀만 젖는다 : 가까운 거리에 있으면서도 동등한 대접을 받지 못한다.

- 물 좇이 나왔다 들어가 주 사람 말이 나왔다 들어가라 : 한번 뱀은 말은 다시 회수할 수 없다.

- 이빠진 중성귀 출먹듯 : 아무런 기력이 없는 상태.
- 흘래 일룬 부룽이 : 암소가 발정이 오면 작은 수송아지들이 암소를 따르며 싸움질 하는 모양.
- 뺨 일룬 중성귀 : 거세한 수소들끼리 서로 암소 취급을 하여 올라타며 찢레질을 하는 상태.
- 쇠 찢레 : 겨울이 되면 마을 연못가에서 소끼리 싸움을 하거나 여름 공동목장에서 마을 소 전부가 입식하면 싸움으로 승부를 가려 목장 우두머리 소가 정해짐.
- 찢레쇠 흘구듯 : 소가 싸움을 하려면 무섭게 노려본다.
- 비온날 쇠꼬리처럼 이레착 저레착 한다 : 좇대가 없는 사람을 비유하는 말
- 정이월 하늬바람에 검은 암쇠 뿔 오그라진다 : 매서운 추위는 정이월에 온다.
- 삼월이면 공장에 걸어둔 말가죽도 들력킨다 : 3, 4월 발정난 말은 사납고 거세다.
- 실개어신 물추록 : 속 마음이 야무지지 못한다.
- 물코 푸는 소리 잘한다 : 실속 없이 큰 소리만 친다.¹¹³⁾

(13) 목축민요

○ 발불리는 소리

요 뭇생이	저 뭇생이들아	어서어서	걸어보라
섬피질	흔디부터	자국내영	씨 뿌리자
아이고	날씨도 좋아간다	요일허기	막상이로구나
이런 날에	좋은 부종 흐염시때	제석할망이	풍년들게 흐영

113) (12) 소와 말에 대한 속담 중 *****부분은 『남읍향토지』(남읍향토지편찬위원회, 2006, pp.341-344)에서 인용했음을 밝힌다.

고고리가	물 막개 만씩	멍텅시리로	나게 흡썸
강정애긴	곤밥을 주민 울어도	조팍을 주민	아니운뎡흔다
석곽곶치	흔저블영	어서어서	씨 물히자
늦칙늦칙	간새마랑	브지란이	블여보자
헉당말민	눔이웃나	먼딛사람	보기 좋게
내소리랑	산너머가고	강건너 가라	
삼복때만	오몽허민 저 산중에서	죽장놀멍	머글게 아니냐
간딜가고	온딜온다	어서어서	블여보자
콩심은딘	콩이나고	풋심은디	풋이난다
저 산방산에	구름끼민	사흘안에	비가온다

○ 출베는 흥애기 소리

입추팔월절드런	하늬브름 부난	출벨일기	막상이로고나
번개같은	요 내 호미로	물착물착	비여보자
흔좁비민	한문반씩	두좁비민	두세문씩
놉비렁	요 출 비영	저슬 쇠양석	하여보자
출도 성흔난	코싱코싱	우리쇠먹영	술지키여
요 출비영	흔놀놀민	이내마음	미두하리
튼는 말	발갈쇠양석	이저슬은	걱정어시키여
브름이불건	하늬브름으로	사나흘만	불어줍서
사흘이민	문물이왕	뭉어그네	늘어불고나
우리농부	출만성하게허민	무슨걱정	이시리야

○ 물뱅이 쇠먹는 소리

이러 이러 어허허허			
요 뭉생이	저 뭉생이	어서어서	걸어보라
느칙느칙	간새마랑	브지란이	등겨보라
것보리	일곱말에	물흔허벽	비와노왕
당그내로	저서가멍	대비로	씨러울영

흔혹을	지쟁흔민	요 뭉생이	지치넬노곤아
돌당봐도	돌당봐도	뱅뱅도는	물뱅이로다
짓일곡	다저지쟁흔민	흔나절은	저사홀로구나
물등으로	내린 뚝이	온뚝이	다 젖어간다
물모는 사람이	줄음이 오곡	하뚝이	나는구나
잘흔나 못흔나	소리나 흥영	정신이나	출여보자
그만 흥난	다저졌고나	낮후젤랑	체갈라그네
쟁ㄴ래로	ㄴ라그네	저녁ㄴ슴	하여보리

2. 제주도 목축문화의 정체성

- 제주도 목축문화의 성격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다른 지역 목축문화와 비교하는 관점이 필요함. 이것은 제주도가 몽골, 중국, 일본을 연결하는 섬이라는 지리적 위치로 인해 이들 지역의 목축문화가 제주도로 유입되었기 때문이다.
- 실례로, 13세기(고려 말) 몽골(원)은 제주도를 남송(南宋)과 일본을 정벌하기 위한 전략적 요충지로 인식해 1273년 제주의 삼별초군을 물리친 후 100년 가까이 탐라를 직할지로 삼아 군마생산을 위한 탐라목장을 운영했으며, 이 과정에서 몽골의 목축문화가 제주지역에 전파되었음.
- 조선시대에는 중국의 법제인 <대명률>에 의해 제주목장이 운영되었고, 제주마가 명나라와 청나라로 보내지는 과정에서 이들의 목축문화와 접촉하게 되었으며, 『경국대전』에 의해 제주도 국마장들이 운영되면서 육지부(한반도)의 목축문화가 제주에 유입되었음.
- 일제시기에는 조선총독부에 의해 제주도에 일본식 마을공동목장조합이 구성되어 마을공동목장이 운영되면서 일본식 목축문화가 제주도에 등장했음.

- 따라서 제주도 목축문화의 정체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시기를 달리 하며 중층적으로 퇴적되어 있는 몽골·중국·일본의 목축문화를 검토 할 필요가 있음. 다만, 동아시아 삼국의 목축문화를 분석하는 것은 많은 시간이 필요한 과제이므로 여기에서는 선행연구 결과를 참조하여 주요 목축문화 요소를 중심으로 제시함.

1) 제주와 몽골의 목축문화

- 제주도의 목축문화에는 몽골적 요소가 남아있음. 이것은 고려 말 100년 가까이 몽골식 탐라목장이 운영되었기 때문이며, 제주마의 이름, 낙인과 거세술, 건마육 만들기, 테우리 등은 몽골의 목축문화에서 유래한 것으로 판단됨.
- 제주와 몽골의 목축문화를 비교할 때 차이점은 몽골은 양과 말 그리고 제주도는 말과 소 중심으로 목축이 행해졌다는 것이며, 몽골이 양 중심으로 목축을 하고 있는 것은 건조한 여름철 기후의 영향이 크다고 할 수 있음.
 - 몽골은 제주도(한국 최대의 다우지, 연평균 1700mm)에 비해 연강수량이 350mm 이하를 보이는 반건조(半乾燥)의 초지환경을 가지고 있어 이 환경에 잘 적응하는 가축은 양이었음.
 - 말은 -30℃ 이하로 내려가는 혹한(酷寒)에서도 눈을 헤치고 풀을 뜯어먹는 동물인 동시에 다른 가축들의 방목상태를 관리하기 위한 필수가축에 해당되어 널리 길러졌음.
 - 고려 말에 몽골(원)이 제주로 양을 보내긴 했으나 양은 비가 많이 내리는 다습한 기후환경 하에서 적응하지 못해 중요시되지 못했던 반면, 처음 몽골에서 들어 온 종마(種馬)와 조랑말들은 철저한 관리와 보호를 받으며 목장에서 집중적으로 생산, 사육된 후, 전마나 군마, 역마, 파발마, 농마 등으로 반출되었음.

- 제주의 겨울철 평균기온은 7℃ 정도로 산간지역을 제외하고 해안이나 중산간 지역에서는 말의 연중 방목이 가능했음.
- 제주는 몽골과 달리 소도 중요시되었음. 몽골에서 소는 단지 유목민들에게 우유나 고기를 제공하는 정도여서 양과 말에 비해 상대적으로 선호도가 낮은 편이었음.
 - 제주도에서 고려와 조선시대까지는 말이 목축의 주인공이었으나, 일제강점기부터 현재까지는 소가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몽골은 농경을 거의 하지 않기 때문에 밭갈이를 위한 소가 필요 없었음.
 - 제주의 해안지역에는 넓은 농경지가 있어 소는 밭갈이 용(밭갈새 : 耕牛)으로 중요시됨.
 - 구좌읍 해안지역(세화, 하도 등)에서처럼 자갈과 억센 식물 뿌리가 많지 않은 토질환경에서는 말이 밭갈이에 이용되기도 했으나 대체로 말은 소에 비해 인내심과 힘이 약해 많은 지역에서 소(수소)를 이용한 밭갈이가 행해졌음.
- 제주에서 말은 군마용으로, 소는 농업용으로 이용되었음. 양과 염소는 하루 종일 관리를 해야 하는 가축이었으므로 농업과 목축 그리고 어업을 동시에 병행해야 했던 노동환경에서 양과 염소는 말과 소에 비해 경쟁력을 상실했음.
- 몽골과 제주는 목축형태도 달랐음. 몽골이 이동형 목축인 반면 제주는 정주형 목축이었으며, 몽골의 이동형 목축은 바로 유목을 말하며, 제주는 다우지여서 풀과 물이 몽골에 비해 상대적으로 풍부하고, 섬이라는 지리적 특성으로 인해 멀리 이동할 필요가 없었음.
- 제주의 해안과 중산간 지대에는 이미 정주촌락이 형성되어 있고, 목축지와 마을 간에 거리가 가까워 가축전체가 가축의 무리를 이끌고 이동할 필요가 없었으며, 이 점이 몽골과 제주 간에 목축형태에 차이를 보이는 근본적인 이유라고 해석됨.

○ 몽골 유목민들의 착유(搾乳), 낙인과 거세술은 초지환경에서 가축을 일정하게 유지하고, 유목민들의 생존을 유지하기 위한 생태전략이라는 점에서 높게 평가할 수 있음.¹¹⁴⁾

- 고려말 제주에서 탐라목장을 운영했던 몽골출신 목호들은 착유(搾乳), 낙인과 거세술이라는 목축기술을 제주에 도입했다고 판단됨.
- 착유기술은 몽골에서는 차와 음식을 얻기 위해 필요했으나(그림 III-66·67), 제주에서는 소나 말의 젖을 가공하여 먹어야 생명을 유지하는 상황은 아니었기 때문에 착유기술은 제주 목축민들에게 그다지 강조되지 않았음.



〈그림 III-66〉 몽골다리강가 마을의
젖짜기 (2006년 7월 현지촬영)



〈그림 III-67〉 몽골인의 간식인
유제품(2006년 7월 현지촬영)

○ 고려 말 원이 명나라에 의해 멸망한 후, 제주의 몽골인들은 고국이 소멸했기 때문에 제주에 정착하는 길을 택했음. 원의 멸망이라는 정치적 이유 외에도 이미 선조들이 100년 가까이 제주에 거주하며 제주여성과의 혼인도 이루어졌고, 울란바타르처럼 -30℃ 이상 내려가는 겨울철 혹한이나 ‘조드’와 같은 자연재해로 인해 가축이 동사하는 경우도 거의 없었음. 또 몽골과 달리 목축과 동시에 농업이 가능한 환경이었으며, 해안에는 사시사철 용천수가 풍부하여 몽골인의 입장에서 보면 제주도는 최적의 정착지요 “목축의 유토피아”였을 것임.

114) 강정원·박환영·이평래·장준희(2009), 『세계의 말문화 I 몽골·중앙아시아』, 한국마사회 마사박물관.

2) 제주와 일본의 목축문화

- 제주의 목축문화에 일본적 요소가 포함되기 시작한 것은 1910년 한일 강제병합 이후부터 임.
 - 일제가 조선의 축산업을 개선한다는 명분으로 다양한 축산정책을 실시한 결과, 제주지역에 마을공동목장조합, 공동목장, 화입(火入), 우마적증 등 일본식 목축문화 요소가 등장했음.
 - 화입은 방앳불 놓기(放火)에 해당하는 것으로, 제주지역과 일본에서 공통적인 문화현상이었음.
 - 일본의 목축방식을 기록한 나라시대(710~794) 구목령(厩牧令)에 이미 목장에서는 매년 봄에 들판의 풀을 태운다고 규정할 정도로 일본에서 화입의 역사는 제주도보다 길었음.
 - 일본에서도 제주도와 마찬가지로 위탁사육이 이루어졌음. 일본에서는 눈이 많이 오는 지방에서 일정한 사육료를 지불하고 해안지방에 소를 위탁하는 관습이 있었음.¹¹⁵⁾

3. 마을별 목축문화 실태조사

1) 실태조사 방향

- 조사대상
 - 제주지역 중산간 마을에 남아있거나 존재했던 목축문화
 - 목축문화를 크게 말 문화(馬文化)와 소 문화(牛文化)로 구분한 다음 이를 다시 순수목축문화(낙인, 귀표, 테우리 코시 등)와 혼합목축문화(바령, 밭블리기, 물방애 돌리기 등) 구분해 조사

115) 임경택 외(2011), 『세계의 말 문화 III 일본』, 한국마사회 마사박물관.

- 목축전통이 잘 남아있다고 판단되는 13개 마을 선정

○ 조사기간 : 2014년 3월~8월(6개월)

(※필요에 따라 조사기간 이전시기의 조사자료도 포함)

○ 조사방법

- 사례 마을 노인회를 방문해 소나 말을 기르며 목축을 경험했던 남자 주민들을 대상으로 면담조사 실시
- 목축문화의 원형과 보전 및 전승실태 조사
- 목축문화와 관련된 구전자료 조사(목축민요, 속담, 전설 등)
- 마을 공동목장내 목축시설과 그 기능 조사 및 사진촬영
- 선행연구 자료(『향토지』 등)를 이용해 면담조사 결과 보충하기

2) 실태조사 마을

- 조사지역 선정 : 중산간 지대에 위치하고, 현재도 마을공동목장이 유지되고 있으며, 비교적 목축문화의 전통이 잘 남아있다고 판단 되는 마을을 선정
- 조사마을 : 제주시 8개, 서귀포시 5개 총 13개 마을
 - 제주시 : 오등동, 애월읍 유수암리·장전리·광령리·상가리·봉성리, 한림읍 금악리, 구좌읍 송당리
 - 서귀포시 : 하원동·상효동·하효동·표선면 가시리·성산읍 수산리

3) 실태조사 내용

(1) 제주시 지역

① 오등동 목축문화

조사마을	조사내용		보존상태
제주시 오등동	■ 목장에 출력하기 - 4월 중순 공동목장에 소를 올리기 전에 초지개간, 흙이 쌓여 좁아진 물웅덩이 준설하기, 목장 내 켓담 정비작업에 집집마다 1명씩 노동력을 제공했다. - 이를 ‘출력(出役)’이라고 했다. - 출력은 마을공동체 행사였으며 타당한 이유없이 3번이상 불참하던 마을공동목장조합 규약에 의해 영구제명처리를 했다. ■ 진드기 구제 - 진드기를 구제하기 위해 공동목장에 방앳불 놓기를 했다. 이것은 진드기의 유충을 제거하는 작업이었다. - 공동목장 내 약육장에서 DDT를 탄 물에 적신 수건으로 소의 피부를 닦아 주었다. ■ 멤쇠 기르기 - 밭갈쇠 한 마리면 1,500평 땅을 살 정도로 밭갈쇠는 큰 재산이었다. - 소를 먹이기 위한 출왓도 일반 밭보다 비싸 ‘출왓을 가진 사람은 부자’라는 말도 있었다. - 큰 돈 들이지 않고 송아지를 얻는 방법이 ‘멤쇠’였다. - 멤쇠의 대상은 암소였다. - 멤쇠는 목초가 부족했던 해안마을 암소 주인이 목장을 가지고 있었던 중산간 마을주민들에게 소를 위탁하여 길렀던 방식이었다. - 암소가 송아지를 낳으면 암소를 기른 사람이 가지고, 두 번째 송아지를 낳으면 암소와 두 번째 송아지를 암소주인에게 돌려주는 방식으로 서로에게 이익이 되는 방식이었다. - 43사건을 거치며 초토화된 마을축산을 일으킨 것은 바로 멤쇠의 풍속 때문이었다. ■ 낙인 - 낙인은 조발 밟기 작업을 한 후 행했다. - 낙인글자는 ‘오목(吾木)’이었다. - 다른 마을에서 ‘오목(吾木)’이라고 낙인된 소를 발견하면 이 마을에 알려 주인을 찾게 했다. ■ 테우리 고사(백중제) - 음력 7월 14일 자정에 우마를 길렀던 집에서 우마번성을 기원하며 고사를 지냈다. - 공동목장을 만든 후에는 목장관리사 앞에서 고사를 지내는 형태로 변모했다. ■ 공동목장 증토비 - 공동목장 조성시 필요한 토지를 기부했던 주민들의 명단을 기록한 표지석이 공동목장내에 남아있다.		-출력, 진드기 구제, 테우리고사는 현재도 행해지고 있으나 낙인과 멤쇠의 전통은 소멸되었음.
목축문화요소	출력, 진드기 구제, 멤쇠, 낙인, 테우리 고사(백중제)		
제보자	전태일(제주시 오등동, 77세)	조사일시	2014.3.1
참고자료	『오등동향토지』(2007)		

② 유수암리 목축문화

조사마을	조사내용		보존상태
애월읍 유수암리	■ 윤환방목 - 목장내 초지황폐화를 막기 위해 이루어진 생태적응 전략이 윤환방목이었다. - 윤환방목은 목장 내 초지에 방풍림을 심어 공간구분한 뒤 이곳을 서로 돌아가면서 풀을 먹이는 방목방식이었다. - 1974년 초지개량과 함께 목장 내 경계를 가르는 측백나무를 심어 4개 구역으로 구분했다. - 한 구역 당 15~20일 정도 방목했으며, 그러면 소들은 잘 자란 풀을 먹을 수 있었다. ■ 목감 - 집집마다 1~2마리를 기르던 것이 1970년대부터 가구당 5~6마리로 늘어나면서 공동목장에서 우마방목을 책임질 목축전문가로 목감이 필요했다. - 목감은 공동목장에 고용된 테우리였다. - 목감은 우마를 공동목장에 올리는 날부터 목장관리사에 기거하며 가축을 관리했다. - 우마들이 공동목장에 입식하는 날, 유수암리 축주들을 대표해 목감이 공동목장에서 방목기간 동안 우마들의 건강과 번식을 기원하는 고사를 지냈다. ■ 발갈쇠 하루면 김 매기 사흘 - 이 마을이 속한 서부 산간마을은 황소의 가치가 상상이상으로 높았다. - 땅이 ‘어기어’ 즉 땅에 자갈이 많고 척박해 암소나 말로는 발을 갈기 어려웠다. - 황소를 ‘발갈쇠’라고 했다. - 암소는 짐을 나를 때 쓴다고 해서 ‘짐쇠’라고 불렀다. - 발갈쇠 한 마리는 발 1,000평에 해당할 정도로 큰 재산이었다. - 발갈쇠가 없는 집에서 소를 한번 빌리는 대가로 돈을 주는 대신에 소 주인의 발에서 3일 동안 ‘검질’을 매주었다. - 발갈쇠를 빌려오면 청출이나 보릿겨를 사료로 제공하며 극진히 대접했다.		-유수암리 공동목장은 소를 기르는 조합원에게 임대해두고 있고, 농기계가 보급되어 목감과 발갈쇠는 사라졌지만, 출력과 윤환방목은 현재도 유지됨.
목축문화요소	윤환방목, 출력, 목감, 발갈쇠		
제보자	유수암리 공동목장조합장 강철호 유수암리 공동목장조합 총무 강용택	조사일시	2014.3.15
참고자료	『유수암리지』(2010)		

조사마을	조사내용		보존상태
애월읍 유수암리	■출력 - 해마다 이른 봄철이면 소를 공동목장에 방목하기 전에 조합원들이 목장으로 올라가 가시덤불 제거, 지주목 세우기, 방풍림 심기, 돌담 보수 등의 일을 했다. ■발갈쇠 훈련 - 수소가 2~3살 되면 멩에를 씌운 후 가벼운 소나무 가지를 끌면서 마을 한 바퀴를 돌게 했다. - 이것이 익숙해지면 마을 내 경작하지 않는 밭을 골라 갈아보게 했다. - 이 마을에서는 이것을 ‘밭을 번한다’고 했다. ■발갈쇠 코뚜레 - 발갈쇠에 코뚜레 꿰기도 중요했다. 마을 장정들이 동원되어 먼저 소의 밧을 묶어 쓰러트린 다음 코에 구멍을 만들었다. - 농기계가 보급되고 비육우로 길러지면서 코뚜레 만들기 문화는 소멸되었다. ■방앳불 놓기 - 초봄, 소를 올리기 전에 목장에 쌓였던 눈이 녹아 없어지면 건조하고 바람이 없는 날을 골라 조합원들을 동원해 불 놓기가 이루어졌다. - 풍향을 살피고, 바람이 불어오는 반대편 끝에 수 미터의 방화선을 구축한 다음, 조심스럽게 불을 놓았다. - 출력에 나선 사람들이 방화선을 넘어오는 불을 쫓다. - 그리고 방화선이 구축된 목장내의 중앙에도 불을 놓았다. - 1972년에 전통적 방식의 방앳불 놓기는 삼림보호라는 국가정책에 따라 금지되었다. - 방앳불 놓기는 목장내 진드기 유충을 구제하고 소들에게 새로 돌아난 연한 풀을 먹여주기 위해 행해졌다.		-발갈쇠의 역할을 농기계가 대신하면서 발갈쇠 훈련법, 코뚜레 만들기 소멸 -방앳불 놓기 소멸
목축문화요소	발갈쇠 가르치기, 발갈쇠 코뚜레, 방앳불놓기		
제보자	유수암리 공동목장조합장 강철호 유수암리 공동목장조합 총무 강용택	조사일시	2014.3.15
참고자료	『유수암리지』(2010)		

③ 장전리 목축문화

조사마을	조사내용		보존상태
애월읍 장전리	■ 말보다 소를 많이 - 과거에는 집집마다 말갈쇠 한 마리나 암소 한 두 마리가 있을 정도로 장전마을은 말보다 소를 많이 키웠다. - 장전마을 농경지에는 돌과 새(띠)의 뿌리가 많아 힘이 센 소가 발갈이에 이용되었다. - 말을 키우는 농가는 드물었다. - 말은 발로 차거나 물어뜯는 등 비교적 성격이 사나워 다루기 힘들다. - 무엇보다 말은 진드기에 매우 약하다. 죽은 말을 보면 귀속에 진드기가 꼭 차있는 경우도 있다. - 말의 경우, 예전에는 조랑말이었으나 일제 때에는 일본산 말 품종이 들어와 보급되었다. - 교잡마인 한라마는 우리 동네에 6~7년 전부터 들어왔다. ■ 암쇠물통 - 이것은 1937년 장전마을 공동목장조합원들이 목축에 필요한 물을 모으기 위해 만든 사각형의 급수통으로 암쇠들이 이용했으며, 현재도 남아있다. - 켓물오름 하단부에 위치한 급수장에는 준공당시 새겨놓은 “昭和十二年” 표지판이 있으며, 1937년 8월에 완성된 물통으로 조성시기가 확실한 공동목장유적이다, - 급수통 시설에 필요한 모래와 자갈은 당시 조합원들이 하귀 바닷가에서 등짐으로 운반해왔다. - 켓물에서 흘러내라는 물을 모아 이용하기 위해 만들었다. ■ 백중제 - 음력 7월 보름에 백중제를 지냈다. - 처음에는 켓물오름 정상에서 백중제를 지내다가 2010년부터 켓물오름 옆 동산에 마련된 제단에서 유교식으로 지내고 있다. - 비가 올 때는 켓물오름 아래에 있는 우막집에서 지냈다. - 제물은 개인보다 조합에서 준비했으며, 쌀밥에 새(띠)를 2개씩 나란히 3개 꽂아놓았고, 메·돼지머리·생선·채소(고사리, 나물)를 올렸다. ■ 상жат성 - 조선시대 5소장의 중심지에 위치한 장전리 공동목장 상부지역에는 상жат이 있어 트레킹 코스로 이용되고 있다.		-암쇠물통이 잘 정비되어 있으며, 백중제도 변형된 형태로 유지되고 있음.
목축문화요소	암쇠물통, 백중제, 상жат성		
제보자	강세표(장전공동목장조합장, 64세) 강덕희(전 조합장, 57세)	조사일시	2014.5.11.
참고자료	제주특별자치도 문화관광해설사회, 『제주서부지역의 공동목장사』(2011)		

조사마을	조사내용		보존상태
애월읍 장전리	■ 밭갈쇠 물통 - 장전 공동목장에서는 암쇠와 수소 즉 밭갈쇠가 먹는 물은 서로 달랐다. 밭갈쇠 물통은 일소인 부렁이가 먹었으며, 현재도 남아 있다. - 밭갈쇠는 켓물오름 동남쪽, 속칭 '절된밭'에 조합원들이 땅을 파서 조성한 물통의 물을 먹었다. - 암소와 수소가 서로 먹는 물이 달랐다는 것은 장전공동목장에 서는 암소와 수소를 분리시켜 방목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 구시물 - 송아지에게 물을 먹이던 물통이다. ■ 진드기 구제장 - 우마가 물을 먹으려 켓물로 모여들면 가둔 다음 DDT를 손으로 발라 주었다. - 진드기는 연중 3회 정도 7월말, 8월 중순, 9월 초에 구제했다. ■ 방앳볼 놓기 - 주민들이 동원되어 새 풀이 돌아나기 전인 2~3월경에 볼을 놓았다. - 방앳볼 놓기는 진드기 유충구제, 가시덤불 제거 등을 위해 행해졌다. - 1970년대부터 삼림보호를 위해 중단되었다. ■ 낙인 - 봄철 목장으로 쇠를 올리기 전에 송아지에게 낙인을 했다. - 대퇴부(왼쪽 넓적다리)에 낙인을 찍었다. - 개인낙인과 마을낙인 두 종류의 낙인을 사용했다. - 姜씨 집안은 丈(장), 마을낙인은 田이었다. - 낙인은 애월읍 구엄리에 있었던 불미왕(대장간)에서 만들었다. ■ 목장경계담 축조 - 목장경계돌담은 조합원들이 출력하여 축조했다. - 경계돌담은 주변의 자연석을 이용하거나 하жат성, 중жат성, 상жат성 돌담을 옮겨와 쌓았다. - 돌의 운반은 푸지게(등이 아프지 않도록 짚덩이를 넣어 만든 지게임)를 이용했다. ■ 우막집(테우리막사) - 켓물오름 정상 인근 아랫자락에 3평 남짓 도롱담(둥그렇게 쌓아올린 담)을 쌓아 올린 후, 지붕용 나뭇가지를 걸치고 그 위에 새(띠)나 어욱(억새)을 덮어 만들었다. - 테우들의 쉼터, 비가올 때 백중제 장소로 이용되었다. - 현재 복원되어 있다.		-밭갈쇠물통, 진드기 구제장, 목장 경계담은 남아있으며, 테우리막사는 최근 복원.
목축문화요소	밭갈쇠 물통, 진드기 구제장, 낙인, 목장경계담, 우막집		
제보자	강세표(장전공동목장조합장, 64세)	조사일시	2014.5.11.
참고자료	제주특별자치도 문화관광해설사회, 『제주서부지역의 공동목장사』(2011)		

④ 봉성리 목축문화

조사마을	조사내용		보존상태
애월읍 봉성리	■삼리 공동목장 탄생 - 1937년 ‘홀축발’에 어도공동목장이 조성되었다. - 중산간 마을인 봉성리가 주도하고 해안마을인 꼭지리와 금성리가 함께 하나의 공동목장을 조성했다. - 과거에는 5월에 소를 올려 12월에 몰아왔다. - 눈이 내리면 소들은 나무 밑으로 피했다. ■목감 - 목감은 조합원 중에서 희망자를 선정했다. - 6월부터 8월까지 3개월 정도 고용되었다. - 3개월 방목기간에 소 1마리당 보리 닛말을 보수로 주었다. - 목감은 목장에 소를 올릴 때 제를 지냈다. ■테우리막 - 목감들은 테우리막에 기거했다. - 테우리막의 형태는 원형이었다. - 벽은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돌을 이용해 원형으로 2m 정도 쌓아 올렸다. - 지붕은 비가 새지 않도록 초가집처럼 새(띠)를 이용해 촘촘하게 덮었다. - 바닥에는 억새를 깔아 땅에서 올라오는 습기를 차단했다. ■쉐(똥)장시 - 애월지역은 예로부터 ‘쉐(똥) 장시’들이 많았다. - 이들은 속칭 ‘육바리 장시’라고 불렸다. 사람의 다리 2개와 소의 다리 4개가 합해 생겨난 용어였다. - 발농사를 크게 했던 농민들이 많아 ‘발갈쉐’들이 집집마다 많았다. - 연자매를 돌리거나 운송용으로 길렀던 조랑말들도 많아 쉐(똥) 장시들이 등장했다. - 제주에는 우시장이 없었고, 소와 조랑말에 대한 국내외의 수요가 있어 쉐(똥)장시가 존재했다. - 우마를 구입하기 위해 봉성리와 인근 마을의 공동목장 그리고 남제주군의 여러 마을들과 한림읍 금악리부터 구좌읍 세화리까지 다녔다. - 태어난 지 3개월 정도 된 송아지를 구입해 마방에서 1년 동안 기르면, 시장에 내다팔 수 있는 비육우로 성장했다. - 구입한 큰 암소는 서울로 보냈다. - 송아지를 100만원 정도에 구입해 1년 동안 기르면 250만원 정도에 팔 수 있었다. - 비육우로 기르기 위해 집에서는 흙(똥)에 사료를 먹였다.		-목감과 테우리막, 쉐(똥)장시 소멸
목축문화요소	목감, 테우리막, 쉐(똥)장시		
제보자	강규방(전 삼리공동목장조합 이사, 75세) 양두행(봉성리 4025-1, 78세)	조사일시	2014.6.28
참고자료			

조사마을	조사내용		보존상태
애월읍 봉성리	■ 쇠(뿔)장시 - 조랑말은 일본상인으로부터 주문받아 구입했다. - 조랑말의 매입가는 상황에 따라 변동되었다. - 3세 이상의 조랑말을 일본상인에게 넘겼다. - 일본에서는 조랑말 고기를 통조림으로 제조했다. - 조랑말 매입가는 1두당 20~30만원 정도였다. - 우마 매입에 필요한 비용은 본인이 부담했다. - 현금이 부족한 경우, 외상거래를 하거나 현금을 보유한 개인에게 월 4푼의 비싼 이자를 주며 빌린 돈으로 매입했다. - 쇠(뿔) 장시를 하면서 경험이 많은 사람들은 이득을 남겨 집이나 땅을 사는 경우도 있었다. - 소를 비싸게 구입한 후, 서울 우시장에서 소 경매가가 낮게 형성되어 손해를 보는 사례도 있었다. - 음력 4월 말에 서울 마장동 우시장으로 공급되는 제주산 소는 시세가 높았다. - 이 시기에는 육지 소들이 논갈이에 투입되어 우시장에 많이 나오지 못하기 때문이었다. - 공동목장에서 구입한 우마들은 현장에서 바로 트럭에 실어 한림항이나 제주항으로 운송했다. - 말 1마리당 운송료는 2만원 정도였으며, 운송료는 본인이 부담했다. - 우마 운송용 트럭이 도입되기 전에는 일꾼을 빌어 항구로 운송했다. - 마을 청장년들이 우마 운송에 참여했다. - 보통 큰 소 2마리를 제주항으로 운송하는 비용은 15,000원 정도였다. - 소 20마리를 운송하기 위해 일꾼 10명을 고용할 경우, 운송비는 150만원 정도 발생했다. - 우마를 몰고 봉성리에 출발해 광령리를 거쳐 제주항에 도착하는데 4~5시간 걸렸다. - 제주항에서는 대한통운 배를 이용해 목포항으로 운송했다. - 오후 5~6시 쯤 제주항을 출발한 배는 다음날 오전에 목포항에 도착했다. - 우마를 배에 실은 쇠(뿔) 장시는 같은 배로 가거나 아니면 우마를 먼저 배로 보낸 뒤, 비행기로 서울 우시장에 가기도 했다. - 우시장이 열렸던 서울 마장동에서는 처음 자유판매제로 우마가 거래되었으나, 정부에서 위탁판매제를 시행한 결과, 안전하게 우마가 거래될 수 있도록 했다.		-쇠장시와 뿔장시는 소멸됨.
목축문화요소	쇠장시, 뿔장시		
제보자	양두행(봉성리 4025-1, 78세)	조사일시	2014.7.5
참고자료			

⑤ 상가리 목축문화

조사마을	조사내용		보존상태
애월읍 상가리	■ 켓담 - 공동목장의 경계담을 켓담이라고 불렀다. - 조합원과 마을주민들이 참여하여 켓담을 쌓았다. - 켓담을 따라 속성수인 숙대낭(삼나무)을 심었다. ■ 진드기 구제장 - 철제로 만들어진 구제장에는 동력분무기가 장착되었고, 일렬로 소가 통과하면 분무기를 통해 진드기 구제용 약물이 뿌어져 나왔다. - 5월에서 8월 사이에 15일에 한 번씩 진드기를 구제했다. - 진드기가 귀에 들어가면 소의 목숨이 위했다. - DDT가 보급되기 전에는 들판에 불을 놓거나 오줌께(오줌을 받아 놓은 항아리 밑에 가라앉은 찌꺼기)를 쥔신이나 걸레에 묻혀 보름에 한 번씩 말이나 소의 몸을 닦아주었다. ■ 관리사(목감집) - 목감들이 공동목장에 올라 온 소들을 돌보기 위한 집이다. - 목감은 소들이 올라오는 5월 10일부터 내려가는 10월 25일까지 5개월 동안 관리사에 머물렀다. ■ 낙인 - 상가리 전체의 낙인은 ‘上加’이며, 번씨 집안은 占자를 사용했다. - 일소에는 낙인을 하지 않고 목장에 방목하는 소에만 했다. ■ 귀표(耳標) - 귀표는 일제강점기에 시작되었다. - 애월면 축산계에서 파견된 축산조합직원이 백원짜리 동전 크기의 번호가 찍힌 이표(耳標)를 매달았다. - 이표를 매달면서 귀를 살짝 찢기도 했다. - 현재 이표는 일제 때보다 크기가 작다. ■ 중갓성 - 상갓 위쪽이 국유지로 되면서 방목과 화전이 어렵게 되자 상갓과 하갓 중간에 중갓을 쌓았다. - 봄부터 가을까지는 중갓과 상갓 사이의 공간에서 방목하고, 중갓과 하갓 사이에서 농사를 지었다. ■ 갯밭 - 상가리 일부 주민들은 우마를 기르는 계를 조직하여 계원들끼리 일정한 지역에서 소를 관리했다. - 이런 밭을 ‘갯밭’이라 했다. - 계원은 보통 10명 내외였으며, 소 100두 정도를 관리했다. - 공동목장 가까운 곳에 목야지를 확보하여 돌로 경계를 쌓았다.		-켓담, 진드기구제장, 목감집은 남아있음.
목축문화요소	켓담, 낙인, 목감집, 진드기 구제장		
제보자	상가리목장환원대책추진위원회 위원장 김화중 김재문(전 목장조합장, 애상로 258-4, 84세)	조사일시	2014.7.13
참고자료	제주특별자치도 문화관광해설사회, 『제주서부지역의 공동목장사』(2011)		

조사마을	조사내용		보존상태
애월읍 상가리	■백중제 - 상가리의 백중제는 개인이 각자 알아서 했다. - 상가리 1457번지 일대의 제석동산에서 고사를 지냈다. - 현재는 목감 관리사 건물 안에서 백중제를 지낸다. ■목감 - 상가리 공동목장에는 목감이 4~5명 있었다. - 1명은 밥하고, 물 길러오는 등 취사전담, 나머지 목감들은 목장에 있는 소들을 관리했다. - 아침에 일어나면 소의 행방을 확인하고, 밤에 새끼를 낳은 소가 있는지 확인한다. - 소들이 농작물에 피해를 주기도 했다. - 소를 잃어버리면 주인에게 연락을 취한 후 찾으러 나갔다. 한 해 별이를 잃어버린 소에 대한 배상금으로 지불한 사례도 있다. ■목감의례 - 5월 10일 소가 공동목장에 입식하는 날에 행했다. - 저녁 9시경에 제를 지낸다. - 음식으로는 돼지머리·옥돔·명태·술 그리고 낭푼에 넣은 밥을 올린다. ■쇠장시 - 6·25 전쟁이 끝나고 제주소들이 많이 팔렸다. - 목장에 자유롭게 방목했던 야우(野牛)를 구입했다. - 제주소는 크기는 작았지만 고기가 맛이 있어 수요가 많았다. - 상가리 소들은 한림항으로 데려갔다. - 밤 10시에 한림항에서 배를 타면 새벽에 부산에 도착했다. - 부산에서 다시 화물차로 출발해 서울 마방에 도착하면 어두워졌다. - 화물차 안에서는 아무것도 먹이를 주지 않고 마방에 도착해서야 먹이를 주었다. - 당시 마방은 영등포와 마장동에 있었다. - 10~15년간 제주소들의 인기가 높았으나, 사료를 먹은 육지소들의 고기맛이 좋아지면서 제주소의 인기가 주춤했다.		-백중제, 목감의례는 남아있으나 쇠장시는 소멸
목축문화요소	백중제, 목감, 목감의례, 쇠장시		
제보자	변태민(상가리 노인회장, 쇠장시 경험자) 김태문(전, 목장조합장, 애상로 258-4, 84세)	조사일시	2014.7.13
참고자료	제주특별자치도 문화관광해설사회, 『제주서부지역의 공동목장사』(2011)		

⑥ 광령리 목축문화

조사마을	조사내용		보존상태
애월읍 광령리	■ 상산방목 - 상산에 방목하는 소를 ‘산쇠’라 불렀다. - 어릴 때 엉덩이에 光 또는 승자 낙인을 찍고 귀를 찢어 표시한 다음 상산에 올렸다 - 상산에 올린 소들은 새끼를 낳고 살다가 추워지면 스스로 집을 찾아왔다. - 상산에서 소를 찾을 때 고사를 지냈다. - 암쇠와 송아지를 함께 올렸으며, 밭갈쇠는 일 소여서 상산에 올리지 않았다. - 상산에서는 무료로 방목되었다. - 이곳의 소와 말들은 ‘ㄴ대’(조릿대)를 잘 먹었다. - 어리목에서 사제비 오름으로 소를 올렸다. - 소가 올랐던 길을 ‘쉐질’이라 했다. - 아무리 경사가 급해도 소 한 마리가 앞장 서 올라가면 줄지어 나머지 소들이 따라 올라갔다. - 상산에는 진드기, 파리가 없었다. - 상산에 있는 ‘막은 다리’는 사방이 막힌 곳이어서 소를 집으로 데려와야 하는 상황일 때 여기로 소를 몰아 소의 목에 줄을 걸어 잡았다. - 상산에 소를 올린 후 10일에 한번 정도 올라가 방목상태를 확인했다. - 6월 농사가 끝나 상산에 우마를 올렸다가 양력 10월을 전후해 각자 편한 날짜에 데려 왔다. - 당시 만세동산에 올렸던 소들이 남제주군(현재 서귀포시) 중문면 하원리 동쪽으로 내려가기도 했다. - 하원마을로 내려가는 ‘쇠테’(소의 무리)로 들어가 버려 하원마을에서 찾아오는 사례도 있었다 - 한라산이 국립공원으로 지정되면서 상산방목이 금지되었다.		-상산방목은 1980년대초에 소멸됨.
목축문화요소	상산방목		
제보자	고치훈(78세, 광령1리 1227번지) 진봉문(76세, 광령1리 1181) 양재안(89세, 광령1리 1261번지) 김장현(74세, 광령1리 1247-2) 김덕철(71세, 광령1리 1090번지)	조사일시	2012. 11. 8
참고자료	『광령약사』(1990)		

⑦ 금악리 목축문화

조사마을	조사내용	보존상태
한림읍 금악리	■소가 많았던 금악리는 옛말 - 금악리는 축산마을로 알려졌다. - 이제는 소나 말보다 돼지를 많이 키운다. - 마을사람보다는 외지인들이 금악리에서 양돈장을 운영하고 있다. - 돼지 똥 냄새가 천지를 진동해 문제가 많다. - 소는 1년에 1회 한 마리의 송아지를 생산하는 반면에 돼지는 1년에 두 차례 여러 마리의 새끼돼지를 생산하므로 수익성이 높다. - 양돈수입으로 제주시내에 집 한 채씩을 마련한 사람들이 많다. ■공동목장 - 금악봉, 당오름이 공동목장이다. 일부는 블랙스톤 골프장에 매도했다. 금악봉과 당오름 목장을 합해 ‘금당목장’이라고 부른다. - 조합원은 100여명이 있으나 실제로 축산에 종사하는 사람은 수가 적다. 요즘은 우마보다 돼지를 키운다. - 금악봉은 탐방객들이 많아 방목하고 있지 않다. ■백중제의 변화 - 공동목장에 방목하는 소의 수가 줄어들면서 백중제를 지내지 않는다. - 공동목장에 소를 입식하는 날 간단히 방목기간 동안의 무사고를 기원하며 고사를 지낸다. ■목감 - 목장조합에서 방목을 책임질 목감을 선정한 다음, 급료로 소 1마리당 하루에 450원을 지출했다. ■낙인 - 가문별로 낙인을 했다. -朴씨 집안은 丁, 姜씨 집안은 巾 자로 낙인 했다. ■상산에 쉼 올리기 - 여름철에는 상산으로 쉼을 올려 방목하고 겨울철에는 마을근처 ‘알곶’에서 길렀다. - 알곶을 ‘하처림’이라하며, 꽃자왈이기 때문에 겨울철에도 출입하지 않았다. - 금악리에서 출발해 솔또(애월읍 봉성리 화전동)에 도착하고 이곳에 있는 ‘믈튼믈’에서 물을 먹인 다음, 백록담을 향해 소를 몰고 가서 방목했다. ■부거니힐 물통 - 약 600평 크기의 봉천수 물통이었다. - 과거에는 소들이 물을 먹으러 오면서 바닥을 밟아주어 단단해져 항상 물이 철철 넘쳤으나 지금은 이용하지 않다보니 물이 빠져나가 바닥이 드러났다.	-공동목장, 부거니힐 물통 남아 있음 -목감, 낙인,상산방목 소멸
목축문화요소	공동목장, 목감, 낙인, 상산방목, 급수통	
제보자	강인선(금악리 2173-5, 68세)	조사일시
참고자료	2014.8.6	

⑧ 송당리 목축문화

조사마을	조사내용		보존상태
구좌읍 송당리	■ 멤쇠(반작쇠) - 구좌읍 해안마을인 하도, 세화, 평대, 월정리 소들을 대상으로 멤쇠가 행해졌다. - 멤쇠로는 하도리 쇠가 가장 많았다. - 멤쇠는 초지가 부족했던 해안마을에서 송아지를 낳을 수 있었던 암소를 초지가 풍부했던 중산간 마을 주민들에게 대신 기르게 한 다음 암소가 새끼를 낳으면 반반씩 나누어 갖는 것을 의미한다. - 소가 없었던 어려운 사람들이 멤쇠를 했다. - 구두계약을 통해 여러 해 동안 이루어지기도 했다. ■ 바령 - 송당리도 땅이 척박하여 거름이 필요했다. - 낮에는 우마들에게 산야에서 풀을 뜯어먹게 하고, 밤에는 풀이 자라고 있는 일정한 밭에 가둔 다음, 아침까지 똥오줌을 싸게 했다. - 동시에 우마들이 왔다갔다하며 풀을 밟게 하면 우마들의 배설물과 풀이 합해져 거름이 된다. - 바령에 이용되던 소를 ‘바령쇠’라고 하며, 집에서 기르는 소와 해안마을에서 위탁받은 멤쇠도 바령에 투입되었다. - 해안마을 소들(말개는 200두 정도)이 마을에 올라와 있는 동안 마을에 밭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바령을 들여 달라’고 부탁했다. ■ 낙인 - 광산김씨는 ㅏ, 남양홍씨는 ㅑ, 이밖에 ‘송, ㅓ, ㅕ, ㅖ, ㅗ, ㅛ’ 등이 낙인자로 이용되었다. ■ 백중제 - 바령밭이나 ㅓ쉬를 키우던 캐에서 이루어졌다. ■ 발갈쇠 - 발갈이에 말보다 소를 많이 이용했다. 밭에는 돌이 많아 수소를 이용해 밭을 갈았다. - 말은 마차용으로 이용되었다. ■ 공동목장 - 송당리 동동마을은 높은오름·문석이오름, 섯동은 거친오름, 상동은 돌오름·아부오름·체오름에 공동목장을 가지고 있으며, 아부오름(앞오름)만 마을소유지이고 나머지는 공유지여서 제주시에 임대료를 지불하며 이용하고 있다. ■ 국립목장과 이승만 대통령별장(귀빈사) - 1950년대 정부가 육우생산을 위해 설치했던 제주국립목장터가 있으며, 현재 민오름 하단부에 근대역사유산으로 지정된 이승만 대통령별장(귀빈사)이 복원되었다. ■ 1소장의 동서간장(間牆) - 안돌오름과 밭돌오름 사이에는 조선후기 1소장의 동장과 서장을 구분하던 돌담이 남아있다.		-멤쇠, 바령, 낙인, 발갈쇠는 소멸 -백중제, 공동목장은 유지. -대통령별장이 최근 복원됨.
	목축문화요소	멤쇠(반작쇠), 바령, 낙인, 백중제, 방앳불농기, 발갈쇠, 바령쇠, 공동목장	
제보자	홍태화(송당리 비자림로 1761, 79세)	조사일시	2014.8.7
참고자료	제주특별자치도 문화관광해설사회, 『제주동부지역의 공동목장사』(2010)		

2) 서귀포시 지역

① 하원동 목축문화

조사마을	조사내용		보존상태
서귀포시 하원동	■ 윤환방목 - 하원공동목장은 환경사지가 넓지 못하고 곳곳에 암석들이 많아 목장 내에서 경계림을 심지 못했다. - 하원목장을 동서로 관통하는 중산간 산록도로가 목장을 남북으로 이등분하고 그 속에서 도순천 지류 등 지형지물을 적절히 이용해 6개 부정형의 윤환방목 공간을 만들었다. - 소들을 한 구역에서 5일씩 풀을 뜯게 하면서 점차 다른 구역으로 이동시키며 방목한다. - 한 달이 되면, 다시 순환주기가 된다. ■ 쇠가 사람보다 더 좋은 물을 - 공동목장까지 수도를 연결할 수 없어 원수운(56)씨를 비롯한 조합원들은 한라산 영실매표소 근처에 있는 영실물과 목장을 연결하는 8km 수도관을 설치한 결과, 우마들은 목장내 급수장 3곳에서 연중 시원한 영실물을 먹을 수 있었다. - 마을사람들은 한라산에서 내려온 물을 ‘언물’이라고 부른다. ■ 화입 - 공동목장에 불 놓기는 목장에서 방목했던 소들을 축사로 옮기고 가시덤불에 뿌린 농약이 마르면 이루어졌다. - 하원마을에서는 이를 ‘화입(火入)’이라고 했다. - 현재는 가시덤불이 우거진 장소를 대상으로 서귀포시청의 허가 와 소방서의 협조를 받아 소방차를 대기 시킨 채 불놓기를 한다. - 불 놓기를 하고난 후에는 목초씨앗을 뿌려 돌아나는 풀들을 소들이 먹을 수 있게 했다. - 다른 마을에서는 이른 봄철에 화입을 했던 반면에 이 마을에서는 겨울에 화입을 한다는 것이 특징이다. - 풀이 마른 겨울에 소들을 공동목장 내에 만들어진 대규모 축사(서귀포시청의 지원을 받아 건축된 건물)로 옮긴 다음, 불 놓기를 했다.		-윤환방목, 화입 유지
목축문화요소	윤환방목, 화입		
제보자	원수운(전 하원공동목장조합총무, 56세)	조사일시	2014.4.12
참고자료	『하원향토지』(1999)		

조사마을	조사내용		보존상태
서귀포시 하원동	■ 낙인 - 이 마을의 낙인은 ‘하원(下元)’이라고 했다. - 한라산 상산(백록담 부근)에 소를 올리면, 애월읍 구엄리(해안마을)·광령리 마을 소들과 같은 구역에서 방목되었다. - 낙인이 없는 소들은 도둑을 맞는 경우도 있었다. - 낙인이 있는 소를 훔쳐 들키면 크게 곤욕을 치렀다. - 현재는 낙인을 하지 않고, 귀표를 한다. - 귀표에는 관청에 등록된 고유의 일련번호가 적힌다. ■ 테우리 작대기 - 목장에 소를 보러 갈 때는 밧줄과 기다란 작대기를 가지고 간다. - 작대기 끝에 밧줄을 연결해 소의 목에 걸려 잡았다. - 작대기는 150cm 정도이며, 종냥(떼죽나무)으로 만들고, 2년 정도 쓰면 새로 만든다. - 이 작대기는 몽골의 ‘오르가’와 유사하다. - 오르가는 말을 포획할 때 쓰는 긴 버드나무 막대기를 말한다. 오르가 끝에 줄을 매달아 말을 잡을 때 이용했다. ■ 목축의례 - 목장에 처음 소를 올리는 날, 조합장은 아침 6시가 되면 돼지머리, 쇠고기, 쌀밥, 솔라니, 미나리, 콩나물, 고사리, 소주, 음료수, 향 등을 준비해 제를 올린다. - 제물은 모두 날것으로 한다. - 현재 백중제는 따로 지내지 않는다. ■ 질병치료 - 소가 설사할 때 황벽나무 가지를 달여 만든 물을 먹인다. - 소의 쓸개에 우황이 들면 살이 찌지 않는다. - 발톱 사이가 벌어져 염증이 생기면 밧줄에 콧(소기름)을 발라 박박 문질러 준다.		 제주도 대표 테우리 하원동 원수윤(56) -낙인은 귀표로 대체 -목장에서 제 지내기 유지됨.
목축문화요소	낙인, 테우리 작대기, 목축의례, 질병치료		
제보자	원수윤(전 하원공동목장조합총무, 56세)	조사일시	2014.4.12
참고자료	『하원향토지』(1999)		

조사마을	조사내용		보존상태
서귀포시 하원동	■ 쇠막 동티 - 동티는 건드려서는 안 될 땅을 파거나, 돌을 옮기거나 나무를 베었을 때 지신(地神)이 화를 내면서 일으키는 일종의 보복을 의미한다. - 쇠막에 동티가 나면 소가 죽는다는 말이 있다. - 이때에는 외양간에 상을 차리고 동티를 다스리는 사람을 불러 풀어야 했다. - 우선 소 머리 쪽에 상을 차린다. - 상 위에는 멧밥(쌀밥), 머리고진 솔라니(구운 옥돔), 술, 물을 올린 다음 마귀경(마구경)을 세 번 읽으며 동티를 일으킨 지신을 달랬다. ■ 상산에 쇠 올리기 - 공동목장의 소들은 더워지면 상산(백록담 아래 선작지왓, 윗세오름 일대)에 올라가 풀을 먹었으며, 집에서 키우던 소들도 상산에 올려 방목했다. - 하원동에서는 4~5월에 공동목장에서 일부 소를 상산으로 올렸다. 상산에서는 대체로 10월까지 방목했으나 농사 사정에 따라 8월에 소를 데려오는 경우도 있었다. - 여름철 비바람이 불 때 소들은 구상나무 숲속으로 들어가 비바람을 피했다. - 상산에 방목중인 소들은 ‘쇠떼’(소의 무리)를 따라 옛 북제주군 지역인 애월읍 장전·상가·금덕, 심지어 하귀마을까지 내려가는 경우도 있었다. 방목 중에 잃어버린 소들은 낙인을 보고 서로 연락을 취해 찾을 수 있었다. - 상산방목이 이루어질 때 테우리(목자)들은 서로 인정이 있어서 다른 마을 소를 보면 인편을 통해 알려줬다. - 상산에서 잃어버린 소를 찾으러 갈 때 솔라니·향·양초를 준비한 다음 상산에 있는 큰 바위 위나 궤에서 고사를 지냈다. - 잃어버린 소들은 애월읍 소길리, 장전리 심지어 한림읍 금악리 마을에서 찾기도 했다. - 상산에 우마를 올렸던 상산방목 문화는 한라산이 1970년 7월부터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후 자연보호를 이유로 금지되었으나, 하원마을에서는 몰래 1990년까지 상산에 소를 올렸던 사람도 존재한다.		-쇠막동티, 상산에 쇠 올리는 모두 소멸됨.
목축문화요소	쇠막동티, 상산에 쇠 올리기		
제보자	강용규(88세, 하원동 1317) 김기윤(75세, 하원동 419)	조사일시	2014.3.16
참고자료	『하원향토지』(1999)		

② 상호동 목축문화

조사마을	조사내용	보존상태
서귀포시 상호동	■ 상산에 쇠 올리기 - 해발 1400m 이상의 고지대가 '상산'이었고, 이곳에는 초지와 물이 풍부했다. - 5월말부터 '쉬포리'(소에 달라붙는 파리)가 생기기 시작하면 쇠들이 상산에 올라가려는 듯 저절로 엉덩이를 들썩 거린다. - 마을사람들은 일정한 날을 정하여 상산에 소를 올린다. - 상산에 올린 소는 한우가 대부분이며 간혹 흑우('검은쇠', '꽃쇠(野牛)'와 '꽃말(野馬)')들도 섞여있었다. - 소를 찾으러 갈 때 의례를 행했다. - 굶지 않은 마른 생선(솔라니 : 옥돔으로 현장에서 굶는다), 양초, 향을 향고(반납)에 담고 갔다. - 향고는 밥을 할 때도 쓰였다. - 상산에 '쇠'를 올릴 때마다 방목 우마의 무사함을 기원하는 제를 지냈다. - 돈네코 등반로에 있는 평지궤에서 한라산 남벽을 보며 제를 지냈다. - 상산에 올렸던 소 중에서 '부랭이'(어린 수소)들은 한 자리에 오래 있지 않아 잃어버리는 사례가 있었다. - 다른 암소를 따라 이동해 잃어버리는 경우도 있었다. - 열흘에 한 번씩 상산에 올라가 새끼를 낳았는지 또는 바위에 다리가 끼어 죽지 않았는지 확인했다. - 새끼들은 비바람 때문에 죽는 경우가 있었다. - 낙인은 처음에 토평마을의 '平'을 쓰다가 나중에 8자로 바꾸었다. - 다른 집에서는 낙인으로 '八'자를 쓰기도 했다. - 상산에는 진드기가 없어 우마들의 살이 찼다. - 상산 쇠는 살찌고 탄탄하여 인기가 많았다. - 해발 1400~1700m 일대의 맑은 물과 공기와 바람 그리고 진드기가 없고 약초와 같은 풀들이 상산 소를 길러 품질 좋은 소가 될 수 있었다. - 상산에 방목시킨 우마들은 '지름장풀', 조릿대 잎을 먹었다. - 상강 이후 추워지기 시작하면 소들을 데려온다. 일부는 저절로 집으로 내려오는 경우도 있었다.	- 상산 방목은 1980년대 초에 소멸됨.
목축문화요소	상산방목	
제보자	오세창(62세, 상호동 2302)	조사일시
참고자료		2012.11.17

③ 하효동 목축문화

조사마을	조사내용		보존상태
서귀포시 하효동	■상산에 쉼 올리기 - 여름철 좁쌀 파종이 끝나 더워지기 시작하면 소들이 저절로 날 뛰었다. - 우마를 백록담 인근의 방애오름~윗세오름 부근으로 이동시켜 방목했다. - 상산은 고지대여서 시원한 바람(‘상산브람’)이 불고, 진드기가 거의 없는 곳이었다. - 1960년대까지만 해도 여름 농사에 지친 소들을 서늘한 ‘상산’에 올려 쉬게 했다. - 소를 상산에 올리는 날은 무더위를 피해 새벽에 일어나 같은 동네에서 서너 명씩 모여 이동했다. - 소를 몰고 상산으로 올라가는 길은 돈네코 등반로를 이용했다. - 소의 건강과 안전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1주일 또는 10일 간격으로 소를 보러 올라갔다. - 서부락 사람들의 방목지인 ‘앞갈퀴’는 돌들이 많으나 풀들이 풍성했다. - 동부락 사람들의 방목지인 ‘속밭’은 평탄하고, 태풍이 불어도 피해가 적은 곳이었다. - 상산에 올린 소들은 한라산을 넘어 북쪽으로 가버리기도 했다. - 처서가 넘어가 추워지기 시작하면 소를 몰러 간다. - 소들이 스스로 집으로 걸어 내려오는 경우도 있었다. - 상산 방목지로 쇠를 찾으러 갈 때에는 ‘곤밥’(쌀밥)에 옥돔구이 반찬을 하여 가져갔다. - 평소에는 ‘조팝’을 먹다가도 소를 찾아 나설 때는 ‘곤밥’(쌀밥)을 해갔다. 이것은 소를 찾게 해달라고 고사지내기 위함이었다. - 소를 하루 안에 발견하지 못하면 찾을 때까지 상산에 머물러야 했다. - ‘평지케’에서 숙식했다. 이곳에는 7~8명이 함께 누울 수 있는 공간이었다. - 밤에는 추위 ‘소리낭’을 태우며 추위를 극복했다. - 여름철에 방목상태를 보기 위해 상산에 올라와 비를 만났을 때도 평지케를 이용해 비를 피했다. ■낙인과 귀표 - 마을낙인은 下였으며, 귀를 찢어서 표식을 했다.		-상산방목은 1980년대초에 소멸됨. 낙인과 귀표도 중단.
목축문화요소	상산방목, 낙인과 귀표		
제보자	정성호(72세, 하효동 193-1) 고성수씨(79세, 하효동 734-3)	조사일시	2008.10.5
참고자료	『하효지』(서귀포시 하효마을회, 2010)		

④ 가시리 목축문화

조사마을	조사내용			보존상태
표선면 가시리	■부구리(진드기) 구제장 - 80년초까지 이용되었으며, 진드기는 소의 피부에 달라붙어 피를 빨아먹는 해충으로 퇴치하지 않으면 소의 정상적인 성장이 위협당했다. - 진드기 구제장은 낙인(烙印) 장소로도 이용되었다. ■목감막(테우리막) - 우마를 관리하는 테우리들이 방목기간에 임시로 거처하던 집이었다. ■목감 - 공동목장에 고용된 목감은 2009년까지 존재했다. - 이들은 1년 중 7개월을 공동목장에서 근무하며, 목감료로 월 100만원 정도 받았다. - 목장에 소를 방목한 조합원 중에서 선임했다. - 목감막에서 거주하며 방목한 소를 관리했고, 우마를 잃어 버렸을 때 책임지도록 했다. ■급수장 - 방목 우마에 물을 먹이는 시설이다. - 공동목장조합에서는 1985년 대록산 남쪽 하단부에 가축급수장을 마련했다. - 인공연못도 만들어 물을 확보하다가 현재는 지하수를 이용했다. ■윤환방목(輪換放牧) - 공동목장을 몇 개의 목구(牧區)로 구분한 다음, 초생상태에 따라 차례로 이동하며 방목하는 방법이다. - 윤환방목의 대상은 전적으로 소였다. - 방목할 소의 수에 따라 목구의 수와 넓이, 방목일수를 결정하여 이루어진다. - 한 구역에서 풀을 다 뜯어먹으면 다른 구역으로 우마를 이동시키는 형태이다. ■방목기간과 한우입식 - 대체로 청명(4월5일경)부터 상강(10월 22일경)까지 방목이 이루어졌다. - 처음에는 한우들이 공동목장에 방목되다가 점차 육성우로 대체되었다. - 한우는 발갈이, 짐을 실어 나르기, 수레 끌기 등 역우(役牛)로 중요한 역할을 했다. - 한우는 조사료(粗飼料)에도 잘 견딜 뿐만 아니라 방목기간 중 진드기 등 해충에도 저항성이 강했다. - 1970년에 정부의 축산진흥정책이 실시되면서 육성우 사육을 희망하는 농가에게 자금을 융자해줌에 따라 육성우가 증가했다.			-부구리 구제장, 목감막, 급수장, 윤환방목은 현재도 유지됨.
목축문화요소	부구리 구제장, 목감, 목감막, 급수장, 윤환방목			
제보자	안봉수(전 가시리 신문화공간조성 추진위원회 위원장)	조사일시	2010.8.15	
참고자료	『가시리문화지도』(2010), 『加時里誌-가스름』(1988)			

조사마을	조사내용	보존상태
표선면 가시리	■방앗불농기 - 월동한 진드기 유충과 잡초들을 제거하기 위해 겨울철이나 이른 봄에 불 농기를 했다. - 이른 봄 들판에 쌓였던 눈이 녹아 마른 풀이 드러나는 음력 2월이나 3월 초순에 이루어졌다. - 마을 공동조림지 주변에 너비 10여m의 폭으로 방화선을 구축한 다음 공동목장에 불을 놓았다. ■낙인 - 낙인(烙印)은 자기의 성씨나 마을별 또는 문중별로 정해진 약자를 사용하였다. - 낙인을 불에 달군 다음 마소의 네발을 묶고 넘어뜨린 뒤 대퇴부에 찍었다. - 낙인찍는 작업은 비단 어린 새끼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며, 공동목장에 풀어놓는 다 자란 소들에게도 필요할 경우 낙인을 찍었다. - 낙인글자로는 ㄷ-O(머리둘레송곳 : 경주김씨), O-(꼬리둘레송곳 : 안집), 生•仁(吳집), 工(鄭집), 井•乃(康집) 등 ■귀표코시 - 귀표로 인해 상처가 덧나지 않기를 비는 고사이다. - 귀표를 할 때 잘라낸 귀 조각을 구워서 접시에 올려 고사를 지낸다. - 제물은 송아지의 귀 구운 것, 제숙, 조오메기떡, 좁쌀 탁배기를 올리고 그 옆에 밧줄, 낙인도 같이 올린다. - 절은 하지 않고 올린 음식을 조금씩 떼어 앞 방향으로 던져 코시하고, 입에 담은 술을 낙인에 뿌린다. - 다시 술을 입에 담아 동쪽과 서쪽으로 뿜어 준 다음 음복으로 구운 귀를 나누어 먹는다. ■바령 - 예전에는 이웃의 우마들을 맡아 돌보며 아침이면 풀이 무성한 곳에서 먹인 후 저녁 때 바령 밭에 가둔 다음 분뇨를 배설하게 했다. - 우마의 분뇨는 거름이 되어 곡식을 잘 자라게 했다. ■백중제 - 음력 7월 14일, 가축을 사육하는 집에서는 제물과 제주를 준비하여 바령밭이나 공동목장, 테우리 동산에 모여 우마의 번성을 기원하며 올리던 고사였다. - 보통 밤 자시(子時: 밤 11시부터 오전(午前) 1시)에 지내는데 낮에 지내는 사람도 있으며, 현재도 공동목장 내 테우리동산에서 행하고 있다.	- 방앗불농기, 낙인, 바령은 사라졌으나, 귀표, 백중제는 유지됨.
목축문화요소	방앗불농기, 낙인, 귀표, 바령, 백중제	
제보자	안봉수(전 가시리 신문화공간조성 추진위원회 위원장)	2010.8.15
참고자료	『가시리문화지도』(2010), 『加時里誌-가스름』(1988)	

⑤ 수산리 목축문화

조사마을	조사내용		보존상태
성산읍 수산리	■진드기 구제 - “불알에 진독 올라 반?” : 방목했던 소에 여름철이면 배가 둥근 진드기들이 달라붙어 피를 빨아먹었다. - 진드기 피해가 많으면 소가 점점 말라간다. - 과거에는 부구리 채를 가지고 진드기를 소의 배에서 쓸어 내렸다. - 근래에 오면서 DDT를 몰어 풀어 수건에 적신 다음, 소의 사타구니, 목덜미, 배, 귀에 붙어있는 진드기를 구제했다. - 소의 등에는 진드기가 잘 붙지 않는다. 이곳에 진드기가 붙으면 쇠 ‘꿀랑지’가 치기 때문이다. ■테우리 음식 - 테우리들은 점심 밥을 우마 방목지에서 해결했다. - 아침에 암수로 되어 있는 ‘차반지’에 보리밥, 물외, 된장을 담고 목축지로 출발해 방목하다가 점심을 먹었다. ■물 먹기 - 소와 말 그리고 테우리들은 목장에 고여 있는 물을 먹었다. - 목장지대에는 용천수가 없기 때문에 빗물이 고여 있는 곳이었다. - 쓰고 있던 패랭이를 고인 물통에 담그면 패랭이 안으로 아쟁이(찌꺼기) 없는 깨끗한 물이 올라오면 이 물을 먹었다. 그러나 자주 설사를 했다. ■목축법 - 우마를 기르는 것을 “모쉬고꾼다”고 했다. - 백중 전에 낙인과 귀표를 했다. - 낙인은 성씨별로 다르게 했다. - 귀표는 귀를 약간 째는 것이다. - 수산마을의 방목지는 궁대오름(238.8m) 지경으로 초지가 넓고, 곳곳에 습지가 있었다. - 수산평은 성읍리와 수산리 사이에 있는 넓은 초지로 원나라가 설치했던 목장터로 알려진다. ■발갈이 - 발갈이 할 때 말보다 소를 이용했다. - 가난한 사람들은 말을 이용해 발을 갈았다. 말은 소보다 값이 싸다(소의 1/3정도) ■수산평 탐라목장 - 수산평은 궁대오름 일대이다. - 원나라가 동아막을 설치해 탐라목장을 운영했던 곳이다.		-방목지보다는 축사에서 비육우를 기르고 있어 전통적 목축문화들이 변질되거나 소멸
목축문화요소	진드기 구제, 테우리 음식, 낙인, 귀표, 수산평, 발갈이		
제보자	오원일(성산읍 수산리 579번지, 55세)	조사일시	2014.8.5
참고자료	『수산리지』(1994)		

4) 실태조사 결과

(1) 제주시 목축문화 실태

조사지역		목축문화요소	보존상태
제주시 (8)	제주시 오등동	출력, 진드기 구제, 멍쇠, 낙인, 테우리 고사, 공동목장 증토비	- 출력, 진드기 구제, 테우리 고사는 현재도 행해지고 있음. - 낙인과 멍쇠는 소멸되었음. - 공동목장 증토비 남아있음.
	애월읍 유수암	윤환방목, 출력, 목감, 발갈쇠, 발갈쇠 가르치기, 발갈쇠 코뚜레, 방앳불 놓기	- 목감과 발갈쇠는 사라졌지만, 출력과 윤환방목은 현재도 유지됨. - 농기계가 보급되면서 발갈쇠 가르치기, 코뚜레 만들기는 사라짐. - 방앳불 놓기 사라짐.
	애월읍 장전리	암쇠물통, 백중제, 발갈쇠물통, 진드기 구제장, 낙인, 목장경계담, 우막집(테우리막)	- 암쇠물통이 잘 정돈되어 있으며, 백중제도 변형된 형태로 유지됨. - 발갈쇠물통, 진드기 구제장, 목장경계담은 남아있고, 우막집 최근 복원됨.
	애월읍 봉성리	목감, 테우리막, 쇠장시, 들장시	- 목감과 테우리막, 쇠장시와 들장시 모두 소멸됨.
	애월읍 상가리	귀표, 중갓, 갯밭, 켓담, 낙인, 목감집, 진드기 구제, 백중제, 목감, 목감의례, 쇠장시	- 켓담, 진드기 구제장, 목감집 있음. - 이표, 중갓성은 남아있으나 갯밭은 사라짐. - 백중제, 목감의례는 남아있으나 쇠장시는 소멸됨.
	애월읍 광령리	상산방목	- 상산방목은 1980년대초에 소멸됨.
	한림읍 금악리	공동목장, 목감, 낙인, 상산방목, 급수통	- 공동목장, 부거니힐 물통은 있음. - 목감, 낙인, 상산방목은 소멸됨.
	구좌읍 송당리	멍쇠(반작쇠), 바령, 낙인, 백중제, 방앳불놓기, 발갈쇠, 바령쇠, 공동목장, 국립목장, 이승만대통령 별장, 1소장의 동서 간장(間牆)	- 멍쇠, 바령, 낙인, 발갈쇠, 국립목장은 사라졌지만, 백중제, 공동목장, 이승만대통령 별장, 동서간장은 유지됨.

(2) 서귀포시 목축문화 실태

조사지역		목축문화요소	보존상태
서귀포시 (5)	서귀포시 하원동	낙인, 테우리 작대기, 목축의례, 질병치료, 윤환방목, 화입, 쇠막동티, 상산에 쉼 올리기	- 윤환방목, 화입은 현재도 유지됨. - 낙인은 귀표로 대체되었고, 목장에서 제 지내기 유지됨. - 쇠막동티, 상산에 쉼 올리기는 모두 소멸됨.
	서귀포시 상효동	상산방목	- 상산방목은 1980년대초에 소멸
	서귀포시 하효동	상산방목, 낙인, 귀표	- 상산방목은 1980년대초에 소멸. - 낙인과 귀표도 사라짐.
	표선면 가시리	부구리 구제장, 목감, 목감막, 급수장, 윤환방목, 방앳불 놓기, 낙인, 귀표, 바령, 백중제	- 부구리 구제장, 목감막, 급수장, 윤환방목은 현재도 유지. - 방앳불놓기, 낙인, 바령은 사라졌으나, 귀표, 백중제는 유지됨.
	성산읍 수산리	진드기 구제장, 테우리 음식, 목장에서 물 먹는 방법, 낙인, 귀표, 수산평, 발갈쉐	- 방목지보다는 축사에서 비육우를 기르고 있어 전통적 목축문화들이 변질되거나 소멸됨.

4. 실태조사 결과에 따른 정책적 시사점

1) 목축문화 평가지침

- 13개 마을의 목축문화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파악된 목축문화 구성요소들 가운데 마을별로 가장 대표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1~2개의 요소들을 선정해 이들의 보존상태·문화성·역사성 등 세 가지 항목을 주요 평가기준으로 삼았음. 필요에 따라 13개 사례마을 이외의 목축문화 요소도 포함시켰음.
- 각 항목에 대해 중요도에 따라 5, 4, 3, 2, 1등급으로 나눈 다음, 이를 각각의 목축문화요소에 적용시켜 합산시킨 값을 추출한 후, 합산한 값이 15~12이면 A, 11~8이하면 B, 나머지는 C로 분류함.
- 목축문화에는 정신문화와 물질문화가 공존하고 있어 이 문화유산에 대해 등급화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며, 더욱이 연구자의 주관의 개입할 가능성이 높다는 한계점이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광화에 따른 목초지 전용현상의 증가와 함께 목축민의 고령화 및 목축업 포기로 인해 귀중한 목축문화 유산들이 급속히 소멸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빠른 보호조치를 유도하고 나아가 보전과 활용방안을 제시한다는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등급을 설정했음.
- A등급은 보존 상태와 가치, 문화·역사적 중요성 면에서 상위등급으로 문화재 지정과 같은 보호조치가 필요한 목축문화임.
- B등급은 긴급하지는 않지만 차후 훼손방지를 위해 일반인들이 알기 쉽게 안내판을 설치할 필요가 있는 목축문화임.
- C등급은 이미 소멸되었거나 기억 속에 남아있는 목축문화임.

2) 목축문화 평가결과

(1) 제주시 지역

번호	목축문화요소	조사내용				
		보존상태	문화성	역사성	합계	중요도
1	오등동 땀쉐	1	4	2	7	C
2	오등동 공동목장 증토비	5	3	3	11	B
3	유수암리 발갈쉐	1	4	2	7	C
4	유수암리 방앳불 놓기	1	4	2	7	C
5	장전리 백중제	5	5	4	14	A
6	장전리 켓물급수통(1937)	4	5	5	14	A
7	장전리 테우리막	5	4	4	13	A
8	봉성리 쉼장시	1	4	2	7	C
9	상가리 낙인	1	4	2	7	C
10	상가리 켓밭	1	4	2	7	C
11	광령리 상산방목	1	4	2	7	C
12	금악리 국마통	2	4	5	11	B
13	송당리 땀쇠	1	4	2	7	C
14	송당리 국립목장	1	4	5	10	B
15	송당리 이승만대통령 별장(귀빈사)	5	5	5	15	A
16	송당리 바령	1	4	2	7	C
17	회천동 3소장 하갓성	5	5	5	15	A
18	대흘리 2소장과 3소장 간장(間牆)	5	5	5	15	A
19	선흘2리 윗바메기오름 2소장 급수장(말천지)	5	5	5	15	A
20	교래리 객사터	1	5	5	11	B
21	새별오름 최영장군 격전지	1	3	5	9	B
22	추자도 최영장군 사당	5	5	5	15	A
23	탐라순력도(1703)	5	4	5	14	A
24	탐라지도(1709)	5	4	5	14	A
25	산장절목	5	4	5	14	A
26	제주삼읍도총지도(1730년대)	5	4	5	14	A
27	두모리 고윤문비	5	5	5	15	A
28	마조제	2	5	5	12	A
29	공마해신제	2	5	5	12	A

(2) 서귀포시 지역

번호	목축문화요소	조사내용				
		보존상태	문화성	역사성	합계	중요도
1	하원동 상산방목	1	4	2	7	C
2	하원동 쇠막동티	1	4	2	7	C
3	상효동 상산방목	1	4	2	7	C
4	하효동 상산방목	1	4	2	7	C
5	가시리 부구리 구제장	5	5	3	13	A
6	가시리 간장(間牆)	5	5	5	15	A
7	가시리 중갓성	5	5	5	15	A
8	가시리 백중제	5	5	3	13	A
9	가시리 하갓성	5	5	5	15	A
10	수산리 수산평 탐라목장	1	5	5	11	B
11	하례리 점마창터	1	5	5	11	B
12	한남리 정씨 열녀비	5	5	5	15	A
13	의귀리 김만일 생가터	5	5	5	15	A
14	의귀리 김만일묘	5	5	5	15	A
15	수망리 물영아리 오름 중갓성	5	5	5	15	A
16	신천리 천미장터	5	5	5	15	B
17	우도목장터	5	5	5	15	A
18	황태장터(송당리 체오름과 덕천리 둔지봉 일대)	1	5	5	11	B
19	가파도별둔장	1	5	5	11	B
20	모동장	1	5	5	11	B
21	법환동 최영장군 목호군 토별지	5	4	5	14	A

(3) 평가결과 종합

지역	A	B	C
제주시	- 장전리 백중제 - 장전리 켓물급수통 - 장전리 테우리막 - 송당리 이승만대통령 별장(귀빈사) - 회천동 3소장 하жат성 - 대흘리 2소장과 3소장 간장(間牆) - 선흘2리 윗바메기오름 2소장 급수장(말천지) - 추자도 최영장군사당 - 탐라순력도(1703) - 탐라지도(1709) - 산장절목 - 제주삼읍도총지도 - 두모리 고윤문비 - 마조제 - 공마해신제	- 오등동 공동목장 증토비 - 금악리 국마통 - 송당리 국립목장 - 교래리 객사터 - 새별오름 최영장군 격전지	- 오등동 땀쇄 - 유수암리 발갈쇄 - 유수암리 방앳불농기 - 봉성리 쉼장시 - 상가리 낙인 - 상가리 켓발 - 광령리 상산방목 - 송당리 땀쇠 - 송당리 바령
서귀포시	- 가시리 부구리 구제장 - 가시리 간장(間牆) - 가시리 중жат성 - 가시리 백중제 - 가시리 하жат성 - 한남리 정씨열녀비 - 의귀리 김만일 생가터 - 의귀리 김만일묘 - 수망리 물영아리오름 중жат성 - 우도목장터 - 법환동 최영장군 - 목호군 토별지	- 수산리 수산평 탐라목장 - 하례리 점마청터 - 신천리 천미장터 - 황태장터(송당리 체오름과 덕천리 둔지봉 일대) - 가파도별둔장 - 모동장	- 하원동 상산방목 - 하원동 쇠막동티 - 상호동 상산방목 - 하효동 상산방목

3) 실태조사 결과 정책적 시사점

○ 13개 실태조사 마을의 공통된 목축문화에는 낙인, 귀표, 목축의례(백중제, 테우리코시, 목감의례), 윤환방목, 방앗불 놓기(화입), 진드기 구제, 목감, 목감막(테우리막, 우막), 급수장, 발갈쇄 등이 있었으며, 50개 목축문화요소(제주시 29, 서귀포시 21)에 대한 평가결과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음.

- ① 잔존하고 있거나 이미 사라진 목축문화의 원형을 마을별로 전수조사해야 함. 해안마을에서도 농업과 목축이 혼합된 목축문화가 남아 있을 수 있어 제주전지역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가 필요함.
- ② 목축문화를 설명하는 물질적 요소인 마구(馬具), 낙인, 귀표, 쇠질매, 쟁기, 마차 등을 마을별로 수집하여 제주민속자연사박물관 등 공공시설에 수장해 정리할 필요가 있음. 이것은 목축문화박물관이 조성되었을 때 전시될 수도 있을 것임.
- ③ A등급에 속하는 목축문화·역사유적에 대한 발굴과 함께 제도적 차원의 보호 장치가 긴급히 요구됨. 실례로, 조선시대 제주도에 국마장이 설치되어 운영되었음을 입증하는 유적인 잣성에 대한 보호조치는 전무한 실정으로 현재 훼손이 가속화되고 있어 문화재지정(향토유산) 등 법적 보호 장치가 긴급히 필요함. 시범적으로 제주 시 3소장 회천동 하잣성, 표선면 가시리 하잣성과 간장(갑마장과 10소장 경계선)은 접근성과 관리상태가 양호하여 문화재 지정이 요구됨. 전라남도 고흥군과 울산광역시에서는 조선시대 목마장 운영과 관련된 잣성을 문화재로 지정해 보호하고 있음. 남원읍 하례리에 남아있었던 점마청터와 밀통, 한림읍 금악리의 국마통 역시 중요한 유적에 해당됨.
- ④ 마조제, 공마해신제, 백중제, 낙인제 등 다양한 목축문화 무형유산의 발굴과 함께 복원 및 실연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목축문화와 관련된 신화, 속담, 민요, 전설, 질병치료법 등을 조사해 목축문화가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존재했는지를 조명할 필요가 있음.

- ⑤ 점차 사라져 가는 목축민 즉 테우리들에 대한 생애사 조사가 요청되며, 나아가 이들의 보유하고 있는 전통적 목축기술에 대한 채록 조사를 진행해 제주형 목축문화의 원형을 정리해야 함.
- ⑥ 목축문화와 관련된 지명들을 찾아내 다시 활용할 경우, 목축문화의 계승과 활용에 도움을 줄 수 있음. 특히 제주의 선조들은 조선시대 중산간 지대에 대해 십소장을 중심으로 지역구분해 일상생활에 활용했음을 참고할 필요있음.
- ⑦ 목축문화를 활용한 마을 살리기 정책이 필요함. 남원읍 하례리·의귀리, 구좌읍 송당리, 한림읍 금악리, 서귀포시 하원동, 애월읍 유수암리·상가리 마을 등이 보유한 다양한 목축문화유산을 자원화할 경우, 마을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음.
- ⑧ 목축문화를 활용한 마을공동목장 활성화 정책이 필요함. 표선면 가시리와 애월읍 장전리 마을은 공동목장을 유지하면서도 이를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소득을 올리고 있는 성공적인 사례임.
- ⑨ 최근 복원이 완공된 송당리 이승만 대통령 별장(귀빈사)을 목축문화의 관점에서 활용할 필요가 있음. 이 대통령 별장은 제주국립목장터에 위치하는데 이곳은 당초 구좌읍 송당리 마을공동목장터로, 이 마을 주민들이 목축을 생업으로 삼아 우마를 방목했던 장소여서 희망할 경우, 마을 살리기 정책 차원에서 대통령별장을 목축문화역사자원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
- ⑩ 목축문화에 대한 아카이브 구축이 필요함. 제주발전연구원 내 제주학센터가 구축하고 있는 제주학아카이브 속에 목축문화 영역을 독립적으로 구축해 서비스할 필요가 있음.

IV. 제주도 목축문화의 보전방안

- 제주도의 목축문화는 중산간 지대에 자연적, 인공적으로 형성된 초지대를 배경으로 등장한 것으로, 제주 목축민들이 누대에 걸쳐 초지환경에 의존하여 살아 왔던 전통적 삶의 방식임.
- 제3장에서 제시했던 목축문화원형들과 13개 마을에 대해 이루어진 실태조사결과 확인한 목축문화를 후손들에게 보전하기 위한 방안을 우선순위에 따라 제시하면 다음과 같음.

1. 테우리 집단의 목축방법 구술채록

- 목축문화를 보전하는 가장 우선적인 방안은 현재 남아있는 목축민 즉, 테우리 집단의 목축방법에 대한 구술채록 하는 일임.
 - 현재 중산간 마을에 거주하고 있는 70대 이상의 노인들의 경우, 대부분 목축생활을 경험했으며, 이들은 목축지 내에 있는 물의 위치, 오름과 지명, 바람의 이동과 질 좋은 초지의 위치 등등에 대해 자세히 알고 있었던 집단임.
 - 테우리 집단들이 고령화되어 점점 사라지고 있는 현실에서 이들이 보유하고 있는 목축기술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문헌조사, 구술조사)와 연구가 시급함.

1) 테우리 구술조사 내용 및 주체

(1) 구술조사 내용

- 집이나 목장(목축지)에서 소와 말을 기르는 목축방법

- 백중제와 낙인코사와 같은 목축의례 유무
- 목축지 내의 자연환경(오름과 물 등) 인식정도
- 전통적 우마 질병 치료법
- 공동목장 출역내용과 불참자 처리방법
- 마을공동목장조합 규약, 목감 고용과 임금지불 방법
- 공동목장에서 우마방목법, 공동목장 초지 및 방풍림 관리법
- 소 장수 및 말 장수 경험유무, 멍쇄, 번쇄, 말갈쇄 사육경험
- 상산방목 경험담, 낙인과 귀표 경험, 바령발 만들기, 발 밟기방법
- 소와 말 길들이기, 목축민요, 목축설화(전설), 목축관련 지명
- 말과 소의 종류와 이름
- 공동목장운영 문서 등

(2) 구술조사 주체 : 제주발전연구원 제주학연구센터

2) 테우리 구술조사 대상 마을

- 목축문화의 전통이 남아있어 테우리 구술조사 대상이 되는 마을로는 구좌읍 송당리·하도리·덕천리, 조천읍 선흘리, 제주시 오등동, 애월읍 유수암리·장전리·봉성리, 한림읍 금악리, 서귀포시 하원동, 남원읍 의귀리·수망리, 표선면 가시리·성읍리 등이 대표적임.
- 마을별 구술조사 결과를 정리해 『제주 테우리 목축생활사』(가칭) 발간이 필요함.

2. 목축문화박물관 설치

- 제주도는 ‘박물관 천국’이라고 할 만큼 박물관들이 우후죽순 식으로 설립되었으나 제주도의 문화와 지역성을 반영하는 박물관은 많지 않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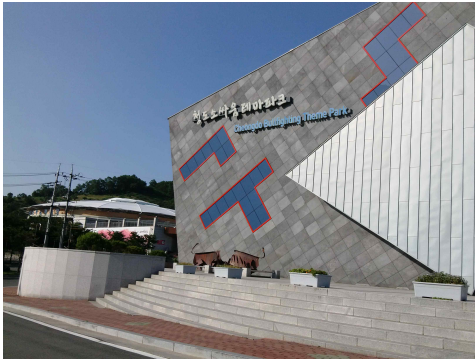
- 박물관은 문화콘텐츠의 보고(寶庫)인 동시에 다양한 체험활동이 가능한 공간으로 진화하고 있어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음.
- 제주지역에는 목축문화 중 말 문화를 테마로 하는 조랑말박물관이 표선면 가시리에 세워져 운영되고 있음. 마을자체에서 정부의 예산지원을 받아 조성한 조랑말 체험공원 내에 위치하며, 전국 최초의 리립박물관으로 제주의 조랑말을 콘텐츠로 개발해 만든 박물관에 해당함(그림 IV-68).



〈그림 III-68〉 가시리 조랑말 박물관

〈그림 III-69〉 한국마사회 마사박물관

- 목축문화와 관련하여 중국과 일본에는 대규모 말 박물관이 운영되고 있으며, 한국에도 경기도 과천에 한국마사회가 운영하는 말 박물관(그림 IV-69), 경상북도 청도군에 소싸움 테마박물관이 운영되고 있음. 특히 한국우사회가 운영하는 청도 소싸움 테마박물관은 상당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소 싸움 경기 및 청도지역의 소 사육 문화를 대상으로 개발된 콘텐츠 자료를 전시하고 있음(그림 IV-70·71).
- 제주목축문화박물관(또는 제주마박물관)은 한때 한국마사회 제주본부에서 건립에 대해 논의된 적은 있으나 아직 구체화되고 있지 않음.



〈그림 IV-70〉 청도 소싸움 테마파크
(현지촬영, 좌측은 소싸움 경기장임)



〈그림 IV-71〉 청도 소싸움 경기장면
(테마파크내 전시사진 촬영)

- 새롭게 건물을 신축하기 보다는 이용하지 않고 있는 공공시설이나 목축문화 박물관 설립을 희망하는 마을이 있을 경우, 해당 마을의 마을회관 건물 등을 리모델링하여 박물관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목축문화 전통이 잘 남아있는 구좌읍 송당리, 조천읍 교래리, 애월읍 유수암리와 장전리, 안덕면 서광서리, 서귀포시 하원동, 남원읍 의귀리에 목축문화 박물관을 세우면 목축문화 전통을 계승하고 마을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됨.
- 목축문화박물관 건립 및 운영에 대비해 제주도청 축정과 등이 주체가 되어 전도에 산재해 있는 목축문화 관련 문헌자료 및 사진자료, 낙인도구, 공동목장 자료, 목축의례 도구 등을 신속히 수집하여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작업이 시급히 요청됨.

○ 목축문화박물관의 콘텐츠 자료

- 박물관 내부 공간 : 제주마 자료, 제주흑우 자료, 세계의 목축문화 (몽골, 중국, 일본, 미국, 유럽 등) 자료, 제주목축문화 자료, 말 관련 전통특산품과 음식문화, 말 소재 예술품 전시, 경마역사, 한국 (제주)목장사 관련 자료 전시
- 박물관 외부공간 : 연자매, 말 안장, 마유화장품, 마공연장 등 체험 시설 구비

3. 테우리 학교 운영

- 테우리들의 목축문화에 대한 조사·연구결과를 토대로 제주도의 목축문화를 체험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계승하기 위해 테우리 학교를 상설 또는 일시적 운영을 제안함.

1) 테우리 학교 설치장소

- 제주시 교래리에 위치한 <갯 전시관>을 임대해 활용하는 방안
 - 조천읍 교래리는 조선후기 산마장이었던 녹산장, 상장 그리고 침장을 관리했던 시설이 있었던 마을임.
 - 숙종대 이형상 목사가 만든 『탐라순력도』(1703)의 「산장구마」에 300년 전의 교래리 마을경관과 함께 산마감목관이 업무를 처리했다고 판단되는 객사가 등장하고 있음.
 - 산마장과 산마감목관 그리고 테우리(목자)들의 생생한 목축역사를 간직한 교래리에 테우리 학교를 운영하는 것은 역사적으로 중요한 가치가 있음.
- 제주민속자연사박물관에서 목축문화 관련 특별전을 열며 1주일 정도로 목축문화를 배워보는 테우리 학교를 운영할 수 있음.

2) 테우리 학교 운영 프로그램

- 제주의 목장사, 테우리들의 목축문화사, 말 또는 소몰이 체험하기
- 우마 낙인법, 거세술, 진드기 구제법, 제주마 사양법, 경주마 육성법, 목축의례, 말 타기 체험, 목축민요 배워보기
- 출(꿀) 베기와 놀 놀기 방법, 겨울철 축사에서 우마 기르는 방법

- 격구와 마상무예, 상산에 쉼 올리기(상산방목), 공마이야기
- 고지도와 목축문화 : 『목장지도』, 『탐라순력도』, 『제주삼읍도총지도』, 『대동여지도』, 목축문화 콘텐츠 개발
- 마을공동목장(조합), 목축 음식문화(말고기와 소고기)
- 고문서와 목축문화, 조선왕조실록과 목축문화
- 제주와 몽골의 목축문화 비교, 제주마, 제주흑우의 가치 등

4. 목축문화 해설사 및 스토리텔러 양성

1) 목축문화 해설사 양성

- 현재 제주도에는 제주특별자치도문화관광해설사협회가 있어 제주의 문화관광을 국내외에 소개하는 역할을 하고 있음.
 - 해설사의 역할을 전문화, 세분화 할 필요 있음.
 - 목축문화의 계승을 위해 목축문화에 대한 전공지식을 구비한 목축문화 해설사 양성 필요.
 - 전통적으로 목축민들이 초지환경을 어떻게 활용했는지에 대한 조사와 연구를 통해 전공지식을 축적한 다음, 애정을 가지고 목축문화를 소개할 수 있는 목축문화 해설사 양성 필요.
 - 현실적으로 제주민속자연사박물관이 목축문화 해설사 양성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필요.
 - 제주민속자연사박물관 내에는 제주마와 목축문화에 대한 자료들이 전시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인프라를 구비하고 있어 목축문화 해설사 양성에 최적임.

2) 스토리텔러(story-teller) 양성

- Story-teller는 스토리텔링 산업을 선도할 이야기꾼을 의미함.
 - 2010년 제주시와 제주관광대학부설평생교육원은 일반시민, 관광중사자 및 각종 해설사 등을 대상으로 제주돌문화 스토리텔러, 제주설화 스토리텔러, 제주자연유산 스토리텔러 등 제주문화 story-teller 양성프로그램을 운영한 적이 있음.¹¹⁶⁾
 - 제주목축문화 스토리텔러 양성과정이 개설될 필요있음.

3) 목축문화 스토리텔링 소재

- 몽골과 제주의 교류, 몽골의 탐라목장 설치와 운영, 다루가치(달로화적)와 자르구치(단사관)이야기
- 목호의 난과 최영장군, 목호남편과 열녀 정씨
- 이성계와 제주마 응상백
- 고득중과 국마장 설치
- 김만일과 산마감목관, 산마장
- 『탐라순력도』(1703)의 「산장구마」, 「우도점마」, 「공마봉진」
- 십소장 경계선인 잣성, 6소장 목자 고윤문과 효행
- 마을공동목장, 이시돌목장과 제동목장
- 제주국립목장과 이승만, 송당리 공동목장
- 공마와 점마, 공마선과 공마감 오영
- 제주목사 이형상, 송영규, 김영수 그리고 제주어사 심낙수
- 감목관, 목축의례

116) 제주관광대학부설평생교육원(2013), 『제주문화 Story-teller 돌문화 양성과정』.

5. 동아시아 목축문화연구센터 설치

- 제주의 목축문화에는 몽골, 중국, 한국, 일본의 목축문화가 융합되어 있어 동아시아의 목축문화를 비교하여 제주도 목축문화의 정체성을 구명하는 작업이 필요함.
- 제주도내에서 말 관련 학과가 운영되고 있는 제주국제대학교와 제주한라대학, 국립제주대학교에 동아시아 목축문화연구센터를 설치하여 몽골과 중국 그리고 일본의 말 박물관과 교류해 목축문화 연구 확대 필요.
- 몽골의 수도인 울란바타르에 있는 징기스칸박물관(그림 IV-72), 일본의 홋카이도에 있는 마사박물관(그림 IV-73) 그리고 중국 북경에 있는 중국 최대 규모의 중국마 문화박물관과 연구실적을 교류하고 지속적인 연구세미나를 개최해 제주도 마문화의 정체성을 구명함과 동시에 말을 매개로 한 동아시아의 문화교류까지로 연구의 지평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그림 IV-72〉 몽골 징기스칸박물관



〈그림 IV-73〉 일본 홋카이도 마사박물관

V. 제주도 목축문화의 활용방안

- 2014년 전국 최초로 제주도가 말산업특구로 지정되면서 제주 말산업은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부상하며 경마와 승마, 마육산업, 향장품산업, 말 축제, 말 관련 기념품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음. 지금까지 제시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제주의 전통적 목축문화원형에 대한 활용방안을 우선순위별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음.

1. ‘헌마공신’ 김만일(金萬鎰) 테마공원 조성

- 김만일의 고향인 남원읍 의귀리에는 김만일 관련 역사유적이 남아있고, 앞으로 김만일 동상도 제작될 예정임을 감안하여 테마공원을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 테마공원의 위치선정
 - ① 의귀리 리유지(마을내) : 마을 내에 남아있는 김만일 관련 유적을 활용해 관광객들을 마을 내로 유치할 경우, 마을 활성화에 도움을 줄 수 있음.
 - ② 의귀리 공동목장 : 표선면 가시리와 애월읍 장전리 공동목장의 성공사례와 같이 공동목장과 마을의 활성화를 동시에 가져올 수 있어 테마공원 위치로 최적이라고 판단됨.
 - ③ 견월악 제주마 하계방목지 부근 : 접근성이 좋아 탐방객 유치에도움을 줄 수 있으나 부지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되며, 김만일의 활동무대와 멀리 떨어져 있다는 단점이 있음.
- 테마공원 조성은 김만일 후손인 경주김씨 종친회와 의귀리 마을회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 문화관광부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방안이 적절하며, 의귀리 마을자체를 김만일 테마공원으로 만드는 방안도 고려할 만함.

- 인터넷 사이버 공간에 ‘의귀리 김만일 마을’ 사이트를 만들어 홍보하고, 마을 내에는 김만일 동상을 세우며, 김만일 생가터를 복원함과 동시에 마을 내에서 ‘김만일 목축기술’을 체험하게 하는 프로그램을 마을 내에서 운영하여 의귀리를 김만일 테마공원화 하는 방법도 매력적임.
- 『제주읍지』와 『승정원일기』¹¹⁷⁾에 ‘헌마공신(獻馬功臣)’으로 기록된 김만일은 개인목장을 운영하면서 부를 축적했던 인물로,¹¹⁸⁾ 『광해군일기』, 『승정원일기』, 『제주읍지』 등 역사기록에 등장할 정도로 제주도 목축사의 상징적 존재였음.
- 제주사회에서 노블레스 오블리주(noblesse oblige)¹¹⁹⁾를 실천했다고 사회적 평가를 받는 인물로 金萬德(1739-1812)과 金萬鎰가 거론됨.
 - 김만일은 조선시대를 살았던 목축인 중에 국가가 필요로 하는 말을 헌마했던 대표적인 인물로, 김만덕의 구휼(救恤)과는 성격이 다르나 헌마 역시 국가가 절실하게 필요로 했던 말을 제공하여 국난극복에 도움을 주었기 때문에 김만일 역시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한 인물로 평가됨.
- 현재 김만일의 고향인 남원읍 의귀리 1773번지 속칭 ‘서위남모루’에는 김만일 묘가 위치하며, 2009년 7월 ‘의귀리 김만일 묘역’이라는 명칭으로 묶어 제주특별자치도 지정문화재 기념물 제65호로 지정되었으며(그림 V-74), 묘의 전면에는 ‘승정대부동지중추부사오위도총부도총관김공지묘(崇政大夫同知中樞府事五衛都摠府都摠管金公之墓)’라 기록되어 있고, 마을 내에는 김만일 생가터가 남아 있음(그림 V-75).

117) 『승정원일기』, 고종 9년(1872) 7월 1일(계미).

118) 조성윤(2001), 「조선후기 제주도 부자 이야기 : 김만일 집안과 산마감목관」, 『제주도사연구』 (Vol.10), 제주도사연구회.

119) 노블레스 오블리주는 높은 신분과 많은 재산 등의 혜택을 누리는 사람이 그렇지 못한 다른 사람들을 도와야 한다는 생각을 말한다.



〈그림 V-74〉 의귀리 김만일 묘



〈그림 V-75〉 의귀리 김만일 생가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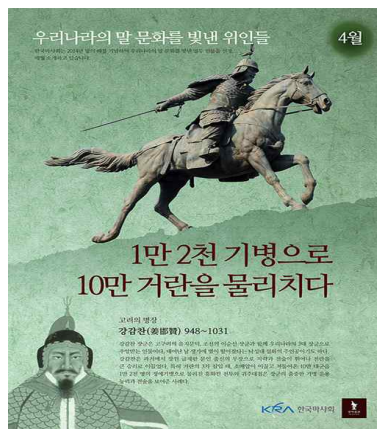
〈그림 V-76〉 김만일 유적과 산마장 내 유적의 위치

(제주문화예술재단, 『제주마학술조사보고서』, 2007, p.32)

- <그림 V-76>은 남원읍 의귀리 마을 영역에 남아있는 김만일 관련 역사 유적으로, 김만일의 목축공간이었던 몰마장, 장수물장이 확인되며, 하жат성과 중жат성, 김만일 묘와 가묘터 등이 있음.
- 2014년 1월 제주관광공사에서 발주한 「헌마공신 김만일 스토리텔링 연구사업」 결과에는 김만일 활용법으로 ‘김만일 올레’, ‘힐링마로 개설’ 등이 제시되었음.¹²⁰⁾
- 한국마사회가 한국의 말문화를 빛낸 주역으로 선정한 김만일
 - 한국마사회는 2013년 기마민족의 나라 고구려의 시조 동명성왕(東明聖王), 마상무예를 집대성한 정조대왕(正祖大王)(그림 V-77), ‘유하백마도’로 유명한 화가 윤두서(尹斗緒), 1만 2천 기병으로 10만 거란군을 물리친 강감찬(그림 V-78), 독립군 기병대 교관을 지낸 초대 국무총리 이범석(李範奭), 뛰어난 침술로 어의(御醫)가 된 마의(馬醫) 백광현(白光炫), 한국전쟁에서 포탄을 나른 경주마 ‘아침해’와 함께 나라에 대량의 말을 바쳐 환란극복을 도운 공신 김만일을 한국의 말 문화를 빛낸 주역으로 선정했음.



〈그림 V-77〉 마상무예를
집대성한 정조대왕



〈그림 V-78〉 기병으로
거란을 물리친 강감찬 장군

120) 제주관광학회(20104), 『제주마 문화자원을 활용한 스토리텔링 연구사업』, 제주관광공사.

2. 한라산 상산방목 재현

1) 상산방목 재현의 중요성

- 제주도민들은 1970년대 한라산이 국립공원으로 지정되기 이전에 한라산 백록담, 윗세오름, 방애오름, 선작지왓의 고산초지대를 이용해 우마를 방목했던 목축문화를 가지고 있었음.
- 제주도민들은 마을 위의 한라산에 우마를 올리는 것을 “상산에 쉼 올린다”고 했으며, 이를 필자는 ‘상산방목’이라고 명명함.
- 상산은 대략 해발 1400m 이상의 고산초원(선작지왓이 대표적)에 해당하며 이곳은 고도가 높아 온도가 낮기 때문에 진드기 피해가 거의 없으며, 또한 무료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었던 초지가 있어 우마방목지로 선호되었음.
- 상산방목 문화를 재현하여 소멸된 중산간 마을 목축문화의 복원과 함께 한라산의 역사문화 관광자원으로 활용 가능함.
 - 상산방목은 제주시 오등동, 애월읍 광령리, 유수암리, 서귀포시 하원동, 도순동, 상호동 등 백록담이 보이는 마을에서 행해진 목축문화였으며, 현재도 이들 마을에는 상산에 우마를 올려 목축했던 사람들이 남아있음.
 - 1970년대 한라산이 국립공원으로 지정되면서 상산방목의 전통은 공식적으로 소멸되고 말았음.

2) 상산방목 재현 계획

- 상산방목 재현 장소 : 윗세오름 휴게소 일대
- 상산방목 재현 일시 : 청명일(4월5일) 전후 09:00-16:00(변동가능)

- 상산방목은 절기상 청명이 지나서 이루어졌음.
- 한라산 철쭉제와 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음.

○ 상산방목 재현 과정

- 상산방목 준비 단계 : 출발지인 마을에서 우마에 낙인하기, 실제로는 낙인하지 않고 낙인에 대해 간단한 의미 설명.
- 상산에 우마 올리기 재현 : 상산방목에 참여했던 마을주민들이 소 또는 말을 몰고 참여함.
- 제주시 지역은 어리목 광장, 서귀포시 지역은 돈네코 등반로 입구 광장에 집결해 등반로를 따라 이동
- 참여 정도에 따라 두 지역의 상산방목 참여 우마를 트럭으로 어리목 광장에 모이게 하여 동시에 출발시킨 다음, 어리목 등반로를 따라 윗세오름 휴게소까지 이동
- 상산으로 우마를 몰고갈 때 부르는 민요 재현(서귀포시 상호동 ‘마지막 상산 방목 테우리’ 오세창씨(62세))
- 어리목 광장과 윗세오름 휴게소에 물과 사료 미리 준비
- 테우리 고사 지내기 : 윗세오름 휴게소 또는 돈네코 등반로상에 있는 평지궤(평궤), 상산에 방목시킨 우마의 건강과 번성 기원, 상산방목 중 잃어버린 우마 찾기 기원, 곤밥(쌀밥), 굶지않은 말린 옥돔 준비, 상산방목에 참여한 마을별 테우리들이 공동으로 주관하고 의례에 참여

○ 상산방목 실현 가능성

- 행사장인 한라산 윗세오름 일대는 29개의 법에 근거하여 보호되는 장소인 만큼 문화재청과 제주특별자치도청 등 관계당국의 적극적인 관심이 있어야 가능함.
- 등반로를 따라 이동하고 09:00부터 16:00까지 이루어지는 1회성 이벤트로 행사를 기획하기 때문에 실현가능성이 있음.

- 행사에 참여하는 주민들과 우마에 대해 보험가입 필요함.

○ 상산방목 재현의 기대효과

- 1960~70년대까지만 해도 한라산 정상부에 풀이 나면 해마다 우마를 올려 방목했던 상산방목 목축문화를 재현할 수 있음.
- 세계자연유산 한라산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하고, 한라산 정상부의 초지환경을 목축문화와 연계시켜 역사문화관 광상품으로 개발할 수 있음.

3. 목축문화를 활용한 마을활성화

○ 목축문화를 이용한 마을발전 전략으로 성공을 거둔 가시리 마을

- 마을의 공유재산인 대록산과 따라비오름, 번널, 병곳오름을 연결하는 초지에 들어섰던 조선후기 녹산장과 갑마장 그리고 일제시기부터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는 마을공동목장의 목축문화를 테마로 한 <신문화공간조성 프로젝트사업>에 선정된 결과, 정부지원을 받아 조랑말 체험공원과 조랑말 박물관 및 유채꽃 플라자를 건립해 운영함으로써 전국 각지에 마을발전의 모범사례로 소개되고 있음.

○ 목축문화를 활용한 마을활성화 가능마을

◎ 구좌읍 송당리 마을

- 1소장 국마장과 마을공동목장 그리고 6.25전쟁 이후 이승만 대통령에 의해 육우생산을 위해 추진된 국립제주송당목장과 근대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2014년에 보수가 끝난 이승만 대통령 별장(그림 V-79), 하жат성과 1소장을 동·서로 구분하며 쌓았던 간장(間牆, 그림 V-80) 등 목축문화·역사유산이 풍부해 이를 활용해 마을발전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그림 V-79〉 근대문화유산인
이승만 대통령 별장
(2014.7.29.촬영)



〈그림 V-80〉 송당리 1소장 동·서
간장(사잇담)
(도로 좌측 삼나무 숲에 간장 위치함)

◎ 남원읍 의귀리 마을

- 조선중기 김만일의 목축과 현마로 인해 제주마의 본향으로 알려진 마을로, 현재 김만일 동상제작 추진, 김만일 생가 복원사업 등 김만일 관련 목축문화를 마을발전과 연계시키려는 노력이 진행되고 있음.

◎ 한림읍 금악리 마을

- 6소장에 속하는 목장지대와 함께 하жат성, 국마통 등이 남아있고, 특히 1960년대 아일랜드에서 건너온 맥그린치 신부가 황무지를 개척해 만든 이시돌목장에는 사회복지시설과 젓소목장, 양돈장이 들어섰음.
- 특히 이시돌 목장은 1960~90년대 한림읍 지역민을 대상으로 천주교를 전파하는 동시에 양돈기술과 외국산 육우 사육법을 교육시켜 이들의 소득증대에 기여했을 뿐만 아니라 목장운영에서 발생한 수익금을 노인요양원, 청소년 젊음의 집, 한림수직공장 건립과 운영에 투입함으로써 한림읍 지역의 발전과 복지에 기여하고 있는 노블레스 오블리주 실천현장임(그림 V-81).



〈그림 V-81〉 이시돌 목장 개척자인 맥그린치 신부
(경향신문, 1966년 5월23일자)

4. 목축문화원형을 활용한 콘텐츠 개발

1) 목축문화 콘텐츠 구축현황

- 21세기는 문화콘텐츠 산업의 시대로, 문화콘텐츠는 출판, 만화, 방송, 게임, 캐릭터 등 문화와 관련된 각종 매체들을 지칭하거나 문화원형을 문화상품으로 개발하는 창조적 과정을 의미함.¹²¹⁾
- 문화콘텐츠는 텍스트 콘텐츠(출판, 신문, 잡지), 비텍스트 콘텐츠(공예품, 미술품, 공연), 시청각 콘텐츠(방송, 영상, 광고, 영화, 비디오, 음반), 디지털 콘텐츠(애니메이션, 게임, 모바일 등)로 구분됨.¹²²⁾

121) 김만석(2010), 『전통문화원형의 문화콘텐츠화 전략』, 북코리아, p.45.

122) 허권(2010),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의 문화콘텐츠화 방안연구」, 한양대 석사논문, p.4.

<표 V -5> 제주도 목축문화 콘텐츠 구축현황

분류	목축문화 콘텐츠 자료
텍스트 콘텐츠 (출판, 신문, 잡지)	『고태오 할아버지가 들려주는 마지막 말테우리』(박재형, 2003), 『마지막 테우리』(현기영, 2006), 『한라산』(오성찬, 1990), 『헌마공신 김만일과 말 이야기』(권무일, 2012), 『사진으로 보는 제주목축문화』(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난지축산 시험장, 2011), 『제주마 학술조사 보고서』(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난지축산 시험장, 2007), 『제주도목장사』(남도영, 2003), 『제주조랑말』(강민수, 1999), 『제주마 이야기』(장덕지, 2007), 『제주축산사』(제주특별자치도·제주대학교아열대농업생명과학연구소, 2007), 『제주동·서부지역의 공동목장사』(제주특별자치도 문화관광해설사회, 2010-2011), 『일제시기 목장조합연구』(강만익, 2013) 등
시청각 콘텐츠 (방송, 영상, 광고, 영화, 비디오, 음반)	<김만일과산마장>(제주대 문화콘텐츠사업단, JIBS 공동제작), <제주의 זאת성>과 <흑우>(KBS 제작), <제주마문화의 산증인, 말테우리>(KCTV 제작), <MBC마당놀이 물·말·물이야기>(한국마사회 제주지역본부·제주MBC), KBS TV문화관 <한라산>(1984년 5월 12일 방영), 말 모는 소리(고태호) 등

(강만익, 2013, 「한라산지 목축경관의 실태와 활용방안」, 『한국사진지리학회』 제23권 제3호, 한국사진지리학회, p.106)

○ 목축문화 콘텐츠 구축현황은 <표 V -5>와 같으며, 이외에도 문화재 자료, 인물자료, 무형유산, 유형유산, 기록유산 자료 등이 있음.

○ 목축문화 문화재 자료

- 현재 제주지역에는 목축문화 문화재로는 천연기념물 제347호로 1986년에 지정된 ‘제주의 제주마’와 제주특별자치도 기념물 제65호로 2009년에 지정된 ‘의귀리 김만일 묘역’, 2013년에 천연기념물 제546호로 지정된 제주흑우가 있음.

○ 목축문화 인물자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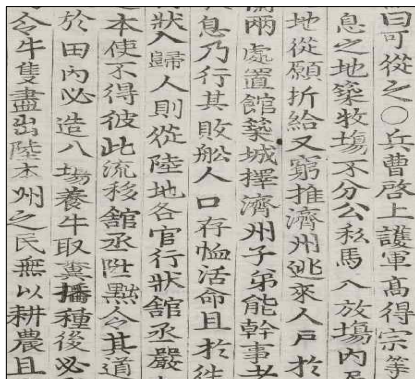
- 최영장군, 고득중, 김만일과 김대길, 고윤문이 대표적임.
- 최영장군은 1374년 탐라에서 발생한 몽골출신 목호의 난을 진압해 원의 잔당을 축출하는 공을 세운 인물임.
- 고득중은 조선 세종 때 한성부 판윤을 역임했으며, 제주도 중산간

지역에 국영목장을 설치하도록 건의한 인물임(그림 V-8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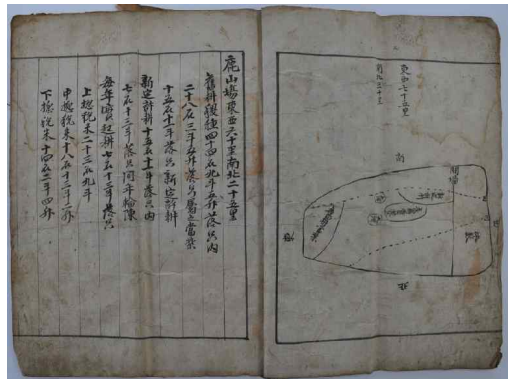
- 김만일은 광해군 때 헌마한 인물, 김대길은 초대 산마감목관
- 고윤문은 효행을 인정받아 칭송받은 6소장 목자였음.

○ 목축문화 기록유산

- 『탐라순력도』(1703)과 「탐리지도」(1709), 「제주삼읍도총지도」(1730년 대 이후), 「산장절목」, 『조선왕조실록』과 각종 「고문서」 등이 있음.
- 「산장절목」은 정조 18년(1794)에 어사 심낙수(沈樂洙)가 산마장 침범 경작자들로부터 받아 오던 세금의 과중한 폐단을 시정하기 위해 작성한 문서로, 18세기 말 산마장의 운영 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사료로 평가되어 2013년 제주도지정문화재자료로 지정되었음(그림 V-83).
- 『조선왕조실록』에는 국영목장설치 배경, 목장명칭, 목장운영상황, 공마 실태 그리고 목자의 생활실태가 나타나 있음.
- 효종 4년(1653) 제주목사 이원진이 편찬한 『탐라지』에는 제주목, 대정현, 정의현 지역의 목장운영 실태가 기록됨.



〈그림 V-82〉 고득중 한라산목장 설치 건의기사(국사편찬위원회)



〈그림 V-83〉 심낙수의 「산장절목」 중 녹산장 자료(제주민속자연사박물관)

2) 목축문화 방송콘텐츠 제작

- 방송매체를 이용한 목축문화 방송콘텐츠 제작에는 많은 비용이 소요될 것이나 일단 방송 프로그램으로 제작될 경우, 여러 지역에서 콘텐츠를 공유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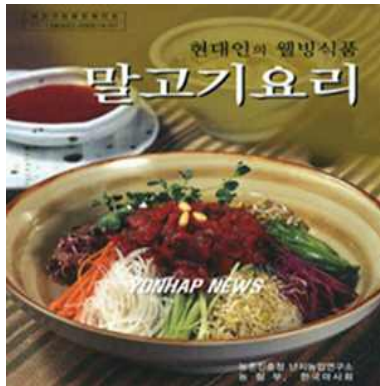


〈그림 V-84〉 제주MBC
마당놀이 말·말·말 이야기
홍보 자료

- 2011년 10월 제주마축제에서 공연된 <제주 MBC 마당놀이 말·말·말 이야기>는 완성도 높은 대표적인 목축문화 콘텐츠임(그림 V-84).
- 고려 말에 발생했던 목호의 난을 대상으로 고려 명장 최영이 이끌던 탐라목호군 토벌대와 몽골(원) 목호군과의 전투 그리고 한남리에 남아 있는 열녀 정씨이야기, 김만일과 효자로 소문난 목자 고윤문 등을 주인공으로 한 방송콘텐츠 제작도 의미있음.

3) 목축문화 음식콘텐츠 개발

- 마조제나 백중제 목축의례에 이용되었던 음식을 이용한 콘텐츠나 조선시대 조정에 국가제사를 위한 희생으로 진상했던 ‘검은쇠’(흑우)를 이용한 콘텐츠 개발 필요.
- 말고기는 단백질이 많고 콜레스테롤 함량이 적어 다이어트 식품으로 인기 있는 고급요리에 해당하며(그림 V-85), 허준의 『동의보감』(1610)에도 말고기는 신경통과 관절염, 빈혈, 척추 등에 좋다는 기록에 있어 말고기를 활용한 콘텐츠 개발이 요구됨.



〈그림 V-85〉 말고기 요리
안내서



〈그림 V-86〉 화장품인 마유

- 최근에는 마유, 말 태반을 재료로 한 기초화장품, 영양크림, 마유비누, 말 태반 비누 등 화장품이 출시되고 있음(그림 V-86).

4) 목축의례 콘텐츠 개발

- 우마의 번성을 기원하며 행해졌던 목축의례로는 중앙의 사복시가 주도하여 치제했던 마조제와 제주목사가 공마선의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행했던 공마해신제 그리고 제주의 목축민들에 의한 백중제, 낙인코시, 귀표코시 등이 있음.

(1) 마조제(馬祖祭) 콘텐츠

- 한양에서는 사복시가 주관했으나 제주지역에서는 제주목사가 주관했던 의례로, 마조제의 절차와 희생물 등에 대한 고증을 보충한 다음, 제주마 축제나 들불축제 시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진행하는 것도 바람직함.
 - 최근 (사)제주마문화연구소(소장 장덕지)에는 마조제를 복원해 들불축제장에서 실연했음(그림 V-87).

“105년만에 부활한 ‘마조제’를 아시나요”

말 건강 기원 목축의례
장덕지 마문화연구소장
8일 들불축제장서 집전

“제주 온누리에 방성이 비치어
말들이 질병없이 번성하고 제주
말산업이 나날이 번창하기를 기
원합니다”

8일 들불축제장 한 켠에서는
말의 건강을 기원하는 제사인 ‘마
조제’(馬祖祭)가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열려 축제 관람객들의
관심을 끌었다.



8일 들불축제장 한 켠에서 말의 건강을 기원하는 제사인 ‘마조제’(馬祖祭)가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열려 축제 관람객들의 관심을 끌었다.

〈그림 V-87〉 들불축제 시 마조제 실연장면(제민일보, 2014년 3월 10일자)

(2) 공마해신제

- 공마해신제는 제주시 화북마을, 조천마을에서 올래길 문화행사로 재현할 수 있음. 공마해신제를 지내는 시기와 절차 등에 대한 고증을 거친 다음 재현하는 방안이 필요함.

(3) 백중제

- 백중제는 음력 7월 15일(14일 밤에도 행함)에 특정 목축민이나 마을 공동목장조합이 주체가 되어 일부지역에서 행해지고 있음.
 - 2014년 8월 10일(음력 7월 15일) 오전 10시에 이루어진 애월읍 장전리의 백중제는 장전공동목장조합이 주관했으며, 유교식으로 행해진 것이 특징임(그림 V-88).
 - 장전마을의 백중제는 ① 제단준비(제단 위를 깨끗하게 청소한 다음, 목장에서 채취해온 새(띠)로 제단 위를 덮기) ② 진설하기(돼지머리, 삶지 않은 돼지살코기, 말리지 않은 옥돔 4마리, 마른 명태 1마리,

과일(밤, 포도, 사과, 배, 귤, 대추, 귤감, 수박), 고사리 반찬, 메(쌀밥 2, 조밥 2) ③ 헌관과 집사들이 켓물에서 떠온 물을 이용해 손 씻기 ④ 집사 2명이 먼저 절을 하고 제단 앞으로 가기 ⑤ 초헌관, 아헌관, 종헌관이 차례로 절하기 ⑥ 초헌관이 축문일기 ⑦ 초헌관, 아헌관, 종헌관이 동시에 절하기 ⑧ 백중제에 참석한 마을유지 절하기 ⑨ 지방지와 축문 태우기 ⑩ 음복하기 ⑪ 철사(음식물 정리) 순으로 진행되었음(그림 V-89).

‘백중제’ 명맥 이어간다

우마 번성 기원 목축의례 진행

음력 7월15일(8월10일)을 기해 우마의 번성을 기원하는 태우리들의 목축의례인 ‘백중제’가 장전 공동목장에서 진행됐다.

이날 백중제가 치러진 곳은 장전공동목장 내 켓물오름 입구에 위치한 제단으로, 예전 우마들이 물을 마시던 연못 형태의 급수장이 있던 곳이다.

제단을 살펴보면 먼저 목장에서 자라는 새(띠)로 덮은 다음, 위에 돼지머리와 마르지



않은 옥돔, 삶지 않은 돼지살코기, 쌀밥, 조밥, 마른 명태, 과일, 술을 진설했다.

강세표 장전공동목장 조합장은 “한동안 맥이 끊겼지만 최근 복원에 뜻을 모으고 조합에서 백중제를 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봉철 기자

〈그림 V-88〉 명맥을 이어가는 장전리 백중제(『제민일보』)



〈그림 V-89〉 장전마을 백중제 실연절차
(2014.8.10, 장전공동목장내 켓물제단)

5. 마상무예단 육성

- 고려 말 100여 년 동안 제주에 거주했던 몽골출신 목호들은 몽골에서 했던 마상무예(馬上武藝)를 제주도에서 했을 가능성이 있음.
- 현재 표선면 성읍리의 제주조랑말타운(그림 V-90)과 한림읍 월림리 더마파크(그림 V-91)에서는 몽골인 마상무예단이 공연하고 있음.



〈그림 V-90〉 성읍리 조랑말타운
몽골리안 마상쇼 장면
(한진관광세원투어)



〈그림 V-91〉 더마파크 몽골전문
기마공연단 공연장면
(<http://www.mapark.co.kr>)

- 현재처럼 700년 전에 제주에 살았던 몽골인들의 후예들이 마상무예 공연을 통해 수입을 창출하는 구조는 제주와 몽골의 관계개선에 유용하지만 장기적인 안목에서 말 산업관련 학과를 개설한 대학교에 마상무예단을 양성할 것을 제안함.
- 제주특별자치도 말산업 특구예산 또는 한국마사회, 문화관광부가 관심을 가지고 마상무예단을 지원할 경우, 제주인으로 구성된 마상무예단이 탄생해 각종 문화행사에서 공연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 『무예도보통지』에 나타난 마상무예
 - 말을 타고 창을 다루기(기창보), 말 위에서 양손에 칼을 들고 채주 부리기(마상쌍검), 말 위에서 긴 청룡도 휘두르기(마상월도), 말을 타고 도리깨 모양의 곤봉 휘두르기(마상편곤), 맨 손으로 말에 올라



〈그림 V-92〉 한국민속촌에서 이루어진 마상무예 공연(마상재)

제주 부리기(마상재, 그림 V-92) 그리고 말 타고 펼치는 격구 등.

- 격구(擊毬)는 말 타고 펼치는 공놀이의 일종으로 ‘장시(杖匙)’라는 끝이 순가락 처럼 생긴 채로 마구 공을 퍼 담아 골대에 집어넣는 기병용 특수 무예로 평가됨(그림 V-93).



07 조선후기 이여성이 그린 〈격구도〉. 당시 격구 하는 모습을 생생하게 전달하고 있다.

〈그림 V-93〉 조선후기 격구(擊毬) 장면

- 격구는 무과의 최종시험인 전시(殿試)의 마지막 시험과목으로, 세종은 “격구를 잘 하는 사람이 말 타기와 활쏘기를 잘 할 수 있으며, 창과 검술도 능란하다”고 평가했음.
- 격구경기가 중산간 마을에 보급되고 마을간 경기를 통해 선발된 우수 선수가 읍면팀 대표팀을 구성한 다음, 제주도민체전에서 격구경기를 벌인다면 제주도민들과 관광객들에게 색다른 볼거리를 제공할 것임.

6. 테우리(牧子) 콘텐츠 개발

- 제주의 테우리들은 목축문화를 탄생시킨 주체들로, 목마장에서 직접 우마를 생산, 관리했던 목장운영조직의 최말단이었던 사회적 약자 집단으로, 거주이전과 전직(轉職)의 자유가 없었으며, 목자의 역은 세습되어 한번 목자면 영원히 목자로 남아야 했던 신양역천(身良役賤)의 신분이었음.
- 테우리를 주인공으로 하는 콘텐츠 개발은 “아래로부터의 역사”를 밝히는 작업인 동시에 조선시대 제주의 사회적 약자들이 어떻게 생활했는지를 구명(究明)하는 의미 있는 과제라 할 수 있음.
- 테우리 콘텐츠
 - 『조선왕조실록』, 「제주목장구폐완문」(1860), 『대정현아중일기』에 등장한 목자의 생활이야기
 - 효자로 칭송받아 『순조실록』에 등장한 6소장 목자 고윤문(高允文) 이야기(그림 V-94)
 - 1672년 3월 자신이 관리하던 말이 남의 보리밭에 들어가 곡식을 먹어버린 것을 보상하기 위해 자신의 밭을 팔아야 했던 목자 노(奴) 태호(太好) 이야기
 - 『탐라순력도』(1703) 「별방조점」의 다랑쉬오름 일대 흑우둔(黑牛屯)에서 검은 췌를 길렀던 테우리의 일상사
 - 고종26년(1889) 6월 3소장 목자 권인복이 공마 중 유웅마 1필이 지난밤에 병이 나서 죽었다고 보고했던 공마이야기
 - 영조17년(1741) 동색마를 마련하기 위해 처(妻)의 밭을 팔아야 했던 목자 이세인(李世仁) 이야기¹²³⁾
 - 『탐라순력도』(1703)에 등장한 테우리 복장 등

123) 고창석(2001), 『제주도고문서연구』, 제주대 탐라문화연구소, pp.66-67.



〈그림 V-94〉 목자이면서 효자였던 고윤문
비석 (<http://jejuhistory.co.kr>)

전면 : 孝子高允文之閭

후면 : 上之十七季 丙子十一月日
命旌歲久之後恐 其板刻之
易漫新磨片石 以志永世不
朽云 道光三十季 五月日
再從孫 濟宗 堅

☞ 고윤문은 순조14년(1814)에 정려되었으며, 이 비는 철종1년(1850)에 재종손 제종(濟宗)에 의해 세워졌음. 6소장 목자 고윤문은 한경면 두모리 사람으로, 일찍 아버지를 여의고, 홀어머니를 모시고 살았다. 목자의 역을 맡아 나갈 때마다 밥과 찬을 준비해 드리고 돌아와서는 배고프고 안고품을 여쭙어 배불리 해 드림으로써 법도를 삼았으며(…) (한국문화원연합회제주특별자치도지회, 『한경면 역사문화지』, 2007, 160-162쪽)

○ 『탐라순력도』(1703)에 등장하는 테우리 복장에 대해 고부자(2000)는 테우리들은 병거지 모자를 쓰고, 바지저고리를 입으며, 채찍을 들고 있었다고 했음.

- 병거지는 제주에서는 ‘털병것’이라 말하며, 가을에 쇠털이 빠질 때 이를 모아 두었다가 콩풀로 걸어 모자 틀에 넣어 찍어 낸 모자를 말함.
- 테우리들은 바지저고리에 포를 입고 허리띠를 매었고, 종아리에는 가죽발레를 끼었음. 가죽발레는 허벅지까지 올라오는 일종의 발 토수로, 이는 방한용으로 추운 겨울에 산야에 다니는 목자들이 사용했음(그림 V-95).¹²⁴⁾



〈그림 V-95〉 『탐라순력도』(1703)에 나타난 테우리 복장

124) 고부자(2000), 『『탐라순력도』에 나타난 복식』, 『탐라순력도연구논총』, 탐라순력도연구회, p.328.

7. 제주 목축문화 축제

1) 제주마 축제

- 제주마는 대한민국의 블루오션(blue ocean)이라 할 수 있어 국가 차원에서 제주마의 가치를 세계화하는 전략의 하나로 제주마 축제 프로그램 다양화와 주민참여 확대 그리고 범정부적 지원이 요청됨.
- 세계적 말 축제인 몽골의 <나담> 축제(7월)(그림 V-96·97), 일본의 후쿠시마현 <소마 노마오이> 축제(7월)는 제주마축제를 세계화시키는 모범사례가 될 수 있음.
 - 몽골 Naadam 축제는 가축들의 성장과 풍요 기원, 힘과 기술을 겨루는 경기를 통해 병사를 모집, 훈련시키는 군사적 의미를 지님. 1921년부터 몽골 혁명 기념일인 7월 11일부터 13일까지 수도 울란바토르에서 매년 개최하고 있으며, 축제 종목은 몽골 씨름, 말타기, 활쏘기로 2010년 유네스코 문화유산에 등재되었음.



〈그림 V-96〉 나담축제 개막식 장면
(©Mongolian National Tourism Center)



〈그림 V-97〉 나담축제 씨름경기 장면
(©Mongolian National Tourism Center)

- 제주마 축제의 내실화를 위해 전통적 목축문화에 바탕을 둔 다양한 축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제주인과 제주마가 함께하는 축제로 승화시킬 필요가 있음.

○ 제주마축제 프로그램

- 조랑말 경주마대회(그림 V-98), 말 거래시장 개설, 말 패션쇼, 마상무예, 격구, 낙인찍기, 말총(꼬리털) 공예, 젓짜기, 편자 만들기 체험, 말싸움 경기(그림 V-99) 등.



〈그림 V-98〉 조랑말 경주대회 장면
(1980년대 후반 제주시 애항운동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조랑말경주대회 장면,
제주도정뉴스)



〈그림 V-99〉 외국의 말 싸움 장면
(<http://blog.naver.com/didi1114130040529167>)

2) 제주 소 축제

- 제주도는 해안지역과 중산간 지역에 농경지가 있어 목축업과 함께 농업도 병행되던 지역이기 때문에 밭갈쇠(耕牛, 農牛)와 암소가 모두 필요했음.
- 제주의 소는 밭을 갈고 짐을 운반하거나 그리고 연말 명절(설)을 앞두고 <추렴>이라는 이름으로 고기를 제공하며 언제나 주민들과 함께 했던 가축이었으나 제주소를 주인공으로 했던 축제나 프로그램은 찾아보기 어려움.
- 조선시대 제주에는 황우(黃牛)와 흑우(黑牛)가 관청이 운영했던 모동장, 가파도별둔장, 천미장, 황태장에서 길러졌으며 국가의 요구가 있을 때 제주마와 함께 공마선을 타고 진상되었음.
- 제주흑우는 국가가 거행하는 제사나 의례에 희생물로 이용되었기 때



〈그림 V-100〉 천연기념물인
제주흑우
(한국종축개량협회 제주도사업소)

문에 특별 관리되었던 가축이었으며, 제주흑우의 역사성과 보존상태를 감안해 2013년 7월 천연기념물 제546호로 지정되었음(그림 V-100).

- 제주의 전통가옥에 등장하는 쉼막은 소를 기르던 공간으로, 바꺼리에 배치되었으며, 여름철에는 마을공동목장이나 한라산 백록담 상산에 올려 방목하다가 겨울철이면 쉼막에서 출을 주며 길렀음.

- 한국에서 소를 이용한 축제 형식이나 테마파크를 운용하는 지역은 경상북도 청도군이 유일하며, 이곳은 소싸움 놀이(민속투우대회)의 전통을 현대적으로 계승한 대규모 소싸움 경기장이 만들어져 있음. (사)한국우사회와 경상북도 그리고 인근 지역주민들이 삼위일체가 되어 경기장을 운영하며 소득을 올렸음(그림 V-101).



〈그림 V-101〉 2013년에 이루어졌던
청도 소싸움 경기 장면
(경북매일신문, 2014.7.29)



〈그림 V-102〉 스페인 북부 팜플로나 산 페르민 소몰이 축제
(<http://blog.naver.com/san9988?Redirect=Log&logNo=140195551491>)

- 소를 이용한 축제는 투우경기로 유명한 스페인에서도 열리고 있음. 특히 스페인 북부 팜플로나 지방은 피레네 산지를 이용해 이목(移牧) 형식으로 소를 기르는 전통을 가지고 있어 이를 활용한 <산 페르민 소몰이 축제>가 전 세계에 소개되고 있음(그림 V-102).

8. 제주 테우리 축제

- 바다의 주인공인 해녀에 대해서는 제주해녀박물관이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고 해마다 제주해녀축제를 열어 제주의 해녀문화를 전 세계에 알리고 있는 반면에 한라산지 초지의 개척자이면서 목축문화의 창출 주체들인 테우리(목자, 목동)들에 대해서는 제주가 말산업 특구로 지정된 현재에도 지역사회의 관심이 부족한 편임.
- 제주초원의 개척자인 테우리 축제(예시)
 - 축제명 : 제주초원의 개척자, 제주 테우리 축제
 - 축제일 : 백중날(음력 7월 15일)
 - 축제장소 : 가시리 조랑말체험공원 일대(변경가능)
 - 행사주체 : 가시리, 제주특별자치도, 한국마사회제주지역본부 등
 - 축제콘텐츠 : 테우리 목축기술 실연(진드기 구제법, 낙인, 귀표), 백중의례 재현, 갑마장길 걷기, 산장구마 재현, 점마실연(원장, 사장), 말몰이 재현, 목축민요 경연(발블리는 노래, 물방에 돌리는 노래 등), 마상무예공연(몽골인 초청 또는 제주청년), 말고기와 소고기 시식, 말과 소 품평회, 우마를 이용한 발 갈기 실연, 테우리 가요제, 목축문화를 소재로 한 제주어 말하기, 산마감목관 체험하기 등
 - 축제 효과 : 목축문화의 복원과 전승
- 제주도의 목축문화에는 몽골·중국·일본 그리고 한반도의 목축문화가 융합되어 있기 때문에 몽골·중국·일본의 목축민들을 제주 테우리 축제에 초청해 그들의 목축문화를 공연하도록할 경우 동아시아의 목축문화를 교류하는 기회가 될 것임.

9. 마을공동목장과 말산업 특구 활성화

1) 마을공동목장 활성화

- 2013년 12월 현재 남아있는 마을공동목장은 60여개에 불과하며, 이중 대부분은 특정 축산업자에게 공동목장을 임대해주고 있으나 서귀포시 하원동이나 남원읍 신례리 공동목장의 경우는 모범적으로 운영되고 있음.
- 마을공동목장 활성화 사례
 - 애월읍 장전리 공동목장 : 관광승마장, 음식점으로 공간활용
 - 표선면 가시리 공동목장 : 풍력단지 유치, 조랑말 체험공원과 조랑말 박물관, 유채꽃플라자 운영
 - 남원읍 신례리 공동목장 : 친환경 한우생산 목장
- 마을공동목장 목장 활성화 방법
 - 공동목장내 친환경적 힐링 마로(馬路) 개설, 승마장 목장올래, 테우리 올래길, 숲길, 목축문화 체험공원 등을 조성해 탐방객 유치
 - 접근성이 양호한 마을공동목장(남원읍 신례리, 제주시 해안동, 애월읍 남읍리·어읍리·봉성리, 표선면 성읍리 등)에서 목축문화를 재현하는 행사와 시설운영(캠프시설) 허용

2) 말산업 특구 활성화

- 농식품부는 2014년 1월 「말산업육성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를 전국 최초의 말산업특구로 지정했으며, 이에 따라 정부는 말산업특구 지역에 승마시설, 조련시설, 전문인력양성기관, 인공수정센터, 전문생산농장 등의 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예정임.
- 목축문화와 말산업 특구 연계방안
 - ① 제주마(조랑말) 체험공원 조성을 통한 승마인구 확대

- ② 말 테마파크 조성 ③ 말 문화 체험마을 선정(송당리, 가시리 등)
- ④ 목장길, 테우리 길, 힐링마로 조성
- ⑤ 제주마, 한라마를 활용한 공공승마장 운영
- ⑥ 산마장 관리본부였던 교래리 마을에 말고기 전문식당가 조성지원

10. 역사문화 관광상품 개발

- 제주지역의 관광은 지질자원(地質資源)을 활용한 상품개발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어 말산업 특구로 지정된 현재 시점에서 목축문화를 제주의 역사·문화·관광 상품으로 개발하는 방안을 제시함.

1) 『탐라순력도』(1703) 활용

- 「우도점마」 : 제주 동부지역에 위치한 화산섬인 우도에 설치된 마목장(우도장)에서 이형상 제주목사의 입회 아래 말들의 상태를 마적과 대조하며 확인하는 장면을 그린 지도로, 해마다 우도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우도장의 본거지인 소머리오름 분화구에 말목장의 역사와 문화를 설명하는 안내문 설치가 필요하며, 우도에서 열리는 축제에 우도 말목장 관련한 콘텐츠가 있었으면 함.
- 「산장구마」 : 현재 제주시 조천읍 교래리에 객사(客舍)가 표시되어 있으며, 객사는 본래 지방에서 왕권의 상징이었고 산마장(녹산장, 상장, 침장) 운영과 관련된 시설로 이용되었음.
 - 현재 이 마을에는 토종닭 요리 식당이 집중되어 있으나 이곳의 역사·문화·지리적 성격을 고려한다면, 장기적으로는 말고기 전문식당을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나아가 객사를 복원해 조선후기 목축역사와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목축마을로 부각시키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공마봉진」 : 제주시 관덕정 앞에서 진행된 공마과정과 공마실태, 공마선을 재현하여 하나의 상품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으며, 조선시대 공마선 운영과 공마의 종류, 공마선에 타는 뱃사람, 공마선이 출항하는 시기와 포구, 전라남도 해안에 도착한 뒤 한양까지의 운송과정을 보여줄 수 있음.

2) 제주와 몽골 교류사 활용

- 제주목장사에 등장하는 고려말 탐라목장과 몽골이야기는 색다른 흥미를 줄 수 있는 역사문화 관광상품 자원임.
 - 성산읍 수산리의 수산평에 1276년에 설치된 탐라목장 이야기
 - 1276년부터 1374년까지 몽골 목축인(하라치)들이 제주도에 정착해 살았던 이야기나 몽골식 목축이야기
 - 몽골인과 제주인과의 교류¹²⁵⁾
 - 탐라목장에서 생산된 말의 반출 이야기
 - 원의 멸망 후 제주에 정착하며 살았던 이야기¹²⁶⁾
 - 목호의 난 이야기 등

3) 목축민속 자원 활용

- 조선시대 지방관아가 주체가 되어 행했던 마조제와 공마해신제 그리고 민간의 목축의례인 백중제, 낙인코시, 귀표코시 등 목축민속 자원을 문화상품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음.
 - 목축의례들의 절차와 준비물(특히 음식)들은 목축 역사문화 관광상품으로 개발해도 손색이 없음.

125) 이에 대해서는 김일우(2013)의 「탐라와 몽골문화의 교류와 탐라사회의 변화」(『탐라사의 재해석』, 제주발전연구원)가 참조된다.

126) 김동전(2010), 「조선후기 제주거주 몽골 후손들의 사회적 지위와 변화 : 호적증초에 보이는 본관명‘大元’ 가문의 사례분석」, 『지방사와 지방문화』(Vol.13 No.2), 역사문화학회.

- 목축민들이 우마를 기르며 만들어놓은 목축민숙으로 척박한 토양환경 하에서 거름을 얻기 위해 행했던 바령밭 만들기 전통, 해마다 이른 봄철 마을주민들을 동원해 잡초제거와 진드기 유충제거를 위해 실시했던 방앳불 놓기, 방목 중인 우마들이 농작물에 피해를 입히거나 잃어버렸을 때 소유주를 구별하기 위해 이루어졌던 낙인하기, 목축관련 민요 등은 중요한 목축문화 콘텐츠 자료임.

4) 목축지명 활용

- 목축문화와 목축지명을 이용한 현장체험 프로그램을 역사문화 관광상품으로 개발할 것을 제안함.
- 제주도 동부지역인 구좌읍 송당리~표선면 가시리~남원읍 의귀리를 연결하는 ‘목축사 루트’는 제주의 대표적인 목축역사문화 체험 장소로 적극 추천할 만함.
- 송당리에는 1소장, 해방 후 국립제주목장, 가시리에는 녹산장, 갑마장, 마을공동목장, 조랑말체험 공원 및 조랑말박물관, 갑마장길 걷기 코스, 의귀리에는 김만일 묘역, 김만일 생가터 등이 있어 목축문화와 역사경관을 설명하기 적당함(그림 V-103·144).



〈그림 V-103〉 제주대박물관의 목축문화체험 프로그램 장면
(제주마의 본향, 의귀리 김만일 표석이 있는 남원읍 의귀리 마을회관, 2011.10.21)



〈그림 V-104〉 ‘헌마공신’ 김만일 묘역 답사장면

○ 목축문화 답사동선(踏查動線)

- ① 제주목관아지(공마 점검터) ② 조천포구(공마선 출발지, 공마감 관오영 구폐석) ③ 회천동 3소장 잣성 ④ 윗바메기오름 2소장(선흘2리) ⑤ 침장 돌문화공원(바늘오름) ⑥ 교래리 상장 잣성(구두리오름) ⑦ 대록산 녹산장 ⑧ 대록산 중잣성 ⑨ 번널오름 하잣성 ⑩ 따라비오름 갑마장 ⑪ 한남리 정씨열녀비 ⑫ 의귀리 김만일생가터 ⑬ 김만일 묘 ⑭ 송당리 국립목장터와 이승만별장 ⑮ 송당리 아부오름 공동목장 등

○ 조선시대 목장사와 관련된 지명들이 급격히 소멸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라지는 목축(장) 관련 지명들을 부활시키기 위해서는 목축지명을 이용한 현장답사도 유용할 수 있음(표 V-6).

- 물질, 물소, 테우리 동산, 물진밭, 물테왓, 바령밭, 장통(牆桶)밭, 물장통, 장통알, 서산장, 고마장, 좌가장, 모동장과 천미장, 1소장부터 10소장까지 목장명칭과 자장 명칭, 산장과 갑마장, 황태장과 곡장, 도, 직사터, 점마청터 등 목축역사 및 문화와 관련된 지명들은 단지 『향토지』에서만 존재할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기능했으면 함.

<표 V-6> 목축지명을 활용한 목축문화 답사장소의 실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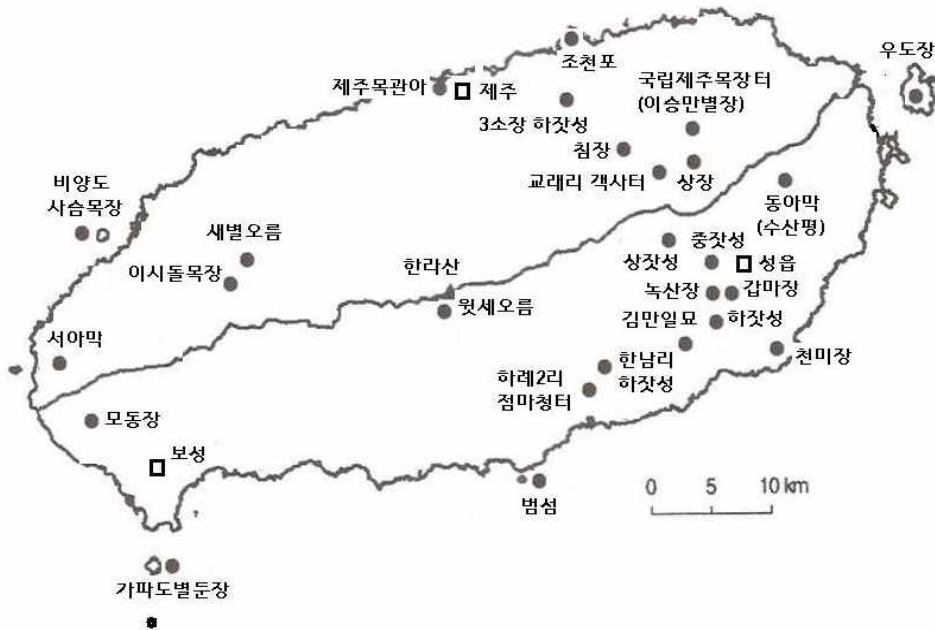
지역	답사지점	해설 내용
제주시 회천동	3소장 하잣성	바령밭, 팽목량(풍납도)
제주시 삼도동	제주목관아, 관덕정	진상마 최종 점검터
애월읍 봉성리	새별오름 입구	목호의 난(1374) 때 최영군대와 목호군의 싸움터
한림읍 비양리	비양도	녹장(사슴)
한림읍 금악리	정물오름	이시돌 목장, 잣성, 금악리 장통-6소장
한경면 고산리	수월봉	모동장, 지름장, 차귀진터
대정읍 가파리	가파도	가파도 별둔장
안덕면 상창리	병악	병악 상잣, 묘비에 기록된 7소장
서귀포시 하원동	법화사	물질, 점마청터, 하잣정도, 중잣
남원읍 하례2리	도로변 직사동네	9소장 목장관리 거주, 장통
남원읍 의귀리	현마공신 김만일 묘	사목장, 산마장
표선면 가시리	대록산 일대, 따라비 오름 번널오름	중잣, 녹산장, 갑마장 하잣, 가시리 공동목장
표선면 성읍리	백약이 오름	10소장

지역	답사지점	해설 내용
성산읍 수산리	대왕산, 남거봉 일대	고려말 몽골의 탐라목장
성산읍 신천리	해안가 신천마장	천미장
구좌읍 송당리	안돌오름, 송당목장 송당리 상동	국립목장, 이승만 별장터, 직사동네
구좌읍 한동리	한동 초등학교 부근	좌가장터
우도면	소머리 오름	우도장
조천읍 교래리	바늘오름	침장, 제주돌문화공원
조천읍선흘2리	윗밤오름	곡장(국장)
조천읍 함덕리	서우봉	서산장
조천읍 조천리	조천포구 비석거리	공마감 오영 구폐석

(강만익, 2005, 「전통사회 제주도의 목축지명 읽기」, 『제주역사문화』(제13·14호), 제주도사연구회, p, 85쪽)

11. 목축역사문화 현장체험학습

- 조선시대 제주고지도와 1:25,000 지형도에는 다양한 목축역사문화 유적이 나타나 있어 현장체험 학습 장소로 활용할 수 있음(그림 V-105).
- (구)제주시내에는 공마봉진 행사를 해마다 주기적으로 진행했던 제주 목관아와 회천동 지경의 3소장 하잣성이 위치함. 조천읍 조천리에는 공마선을 보냈던 조천포와 비석거리에 있는 공마감 오영구폐석, 교래리에는 산마장 중 가장 먼저 등장했던 침장과 산마장 관리본부 역할을 했던 객사터 그리고 산굼부리오름과 성불오름을 연결하는 초지대에 상장(上場)이 입지했음.
- 구좌읍 송당리에는 안돌오름과 밧돌오름 경계부와 거슨세미오름 도로변을 연결하는 동·서장 경계 잣성, 민오름 부근에 이승만 대통령 지시로 만든 국립제주목장터와 이승만대통령 별장이 있음.
- 구좌읍 우도면에는 말을 키워 공마에 대비했던 국마장인 우도장이 소머리오름 분화구 중심으로 형성되었음.



〈그림 V-105〉 제주도 목축역사문화 유적지 분포

- 성산읍 수산리에는 고려말 원이 설치한 탐라목장의 중심지였던 동아막, 표선면 가시리에는 녹산장·갑마장·하жат성·중жат성·상жат성·간장에 해당하는 경계돌담이 남아있음.
- 남원읍 한남리에는 하жат성과 목호의 난과 관련된 정씨열녀비, 하례2리 중산간도로 변에는 직세터와 점마청터가 있었음.
- 고려말인 1374년에 발생했던 목호의 난과 관련된 유적지로는 새별오름, 범섬이 대표적이며, 대정읍 신도리~무릉리~영락리~고산리를 연결하는 평야지대에 형성되었던 모동장 그리고 흑우를 길렀던 대정읍 가파리 가파도별둔장이 있었음.
- 한림읍 금악리에는 6소장 하жат성과 국마통 그리고 천주교 전파와 축산진흥을 이룬 이시돌 목장이 남아있으며, 한라산 윗세오름 일대는 과거 남제주군과 북제주군 우마와 테우리들의 집결지로 상산방목이 이루어졌던 상징적 장소였음.

12. 세계자연유산 및 지질공원 마을활성화

- 조천읍 선흘2리는 세계자연유산에 속하는 거문오름이 있는 마을로, 해마다 여름철이면 거문오름 국제트레킹이 열려 이 마을을 찾는 탐방객들을 위한 세계자연유산 마을 홍보프로그램이 개설되어 운영하고 있으나 마을의 목축역사를 반영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음.
- 선흘2리 마을에 있는 윗바메기오름 일대는 조선시대 십소장 목장 중 2소장에 해당하므로 세계자연유산 마을 홍보프로그램에 2소장 운영과 관련된 목축문화 프로그램을 접목시킨다면, 지질(地質) 위주의 프로그램을 보다 다양하게 할 수 있음.
- 한경면 고산리는 유네스코가 지정한 세계지질공원인 수월봉 응회환층이 해안에 발달하여 탐방객들이 날로 증가하면서 고산마을에서는 ‘제주도 세계지질공원 수월봉 트레일’ 행사를 열고 있음.



〈그림 V-106〉 고려말 서아막과 조선시대 모동장터(Naver 항공사진)



〈그림 V-107〉 『제주삼현도』에 표시된
모동장(*高山은 수월봉에 해당)

- 고산리는 고려 말에는 몽골이 운영했던 ‘서아막’이 존재하여 말을 생산, 관리했으며, 조선시대에는 모동장(毛洞場)이 고산리~신도리~영락리~무릉리 평원지대에 입지하여 흑우와 황우를 생산했음.(그림 V-106·107)

- 수월봉 지질트레일 프로그램에 고려말 몽골인들의 서아막 목축이야기, 그리고 목호의 난과 최영장군 이야기, 대정현감이 작성한 『대정현 아

중일기』에 등장하는 조선시대 우목장(牛牧場 : 소의 생산, 관리담당) 중 모동장 운영 실태에 대한 이야기 등은 수월봉 지질트레일 행사의 재미를 더해 줄 것임.

13. 공마선 도착지와의 역사·문화 교류

- 조선시대 공마선은 대체로 조천포를 출발해 제주해협과 추자도를 통과하면 해당 도회관(都會官)의 위치에 따라 전라남도 이진, 강진, 마량, 해남, 영암에 도착했음.
- 1400년대 초부터 대한제국기까지 무려 500년 이상 공마가 지속되었기 때문에 공마선이 도착했던 강진, 마량, 이진, 해남, 영암 등은 오랜 세월 제주도와 역사·문화적 교류를 이어왔음(그림 V-108·109).
- 공마선 도착지에는 제주마와 관련된 역사유적들이 존재하고 있어 이들

유적에 대한 조사연구를 전개함과 동시에 그 결과를 이용해 제주도와 이들 지역간 공동학술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역사문화 교류방안을 모색할 필요 있음.

○ 제주의 공마들이 한양까지 운송된 공마로와 공마의 육로운송에 따른 애환을 기록한 관찬문서에 대한 조사도 요구됨.

- 공마로는 『문헌비고』(1770)에 의하면, 제주에서 출발해 해남의 이진포구에 도착 후 강진을 거쳐 나주, 정읍, 태인, 전주, 삼례를 거쳐 서울로 가는 삼남대로(三南大路)였음.¹²⁷⁾



〈그림 V-108〉 전남 마량에 세워진
돌하르방(현지촬영)



〈그림 V-109〉 공마선이 도착했던 이진
포구(현지촬영)

127) 신정일(2008), 『삼남대로-해남에서 서울까지 옛길을 걷다』, 휴머니스트, p.9.

VI. 연구결과

- 이 연구는 2014년 제주도가 대한민국 제1호 말산업특구로 지정된 상황에서 제주도의 전통적 목축문화원형을 어떻게 보전하고, 자원화해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에서 제주도 목축문화에 대한 역사적 조명과 목축문화원형에 대한 실태조사 그리고 보전·활용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진행되었음.
- 목축문화의 터전이었던 제주도 목장의 기원은 1276년 원이 설치한 탐라목장이었으며, 원은 탐라에 동·서 아막을 설치하고 달로화적을 파견해 목장을 운영했음. 1374년 원 출신 목호들이 명의 200필 징마요구를 거부하며 난을 일으키자 공민왕의 명을 받은 최영장군이 탐라에서 목호세력을 토벌했음.
- 조선시대에는 국영목장인 십소장 그리고 산마장, 모동장, 가파도별둔장, 우도장 등이 설치되었으며, 『탐라순력도』(1703), 『탐라지도』(1709), 『제주삼읍도총지도』(1730년대)에 제주목장 관련 지리정보들이 표현되어 있음.
- 제주도의 목축문화는 한라산지에 발달한 초지대와 온난한 겨울 환경 속에서 등장한 자연환경의 산물인 동시에 고려시대부터 현재까지도 지속되고 있는 목장사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며, 기르는 대상에 따라 말 문화와 소 문화 그리고 순수목축문화와 혼합목축문화로 구분할 수 있음.
- 제주마 문화로는 거세(去勢), 낙인(烙印), 점마(點馬), 공마(貢馬), 둔(屯) 방목, 감목관, 목자, 밭 밟기(踏田), 잣성(牆垣), 마조제, 공마해신제, 밀방애, 말충공예 등이 확인되었음.
 - 거세, 낙인은 15세기 초에도 존재하여 몽골 목축문화의 유풍일 가능성이 높음.
 - 잣성은 조선시대 제주도 국마장의 존재를 증명해주는 대표적인 역

사유적으로, 십소장의 상·하 경계선, 산마장의 경계를 따라 남아 있으며, 위치에 따라 하жат성·상жат성·중жат성으로 구분됨.

- 낙인은 자형이나 도형이 새겨진 쇠붙이를 달구어 가축에 찍는 일종의 쇠도장으로, 무쇠를 이용하여 자기의 성씨나 마을별 또는 문중별로 정해진 약자를 사용했음.
- 제주도의 토양은 바람이 불면 흙이 날려버리는 등 농사에 지장을 주었기 때문에 파종 후 우마를 이용해 밭을 밟아주는 진압농(鎭壓農)이 행해졌음.
- 마조제는 말의 조상신에게 올렸던 제사로, 중앙에서는 사복시가 주관하여 살곶이 목장 내에 있었던 마조단에서 행했으며, 제주지역에는 국마장의 마필 수가 감소하는 등 마정이 혼란스런 시기였던 1800년대 중반에 마조단이 설치되어 치제가 이루어 졌고, 공마해신제는 공마선의 안전한 항해를 기원하며 제주목사가 주관했던 의례였음.

○ 제주 소 문화로는 쇠태우리, 방앳불농기, 바령, 밭 밟기(踏田), 진드기구제 등이 존재했음.

- 태우리는 전문적인 목축기술을 가지고 우마를 방목하며 목축목화를 만들어낸 주체들임.
- 목야지에서 공동으로 혹은 개별적으로 불을 놓아 잡초나 초지를 태우는 것을 방앳불 놓기라고 했음. 이것은 제주도의 초지생태 환경을 잘 드러내는 문화현상으로, 주로 오름이나 공동목장에서 이른 봄 들판에 쌓였던 눈이 녹아 마른 풀이 드러나는 음력 2월이나 3월 초순에 이루어졌음.
- 태우리들은 우마의 번식을 기원하는 백중제를 음력 7월 15일에 떡과 밥, 술 등 제물을 가지고 바령밭, 목장 또는 목장 내에 위치한 오름 정상에 올라가 제를 지냈음.
- 바령은 밭에 마소들을 몰아넣은 다음 이들의 배설물(糞)을 받아

거름으로 만드는 것으로, 바령을 행했던 장소를 바령밭이라고 하며, 팔양(八陽)이라고 했음. 바령밭 만들기는 척박한 제주도의 토양환경을 인식한 제주도민들의 전통지혜에 해당함.

- 13개 마을의 목축문화 실태조사 결과, 낙인, 귀표, 목축의례(백중제, 테우리코시, 목감의례), 공동목장 윤환방목, 방앗불 놓기(화입), 진드기 구제, 목감, 목감막(테우리막, 우막), 급수장, 발갈새 등이 공통된 목축문화로 확인되었으며, 앞으로 목축문화의 원형에 대한 마을별로 전수 조사가 필요함.

- 제주도 목축문화의 보전방안을 우선순위별로 제시하면,

첫째, 테우리 집단의 목축기술에 대한 구술채록이 선행되어야 함. 테우리 집단들이 고령화되어 점점 사라지고 있는 현실에서 이들이 보유하고 있는 목축기술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는 시급한 과제라 할 수 있음.

둘째, 목축문화박물관 설치가 필요함. 한국마사회와 제주특별자치도청 그리고 민간부분이 합작하여 건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후보지로는 접근성이 양호한 애월읍 장전리 공동목장, 제주시 해안동 공동목장 등이 있음. 박물관 설치를 희망하는 마을이 있을 경우, 마을회관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이용하거나 지자체가 관리하는 건물을 재활용하는 방안도 고려할 만함.

셋째, 테우리 학교운영을 제안함. 테우리들의 목축문화에 대한조사·연구 결과를 토대로 제주도의 목축문화를 체험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계승하기 위해 테우리 학교운영을 건의함. 테우리 학교로 이용 가능한 건물은 현재 제주시 교래리에 위치한 갓 전시관 건물을 임대해 활용하는 방안 또는 교래리 자연휴양림 내의 건물을 이용할 수 있을 것임.

넷째, 목축문화 해설사 및 스토리텔러 양성이 필요함. 전통적으로 제주의 목축민들이 초지환경을 어떻게 활용했는지에 대한 조사와 연구를 통해 전공지식을 축적한 다음, 애정을 가지고 목축문화

를 소개할 수 있는 목축문화 해설사 양성이 시급하며, 동시에 목축문화에 등장하는 다양한 역사와 화제들을 대상으로 한 스토리텔러(story-teller) 양성이 요구됨.

다섯째, 동아시아 목축문화연구센터 설치를 제안함. 제주도의 목축문화에는 몽골, 중국, 한국, 일본의 목축문화가 융합되어 있어 동아시아의 목축문화를 비교하여 제주도 목축문화의 정체성을 구명하는 작업이 필요함.

○ 제주도 목축문화의 활용방안을 우선순위별로 제시하면,

첫째, ‘헌마공신’ 김만일(金萬鎰) 테마공원 조성이 필요함. 김만일의 출신지인 남원읍 의귀리에는 김만일 관련 역사유적이 남아있어 이를 활용해 리유지나 공동목장 또는 마을자체를 김만일 테마공원으로 조성하면 의귀리 마을 활성화에도 큰 도움을 줄 것임.

둘째, 한라산 상산방목 재현을 제안함. 제주도민들은 1970년대 한라산이 국립공원으로 지정되기 이전에 한라산 백록담, 윗세오름, 방애오름, 선작지왓의 고산 초지대를 이용해 우마를 방목했던 목축문화를 가지고 있었으며, 상산방목 문화를 재현하여 소멸된 목축문화의 복원과 함께 한라산의 역사문화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

셋째, 목축문화를 활용한 마을활성화가 필요함. 목축문화를 이용해 마을발전 전략을 수립하여 성공을 거둔 사례로는 표선면 가시리 마을과 애월읍 장전리가 대표적이며, 앞으로 구좌읍 송당리, 남원읍 의귀리, 한림읍 금악리, 남원읍 하례리의 경우 목축문화 콘텐츠 원천자료가 많아 마을 활성화 가능성이 높음.

넷째, 목축문화원형을 활용한 콘텐츠 개발이 필요함. 목축문화 콘텐츠로 개발이 가능한 항목으로는 문화재 자료, 인물자료, 무형유산, 유형유산, 기록유산 자료 등이 있으며, 목축문화 방송콘텐츠, 목축문화 음식콘텐츠, 목축의례 콘텐츠 개발도 제주도의 문화산업 육성에 기여할 것임.

다섯째, 마상무예단 육성을 제안함. 현재처럼 700년전에 제주에 살았던 몽골인들의 후예들이 마상무예 공연을 통해 수입을 창출하는 구조는 제주와 몽골의 관계개선에 필요하지만 장기적인 안목에서 말 산업관련 학과를 개설한 대학교에 마상무예단을 양성할 것을 제안함.

여섯째, 테우리(牧子)를 주인공으로 하는 콘텐츠 개발을 제안함. 테우리를 활용한 콘텐츠 원천자료에는 『조선왕조실록』, 「제주목장구폐완문」(1860), 『대정현아중일기』(1817~1818) 등이 있으며, 여기에 나타난 다양한 목자들의 삶 이야기를 콘텐츠화 할 필요 있음.

일곱째, 제주마 축제와 제주소 축제를 포함하는 목축문화축제를 열으면 함. 제주마 축제를 보완하여 한국 대표축제로 발전시킨 다음, 장기적으로는 몽골이나 일본의 마축제처럼 제주마 축제를 세계화할 필요가 있음. 현재 제주지역에는 제주 소를 테마로 한 축제는 전혀 존재하지 않고 있어 경상북도 청도군 소 싸움 축제나 스페인 팜플로나 지방의 소몰이 축제를 참조하여 장기적으로 제주 소 축제를 여는 방안도 모색할 필요가 있음.

여덟째, 제주초원의 개척자인 테우리 축제를 제안함. 테우리 목축기술 실연(진드기 구제법, 낙인, 귀표), 백중의례 재현, 산장구마 재현, 점마실연(원장, 사장), 말몰이, 목축민요 경연(발블리는 노래, 물방에 돌리는 노래), 테우리 마상무예 공연과 산마감목관 체험하기 등은 의미 있는 테우리 축제 콘텐츠임.

아홉째, 마을공동목장과 말산업 특구 활성화방안 제시가 필요함. 마을공동목장이 활성화된 사례로는 애월읍 장전리 공동목장, 표선면 가시리 공동목장이 대표적이며, 말산업 특구와 목축문화의 연계방안으로는 제주마(조랑말) 체험공원 조성을 통한 승마인구 확대, 말 테마파크 조성, 말 문화 체험마을 선정(송당리, 가시리), 목장길, 테우리길, 힐링마로 조성, 제주마와 한라마를 활용

한 공공승마장 운영, 산마장 관리본부였던 교래리 마을에 말고기 전문식당가 조성 등이 필요함.

열째, 역사문화 관광상품 개발이 필요함. 목축문화를 활용한 역사문화 관광상품으로는 『탐라순력도』(1703)에 등장한 목장경관을 상품화하는 방안을 제시함. 목축지명을 이용한 현장체험 프로그램을 상품으로 개발할 것을 제안함. 구좌읍 송당리~표선면 가시리~남원읍 의귀리를 연결하는 지역을 목축관련 역사·문화 체험 장소로 적극 추천함.

열한 번째, 조선시대 제주고지도와 1:25,000 지형도에 존재하는 목축역사문화 유적지를 찾아 떠나는 목축역사문화 현장체험학습 자료 개발이 필요함.

열두 번째, 세계자연유산 및 지질공원 마을과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할 만 함. 거문오름이 있는 조천읍 선흘2리의 윗바메기오름 일대는 조선시대 십소장 목장 중 2소장에 해당되며, 한경면 고산리는 고려 말에는 몽골이 운영했던 서아막이 존재하여 말을 기르고, 조선시대에는 모동장(毛洞場)이 입지해 흑우와 황우를 생산했음.

열세 번째, 조선시대 제주에서 출발한 공마선 도착지인 이진, 강진, 마량, 영암 등지에는 제주마와 관련된 역사유적들이 존재하고 있어 이들 유적에 대한 조사를 진행함과 동시에 제주도와 이들 지역 간 역사문화 교류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이상과 같은 제주도의 목축문화는 제주도적인 전통문화 중 하나이며, 동시에 동아시아의 목축문화들이 곳곳에 융합되어 있다는 점에서 세방화(glocalization) 시대에 경쟁력 있는 역사·문화 자원에 해당함.
- 문화산업이 급부상하고 있는 오늘날 제주의 목축문화를 다양한 콘텐츠로 개발할 경우,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며, 나아가 말 산업이 제주의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강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말문화를 포함한 목축문화에 대한 학제적 연구가 요청됨.

참고문헌

- 가시리(1988), 『가시리지-가스름』, 대동원색인쇄사.
- 강만익(2001), 「조선시대 제주도 관설목장의 경관 연구」,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지리교육전공 석사논문.
- _____(2004), 「일제강점기 제주도 공동목장의 운영실태」, 『제19회 전국 향토문화공모전수상집』, 전국문화원연합회.
- _____(2005), 「전통사회 제주도의 목축지명 읽기」, 『제주역사문화』, 제 13·14호, 제주도사연구회.
- _____(2006), 「제주도의 목축문화와 그 유적」, 『탐라문화권 정비 기본계획수립보고서』, 제주특별자치도·제주문화예술재단.
- _____(2007), 「조선시대 김만일 가게 산마장의 입지환경과 그 유적」, 『제주마학술조사보고서』, 제주특별자치도·제주문화예술재단.
- _____(2008), 「1930년대 제주도 공동목장 설치과정 연구」, 『탐라문화』(32),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 _____(2009), 「조선시대 제주도 잣성(牆垣)연구」, 『탐라문화』(35), 제주대 탐라문화연구소.
- _____(2010), 「제주도민의 목축생활사① 하효마을의 사례」, 『제주학』 제 6호·겨울, (사)제주학 연구소.
- _____(2011), 「일제시기 제주도 마을공동목장조합 연구」, 제주대학교 사회학과 박사학위논문.
- _____(2013), 『일제시기 목장조합연구』, 경인문화사.
- _____(2013), 「근현대 한라산 상산방목의 목축민속과 소멸」, 『탐라문화』(43),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 _____(2013), 「한라산지 목축경관의 실태와 활용방안」, 『한국사진지리학 회지』, Vol.23, 한국사진지리학회.
- _____(2013), 「제주도민의 목축생활사 ② 가시리의 사례」, 『제주학』 제7호·겨울, (사)제주학연구소.
- 강민수(1999), 『제주 조랑말』, 제주대학교출판부.

- 강영봉(1992), 「제주도방언의 몽고어 차용어들(Ⅰ)」, 『제주도언어민속논총』, 현용준박사 화갑기념논총 간행위원회, 제주문화.
- 강정원·박환영·이평래·장준희(2009), 『세계의 말문화Ⅰ 몽골·중앙아시아』, 한국마사회 마사박물관.
- 고광민(1998), 「제주도 우마치기의 기술과 문화」, 『제주도』(102호).
- 고광민(2004), 『제주도의 생산기술과 민속』, 대원사.
- 고문석·양성룡·장덕지(2011), 『사진으로 보는 제주목축문화』,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난지축산시험장.
- 고부자(2000), 「『탐라순력도』에 나타난 복식」, 『탐라순력도연구논총』, 제주시·탐라순력도연구회.
- 고산향토지 발간위원회(2000), 『고산향토지』.
- 고성리 향토지편찬위원회(1993), 『고성리지』.
- 고창석(1994), 「헌마사신 김갑우의 단죄사건」, 『제주도연구』 제3호, 제주도사연구회.
- 고창석(2001), 『제주도고문서연구』 (탐라문화학술총서 Ⅰ),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 고창석·김상옥 역(2012), 『제주계록』(제주발전연구원 제주학총서④), 제주발전연구원.
- 광령1리(1990), 『광령약사』, 재승인쇄사.
- 권무일(2012), 『헌마공신 김만일과 말 이야기』, 평민사.
- 권석환·안병삼·이기훈(2010), 『세계의 말문화Ⅱ 중국』, 한국마사회박물관.
- 구좌읍 한동리(1997), 『둔지오름(한동리지)』.
- 김동전(1991), 「19세기 제주 지역의 신분구조와 직역의 사회적의미」, 『19세기 제주사회연구』, 일지사.
- _____(2003), 「제주 지역 문화의 올바른 이해와 활용방안」, 『지방사와 지방문화』 Vol.6, 역사문화학회.
- _____(2010), 「조선후기 제주거주 몽골 후손들의 사회적 지위와 변화: 호적중초에 보이는 본관명 ‘大元’ 가문의 사례분석」, 『지방사와 지방문화』 Vol.13, 역사문화학회.
- _____(2010), 「문화의 시대 21세기, 제주역사문화의 현재적 의미와 활용」, 『한

- 국소성가공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No.10, 한국소성가공학회.
- 김만석(2010), 『전통문화원형의 문화콘텐츠화 전략』, 북코리아.
- 김봉옥 편역(1994), 『續 耽羅錄』, 제주문화방송주식회사.
- 김봉옥(2013), 『증보 제주통사』, 제주발전연구원.
- 김성구, 『남천록』(1679-1682).
- 김인택, 『丁丑六月日大靜縣衙中日記』(1817-1820).
- 김인호(1997), 『한국제주역사문화뿌리학』(상), 우용출판사.
- 김인호(2006), 『한국 제주 역사·문화뿌리학』(하), 서귀포문화원.
- 김일우(2005), 「고려시대 탐라 지역의 우마사육」, 『사학연구』 No.78, 한국사학회.
- _____ (2000), 『고려시대 탐라사 연구』, 신서원.
- _____ (2005), 『고려시대 제주사회의 변화』, 서귀포문화원.
- _____ (2007), 「“말[馬]의 고장” 제주와 김만일(金萬鎰) 관련 역사자료 활용화의 첫 방안」, 『한국사진지리학회지』 Vol.17, 한국사진지리학회.
- _____ (2013), 「탐라와 몽골문화의 교류와 탐라사회의 변화」, 『탐라사의 재해석』, 제주발전연구원.
- 김찬흡 외(2002), 『역주 탐라지』, 푸른역사.
- 남원읍 하례리 마을회(1999), 『하례마을』, 서울문화사.
- 남읍 향토지편찬위원회(2006), 『남읍향토지』, 세림원색인쇄사.
- 노형 동지발간위원회(2005), 『노형동지』, 반석원색인쇄사.
- 농촌진흥청 난지축산시험장(2011), 『제주도의 목축문화』.
- 농촌진흥청 난지축산시험장(2013), 『제주도의 말문화』.
- 남도영(1996), 『한국마정사』, 한국마사회 마사박물관.
- 남도영(2003), 『제주목장사』, 한국마사회 마사박물관.
- H. 라우텐자흐 지음(1945), 김종규 외 옮김(1998), 『코리아 I』.
- 류기선(1993), 「몽골의 유목생활과 방목기술」, 『한몽공동학술연구』 No.2, 단국대학교 한몽학술조사연구협회.
- 박원길(2005), 「제주 습속 중의 몽골적 요소」, 『제주특별자치도 추진과 탐라국 독립성상실 900년 회고』, 사단법인 제주학회.

- 박찬식(1993), 「17·8세기 제주도 목자의 실태」, 『제주문화연구』.
- 북제주군·제주대학교탐라문화연구소(2004), 『북제주군의 <선사유적> 비지정 문화재 조사보고서』.
- 서귀포시 하효마을회(2010), 『하효지』.
- 성산읍 신평리(2006), 『넷가의 풍년마을』.
- 심낙수(1794), 『山場節目』(제주자연사박물관소장자료).
- 오등동 향토지편찬위원회(2007), 『오등동향토지』, 태화인쇄사.
- 오상학(2006), 「지도와 지지로 보는 한라산」, 『한라산의 인문지리』, 제주도·한라산생태문화연구소.
- 오성찬(1990), 『한라산』(고려원 소설문고 085), 고려원.
- 오창명(2000), 「『탐라순력도』의 땅 이름(지명)」, 『탐라순력도연구논총』, 제주시·탐라순력도연구회.
- 윤경로(2001), 『향토강정』(개정증보판), 태화인쇄사.
- 이건, 『제주풍토기』, 김태능(1976), 『탐라문헌집』, 제주도교육위원회.
- 이영배(1992), 「제주마 낙인의 자형 조사(I)」, 『조사연구보고서』 제7집, 제주도민속자연사박물관.
- 이영배(1993), 「제주마 낙인의 자형 조사(II)」, 『조사연구보고서』 제8집, 제주도민속자연사박물관.
- 이원진(1653), 『탐라지』.
- 이형상 지음, 이상규·오창명 엮음(2009), 『남환박물』, 푸른역사.
- 임경택·박동성·진필수·오자키 다카히로(2011), 『세계의 말 문화 III 일본』, 한국마사회 마사박물관.
- 정 광(2010), 『역주 원본 노걸대』, 박문사.
- 장덕지(2007), 『제주마 이야기』, 제주특별자치도.
- 전영준(2013), 「13~14세기 원(元)의 목축문화 유입과 제주사회의 변화」, 『제주학회 학술발표논문집』 No.1, (사)제주학회.
- 정운경 지음, 정민 옮김(2008), 『탐라문전록, 바다 밖의 넓은 세상』, 휴머니스트.
- 정지용(1941), 『백록담(白鹿潭)』, 문장사.
- 조성윤(2001), 「조선후기 제주도 부자 이야기 : 김만일 집안과 산마감목관」,

- 『濟州島史研究』(Vol.10), 제주도사연구회.
- 좌동렬(2010), 「전근대 제주지역 목축의례의 역사민속학적 연구」, 제주대 사학과 석사논문.
- 제주관광학회(2014), 『현마공신 김만일 스토리텔링사업연구』, 제주관광공사.
- 제주교육박물관(2007), 『탐라지초본』(춘·하)(상).
- 제주도(2002), 『제주도 제주마』.
- 제주도·제주도문화예술재단(2007), 『제주마 학술조사 보고서』.
- 제주문화유적지 관리사무소(2007), 「제주목장구폐완문」, 『도영절차·영해 창수록』.
- 제주특별자치도(2008), 『제주문화상징』, 제주문화예술재단.
- 제주특별자치도(2009), 『개정증보 제주어사전』.
- 진성기(2012), 『제주도민요전집』, 제주민속박물관.
- 진영일(2008), 『고대중세 제주역사탐색』,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 천진기(2006), 『한국말민속론』, 한국마사회 마사박물관.
- 泉靖一(1971), 홍성목 역(1999), 『濟州島』, 제주시 우당도서관.
- 하원마을회(1999), 『하원향토지』.
- 한국문화원연합회 제주특별자치도지회(2007), 『한경면 역사문화지』.
- 한림읍지 편찬위원회(1999), 『한림읍지』.
- 현용준(2008), 「번쇄와 멤쇄」, 『제주문화상징』, 제주특별자치도.
- <http://www.cha.go.kr>(문화재청).
- <http://www.history.go.kr>.(국사편찬위원회).

목축문화 면담조사에 도움주신 분

고치훈(78세, 광령1리 1227번지)
진봉문(76세, 광령1리 1181)
양재안(89세, 광령1리 1261번지)
김장현(74세, 광령1리 1247-2)
김덕칠(71세, 광령1리 1090번지)
정성호(76세, 하효동 193-1)
고성수(83세, 하효동 734-3)
오세창(60세, 상호동 2302)
현성화(73세, 호근동 1753)
강용규(88세, 하원동 1317)
김기윤(75세, 하원동 419)
강만진(63세, 도순동)
원수윤(전 하원공동목장조합총무, 56세)
이종환(애월읍 유수암리 이장)
전태일(제주시 오등동 77세)
강철호(유수암리 공동목장조합장)
강용택(유수암리 공동목장조합 총무)
강세표(장전공동목장조합장, 64세)
강덕희(전 장전공동목장조합장, 57세)
강규방(전 삼리공동목장조합 이사, 75세)
양두행(봉성리 4025-1, 78세)
상가리목장환원대책추진위원회 위원장 김화중
김재문(상가리 애상로 258-4, 84세)
강인선(금악리, 2173-5, 68세)
홍태화(송당리 비자림로 1761, 79세)
안봉수(전 가시리 신문화공간조성 추진위원회 위원장)
오원일(성산읍 수산1리 579번지, 55세)

ABSTRACT

Preservation and Utilization and Real condition of Livestock-farming culture in Jeju Island

Kim, Dong-jeon · Kang, Man-ik

Key words : Jeju Island, Livestock farming culture, Mt. Halla Mountain Area, Gukmajang(國馬場), Sipsojang(十所場), Sanmajang(山馬場), Kim, man-il(金萬鎰), Sanma-Gammokkan(山馬監牧官), Mokja(牧子), Teuri, Jatseong, Baryeong, Branding iron, Castration, Village co-operative pasture, Sangsan-bangmok(上山放牧), Culture Contents, Teuri-School, Jeju Teuri Museum, Jorangmal, Jeju-horse festival.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that preservation and utilization and real condition of livestock-farming culture in Jeju Island.

Recently, ranching in Jeju Island grows weakened and faces a serious crisis, then I dare to propose preservation and practical use livestock-farming culture in Jeju Island. Ranching is impacted on the light slope and pasture, then the unique historical-pasture culture is built with the various environments on slopes, meadows, small(200~600m) and high hills(more over 1,400m) around Mt. Halla. And warm weather in the winter and large expansive with slowing grade meadows help the progress of Jeju Island's cattle raising. And all of them was influenced by the long lasting historical circumstances as Tamra-Ranch[during Monglo[yuan Empire] and Gukmajang-the national ranch of Joseon- Dynasty. Yuan(元) Empire1 was installed

Tamra ranches from 1276 at Susanpyong(首山坪) in East Jeju Island. At the beginning of the Choson Dynasty, as demands for post horses and fighting horses was increased, Jeju Island was specialized as a producing district for horses.

Specially, Government-installed ranches literally means grazing land of raising nation owned horses. It was created by nation during the Choson Dynasty.

During the Choson Dynasty, Government-installed ranches were consisted of Sip-sojang(십소장), Ja-mokjang(자목장), Sanma-jang(산마장) and Udo-jang(우도장), Gapadobyulldun-jang(가파도별둔장), Modong-jang(毛同場). These ranches were distributed on Jeju Island except from settlement and farming regions of coastal area. And were operated by Gammokkan(an officer for livestock-farming), and Magam(head of Sip-sojang), Gundu(head of Ja-mokjang), Gunbu and Mokja(herdsmen, that is a tueri), etc.

According to the study about real condition of livestock-farming culture in Jeju Island, this culture was consisted of the horses and cattle culture. The horses culture in Jeju Island consisted of Branding iron, Castration, Gongma(貢馬), Jeomma(點馬), Teuri, Jatseong, Majoje(馬祖祭), etc. And the cattle culture consisted of Branding iron, Bangae(放火), Bunswae(번쇠), Sangsan-bangmok(上山放牧), etc. Specially, Sangsan-bangmok was stock-farming form that done near Baengnokdam(白鹿潭) 1400~1950 meters above sea level that is the highest pasturage region in Korea and it was a traditional stock-farming culture of Jeju-Island pastoralist. Jeju-teuris(pastoralists) were offering a sacrifice to spirits for find that lost horses and cattle and make a start grazing, prepare for dry a tilefish and candle. When high up horses and cattle, Jeju-teuris were doing brand iron and ear tag.

Preservation for livestock-farming culture are oral history about livestock-farming skill of Jeju Turi-group, cultivation of cultural tourism interpreter and story-teller about livestock-farming culture, operation of

Jeju Turi-School, installation of East Asia livestock-farming culture research center, etc.

Utilization for livestock-farming culture are contents development about utilizing the cultural archetype of livestock-farming and Jeju- Teuri, development historical-cultural sightseeing merchandise, Jeju livestock-farming culture festival, Jeju-Teuri festival, createdness of Kim-manil theme park that he was meritorious retainer at offer horse in the Choson Dynasty, reappearance of Sangsan-bangmok at Mt. Halla Mountain

Finally, stock-farming culture of Jeju-Island leads the possibility for making various contents on the important cultural-historical basis, material varieties. These need to develop the new field like stock-farming formality, food applications, making wide-diversities and programs with broadcasting systems, building farm-raising cattle museum and so forth.

Above all, the whole contents developing has to go with cowboys and stock-farmers. Surely it leads the poor and decline ranching conditions around Jeju Island to strong and wealthy one.

연구진

연구책임	김 동 전	제주대학교 사학과 교수
공동연구	강 만 익	제주대학교 겸임교수(지리교육전공)
연구보조	임 승 희	제주대학교 대학원 사학과 박사과정 수료

제주학연구 9

제주도 목축문화의 실태와 보전·활용방안

발행인 || 공 영 민

발행일 || 2014년 8월

발행처 || 제주발전연구원 제주학연구센터

690-162 제주시 아연로 253

전화 : (064) 726-6138 팩스 : (064) 751-2168

홈페이지 : www.jst.re.kr

인쇄처 || 하나CNC

ISBN : 978-89-6010-383-2 93090

- 이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진의 견해로서, 제주특별자치도의 정책적 입장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보고서는 출처를 밝히는 한 자유로이 인용할 수 있으나 무단전재나 복제는 금합니다.